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8호 2020년 08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자녀육아 돌봄 더 쉬워졌다. 다함께돌봄센터, 경기육아나눔터 개소

광명시에서 자녀육아 및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명시와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7월 20일 광명역 씨앗플레이스 아파트 어린이도서관에서 '광명시 씨앗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와 '경기육아나눔터 씨앗다락방' 개소식을 가졌다. 두 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와 아파트 측이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와 시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 개소했다. <관련기사 36면> 송하성기자

다문화가족에게도 도움 될 지역사회 고용 복지 강화 정부 발표

정부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제도를 발표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정부는 노동자가 아프더라도 일정 수당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 후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으로 바꾼다. 산재보험 대상에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도 포함한다. 내년 1월에는 국민취업지

원제도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용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손본다. 임신 노동자의 유사산 방지를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린다. 제한적으로 출산전후 급여만 받을 수 있었던 특고 종사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

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명에 대응해 직업훈련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케이 디지털 크레딧'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

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 구직 분야 민간 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은 비정부기구(NGO)와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안팎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2, 5, 39, 41, 46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26, 34, 38, 46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8, 42 네팔어(Nepali) नेपाल 25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3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40, 43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26, 29, 45 미얀마어(Myanmar language) 19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12, 14 교육 Education 5 생활정보 Information 3, 8, 16, 20, 25, 28, 29, 33, 46 육아 Child Care 6, 7 인권 Human Rights 19 코로나19 Corona19 5 경제 Economy 31 기고 Column 25 도서관 Library 21, 24, 32, 34, 40 보건 Health 15, 35 취업 Job 30, 37 비자 Visa 16, 34, 42, 45 복지 Welfare 1, 18, 41, 43 노동 Labor 2, 38, 40, 44 나의 학습 My Study 7, 26 법률상식 Common Sense in Law 13 기획 Plan 11, 27 한국어 21, 39

대선 지지율 크게 올라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 인정

재임 중 소외받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인 배려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면서 경기도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위 이낙연 의원과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7월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2차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지지도는 24%로 전체 1위, 이 지사는 20%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보수야권 인물로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다.

4개사가 공동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30대(33%)와 호남

권(41%)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체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40대(29%)와 인천·경기(25%)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앞선 능력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가 최근 존재감을 키운 계기는 먼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이 크다. 이 판결은 합당하고 올바른 판결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것도 이재명 지사의 능력을 크게 돋보이게 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이후 초기 집단발병 사례가 집중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대처, 재난지원금의 선제적 지급 등으로 이슈를 주도했다. 인구 1천300만으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정책선점 등 정무감각과 추진력을 톡톡히 입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도 기본소득, 대북전단(빼라) 살포, 부동산 정상화 등 최근 정치권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이슈 선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인 같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격차도 점점 좁혀지는 추세다.

친 다문화 도지사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이미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1%의 지지율을 얻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지난 2015년 5월 1일자 신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대권 후보 반열 올라’ 기사를 3개 국어로 게재함으로써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은 자치단체장으로 이름이 높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을 만났다.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어느 전임 도지사도 하지 못한 외국인정책과 신설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라는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줬다.

경기도의 이주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가 재임하면서 소외받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확대됐다”며 “올바른 일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앞장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实施“全民就业保险” 似乎对从事特殊工种的多元文化家庭很有帮助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 특수고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다문화가족에 도움 될 듯 전망



政府决定实施“全民就业保险”，到2025年，所有工人都能得到失业补助。

此次引入该制度是因为，随着新冠疫情正式对韩国社会产生影响，失业人数大幅增加，但随着没有加入雇用保险的国民越来越多，很多国民没有领取失业救济金。

如果引入该制度，预计对没有参加雇用保险的

多元文化家庭也会有很大帮助。

雇佣劳动部最近联合相关部门公布了“安全网强化计划”。这是7月14日文在寅总统提出的韩国版新政的后续对策。雇佣劳动部部长官李在甲表示：“到2025年，所有工作的国民将得到雇用保险的保护。将构建收入掌握体系，并在年末之前制定消除雇用保险死角地带的路线图。”

目前加入雇用保险的人数还不到1400万人。政府计划将雇用保险适用对象扩大为学习辅导教师等特殊雇用职（特雇）从业者等，到2022年将全体投保人增加到1700万人左右。

政府决定修改制度，让自由职业者和个体户依次加入雇用保险，使所有失去工作的劳动者都能得到失业补助金。相当于现有月薪的60%，最多保障9个月。低收入特雇从业者 and 艺术人士将享受80%的就业保险金。因此，预计5年后加入雇用保险的人数

将比去年（1367万人）增加53.6%，达到2100万人左右。但关键是如何填补因新冠肺炎事态而耗尽的雇用保险基金。

对于多元文化的家庭这是一个好消息。因为他们经常担任特殊雇用工作，并从事自由职业者或者是个体户。

具有韩国国籍的多元文化家庭自然属于“所有国民就业保险”制度的受益者范围，但尚未取得韩国国籍的家庭目前尚未确认是否适用该制度。

另一方面，政府还扩大了工伤保险受益者范围。

自7月以来，将享受工伤保险费的特殊雇用工种由原来的9个增加到14个工种。以研究资料结果为依据，政府计划将其范围扩大到IT（信息技术）行业和自由职业者及护理人员等工种从业者。

<한글 기사 44면>

김희자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리는 고양시의 아름다움’

SNS 활동하는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 출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관광지’로 뜨고 있는 고양시의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할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가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참가자 간 ‘좌석 띄어앉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광서포터즈 임명장 수여,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양시는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들 중 SNS 마케팅 능력, 관련 경험, 활동 계획 등을 기준으로 3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특히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플루언서와 여행작가, 문화관광해설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고양시 관광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아내고,

관련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이 고양 관광서포터즈 활약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양 관광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고양 관광서포터즈’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말까지 1년간 고양시의 도보관광코스 답사와 평가활동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SNS 마케팅 성과를 이루었으며,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고양시 관광 활성화에 큰 활약을 해왔다.

제3기 고양 관광서포터즈의 활동과 앞으로 펼쳐질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의 활약은 고양시의 관광 커뮤니티인 ‘고양 관광스토리창고’(https://cafe.naver.com/goyangsupporters)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의료관광사업 시작 이래 다양한 사업 외국인환자 6배 증가

고양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한 2011년도 941명에서 2019년도 6천 283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7월 발표한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5만 3천 413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 중 고양시의 외국인환자 수는 6천 283명으로, 전년 대비 136.5%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양시에는 외국인 유치 관련 병의원 29개, 유치업체 31개가 등록돼 있고 종합병원이 6개에 이르는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의료 인프라에 기반해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주 타겟국가 대상으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홍보설명회 개최 및 참가) △의료관광 팸투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금년도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고양시 의료시스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엔 고양시를 찾는 의료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 및 해외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양시 의료관광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고양시가 의료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생활가이드’ 제작해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이 낯선 환경에서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알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양시 생활가이드’를 소책자로 제작해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시 생활가이드는 민원?생활정보, 교육정보, 의료?복지 정보, 문화?관광정보, 안전?교통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5가지 콘텐츠 안에는 전입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별 알짜정보들을 수록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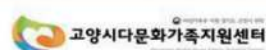
또한,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알아두면 쓸데 있는 편리한 정책사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07만 시민 행복도시로의 전임을 환영한다”며 “고양시 생활가이드가 고양시 시민으로의 빠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생활가이드 제작은 시책사업 중 하나로, 알면 편리하고 유용한 각종 생활정보와 고양시 시책 정보 등을 수록해 타 지역 전입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8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사업일정	장소	내용	대상	담당자
취업교육지원-운전면허교실	8월 중	센터 별관 교육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문제풀이, 교통안전수칙 등	결혼이주인 15명	오은주
취업교육지원-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	8월 10일 ~9월 23일	센터교육장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 강의안 작성 등(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결혼이주여성 15명	정수정
자조모임-도서관활동가 ‘글로벌가디언스’	8월 4, 18일(화)	센터 및 외부장소	정보공유, 정서적 유대감형성, 잠재 능력 개발, 전문가로서 역량강화 등	결혼이주여성 7명 이상	정수정
자조모임-배우자 ‘훈남들의 토크’	8월 22일 토요일	성석동 방아깨비 주말농장	농작물 가꾸기 및 요리체험, 친교	결혼이주민 배우자 및 가족	박기숙
결혼이민자를 위한 힐링 공예 교실	8월 21일 금요일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가족공예, 생활용품 만들기 등	결혼이주민 20명	사윤주
자조모임‘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씨밀레’	8월 11일 화요일	센터 교육실	정보공유, 강의시연 등	이해교육 강사 30명	정수정
자조모임-다사랑 난타클럽	8월 중 예정	IN난타 연습실	난타교육 및 공연, 친목도모	강사 및 참여자 10명	팜투후연
청소년교육지원 ‘꿈나무 역사놀이터’	8월 중 매주 토요일	도당청소년수련관 및 외부체험장소	역사논술지도, 역사문화탐방, 역사 전래놀이 등	다문화자녀 15명	박기숙
자녀건강지도-무지개 리틀야구단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야구훈련, 프로야구 관람	다문화자녀 20명	정소영

문의 031-938-9801



“중도입국청소년, 책 읽고 연습한 작품으로 마음껏 기량 펼쳤어요”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틴틴프로젝트’ 뮤지컬 발표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보여줘



지난 7월 17일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의 교실이 시끌벅적해졌다. 수업을 앞두고, 발열 체크, 출석부 등록 등을 하면서도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는 모습이 어느 10대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교실이다.

잠시의 소란 끝에 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틴틴프로젝트’ 뮤지컬이 진행되었다.

(주)더조이플러스와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 고양시중도입국청소년센터가 연계해

만들어진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틴틴프로젝트> 프로그램은 7월 24일 발표가 진행됐다.

‘틴틴프로젝트’는 올해 고양시청소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과 고양시중도입국청소년센터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틴틴프로젝트’는 송미경 작가의 그림책 <돌 씹어먹는 아이>(문학동네)를 각색해 10주의 일정으로 한국어 도서를 읽

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한 후 대본을 토대로 연기와 춤을 연습한 후 발표회를 갖게 된다.

다문화대안학교 관계자는 “한국어로 된 책과 연기와 무용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사회성이 향상되고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틴틴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 16명 중 10명은 일반 학교에 입학해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나머지 10명은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센터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와 특기적성교육 및 정규 교육과정 편입을 위한 기본 교육을 받고 있다.

16명 청소년의 국적도 다양하다. 베트남, 몽골, 중국, 러시아, 미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더조이플러스 이주연 대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

국에 적응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존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참 밝고 긍정적인 것 같다.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토대가 돼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와 중도입국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김세영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친밀감 형성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며 “지역연계프로그램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향상 및 자신 표현력이 아주 좋아진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와 고양시중도입국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고양시청소년재단과도 프로그램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일상에 도움 될 고양시 정보 "여기에"

고양시, 공공도서관 개방 및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메이커아카데미 2기 모집 등 진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만나고 함께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진 못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과 활력을 줄 사업들이 다양하다.

#고양시, 공공도서관 확대 개방

고양시도서관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립도서관 15곳에 대해 부분 개방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료실 자료 대출, 반납이 열람실, 디지털자료실까지 확대 개방된다.

열람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좌석 수는 1/3로 축소 운



영한다. 도서관 입장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페트병, 캔 버리고 돈 벌어 가세요!”

고양시는 8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입구(일산로380번길 36 일원)에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트병이나 캔을 무인회수기 투입구에 넣으면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분류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페트병 1개당 5원, 캔 1개당 7원이 적립된다. 2,000원 이상 적립 시 운영업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주 6일 수거할 계획이다.

#메이커아카데미 2기 모집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은 8월 1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인 202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메이커 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고양어린이박물관 공식 홈페이지(www.goyangcm.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직에코’와 함께 운영하며 ▲메이커 기초 이해, ▲피지컬 컴퓨팅, ▲IoT, ▲메이커 교수법으로 구성됐으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메이커 아카데미 보조강사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메이커 강사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7호 지축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고양시는 3호선 지축역에 고양시 제7호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도서관 시스템으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이다. 스마트도서관에는 신간 및 인기도서로 구성된 500여 권의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고양시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1인당 2권에 한해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多文化家庭子女의转学及教育政策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학과 교육정책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 공교육 편입 쉽도록 제도 개선, 특수목적 한국어교육도 강화



6月26日, 在郑世均国务总理的主催下, 举行了第18回, 多文化政策会议, 会议内容主要是补充海外归来的多文化儿童及青少年在韩教育的政策。

据报道, 中途回国的多文化青少年中 3分之一的学生放弃了继续学习, 原因大致有两个方面, 一方面入学门槛高, 之前海外回来的多文化青少年入学过程是, 先找到自己想去学校申请入学, 从申请到校长批准, 再到入学一般耗时六个月以上, 申请后被拒绝入学的情况也比比皆是。另一个原因是语言水平不够, 跟不上韩国的学习进度及文化水平。

就这两个问题, 此次会议的解决方案如下。一, 直接去教育局申请入学, 由教育局

直接分配学校。二, 开设特殊目的韩国语教育。主要针对海外归来的多文化家庭子女韩国语课程的补习, 及为了准备就业而需要的韩国语课程。

因新冠疫情, 学生在家学习, 那么家长辅导孩子是少不了的, 为了填补多文化家庭家长语言的不足, 还特别推出了针对多文化家庭子女学习的电子书及远程教育。除此之外, 还扩招了更多的翻译, 这些翻译会及时的把学校的通知翻译过来以短信方式发给多文化家庭的家长。

郑总理还说为了接受社会的多样性人群, 我们的努力不能退步, 反而要更多的帮助多文化家庭。

韩国是个世界化的国家, 针对外国人的政策越来越完善, 我想不久的将来, 会有更多的外国人愿意选择韩国居住生活。

지난 6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다문화정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내용은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한국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도입국한 다문화 청소년 3명 중 1명은 공부를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학교 입학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온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원하는 학교를 먼저 찾아 입학 신청을 하고 학교장 승인을 거쳐서 입학 허가를 받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거나 신청 후에도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언어 수준이 부족해서 한국의 학습 진도와 문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번 회의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에 직접 가서 입학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다.
2.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이다. 주로 해외에서 돌아오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

국어 과외와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과정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려면 학부모의 지도가 필수적이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언어 부족을 채우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책 및 원격교육도 시작됐다.

그 외에도 더 많은 통역사를 모집하고, 통역사들이 학교 통지서를 시기적으로 번역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다.

정 총리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퇴보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화된 나라이고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점점 더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 조만간 한국에서의 거주 생활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入境外国人需递交48小时内阴性诊断书’ 감염 외국인 입국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온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韩国境外输入病例5月份6名, 6月份11名, 7月份10名0点为止, 国内新增病例45名中23名为境外输入病例, 新冠肺炎确诊者的突然暴增引起了韩国中央灾难安全全部的高度重视。

为了减少境外输入病例, 出国后再入国的外国人签证许可条件将更加苛刻, 并且中央灾难安全全部表示即将减少重灾区国家飞往韩国的入国航班, 并且每班次座位占有率将降到60%以下。

为了减少境外人员的进入, 13日起, 从防疫强化对象国家入境的外国人, 必须提交48小时内, 由指定医院开具的聚合酶链式反应检测阴性报告

(PCR)。48小时是指出发当天的48小时内, 也就是说在你坐上飞机的当天, 或者坐上飞机的前一天, 需要进行检测, 并且在坐上飞机时的48小时内拿到诊断书。防疫强化对象国家, 由于外交关系的原因, 不予公开具体包括哪些国家。换句话说, 只要你是外国人想要入境韩国, 您就得准备好48小时内开具的阴性检测报告。因为入境时, 未能提交此报告的外国人是不允许入境韩国的。

入境韩国后, 自行隔离14天, 并且入境三天内, 还需再次接受新冠肺炎的检测。

小编在此奉劝大家, 疫情期间, 尽量避免走动, 人员流动性越大, 疫情的传播几率就越高。为了我们自身的安全, 为了疫情能够得到更好的控制, 希望今年大家都做好防疫措施, 积极配合政府的防疫工作, 愿新冠病毒早日得到控制, 还我们脱去口罩, 自由呼吸的日子!

해외 입국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환자 45명 중 23명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지역의 한국행 입국 항공편을 곧 축소하고, 편당 좌석 점유율도 6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감염된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음성 보고서(PCR)를 제출해야 한다.

48시간이란 발송 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를 말하는데, 즉 비행기를 탄

날, 혹은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에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외교 관계 상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에 입국했다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3일 이내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염병 발생 상황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인적 유희성이 커질수록 전염병 전파의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염병 발생 상황 통제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다.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자유롭게 숨 쉬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자.

원난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แผลไหม้

เด็กๆ มีความเสี่ยงเจออุบัติเหตุจนเกิดแผลไหม้ได้ อันเป็นผลมาจากอาหารที่ร้อนเกินไปหรือเครื่องใช้ไฟฟ้า เนื่องจากเด็กๆ มีผิวหนังที่บอบบางอยู่



- ▶ นำมือหุงข้าว เตารีด และอุปกรณ์ที่ก่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ร้อนอยู่ห่างจากมือเด็ก
- ▶ เตือนเด็กๆ ถึงอันตรายจากอุปกรณ์ไฟฟ้าที่ก่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ร้อนเป็นประจำ

อุบัติเหตุนิ้วมือ/นิ้วเท้าถูกหนีบ




เด็กๆ มีความเสี่ยงเจออุบัติเหตุนิ้วมือ/นิ้วเท้าถูกหนีบจนทำให้กระดูกงอกหรือฟกช้ำได้บริเวณประตูเข้าออก ประตูห้อง และเฟอร์นิเจอร์ โดยในช่วงสามปีที่ผ่านมา เด็กๆ เจออุบัติเหตุนิ้วมือ/นิ้วเท้าถูกหนีบ 1,372 ราย

- ▶ ติดตั้งกันชนประตูหรือแผงกันบานพับที่ประตูห้อง

เชือกดึงม่านรัดคอ


เด็กๆ อาจโดนเชือกดึงม่านรัดคอได้ เนื่องจากเด็กยังอยู่ในวัยอยากรู้อยากเห็น



- ▶ ไขว่ตามม่านไว้สายตึง หากเป็นไม้ได้
- ▶ มัดเชือกดึงม่านให้แน่นเพื่อที่เด็กจะไต่เชือกมือไปไม่ถึง

ประเภทที่ 2: 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จากกิจกรรมนอกบ้าน


ในช่วงที่เล่นนอกบ้านหรือเล่นกีฬา



เด็กๆ มีความเสี่ยงที่อาจหกล้มหรือกระดูกงอกจากกิจกรรมนอกบ้านได้

- ▶ ก่อนใช้อุปกรณ์กีฬา โปรดใส่อุปกรณ์ป้องกันในเด็กๆ ก่อน อาทิ หมวกกันน็อก สนับเข่าข้อศอก
- ▶ ก่อนเด็กเข้าไปเล่นในสนามเด็กเล่นควรนำอาหารส่วนเด็ก ๆ เกี่ยวกับกฎเกณฑ์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อน

ขณะเข้าไปในลิฟต์หรือยานพาหนะ




เด็กๆ มีความเสี่ยงเจออุบัติเหตุจนทำให้ฟกช้ำหรือกระดูกงอกได้ขณะอยู่ในลิฟต์หรือยานพาหนะ

- ▶ ผู้ปกครอง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ป็นพิเศษตอนที่พาเด็กเข้าไปในลิฟต์หรือยานพาหนะ
- ▶ ตอนเข้าไปในรถ ดูให้แน่ใจว่าเด็กเข้าไปในรถ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ล้ว
- ▶ สติ๊กเกอร์และหน้าต่างใกล้ที่นั่งเด็กเพื่อที่เด็กจะดู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ดประตูหรือหน้าต่างเองได้

ประเภทที่ 3: อุบัติเหตุในสถานศึกษา

มีอุบัติเหตุหลากหลายชนิดเกิดขึ้นที่ศูนย์รับเลี้ยงเด็ก 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 และโรงเรียน

สิ่งสำคัญก็คือ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และให้ความ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 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อุบัติเหตุเกิดขึ้น



- ▶ ตรวจสอบให้แน่ใจว่าเด็กสามารถใช้วัตถุที่มีคมอย่างมีดหรือกรรไกร โดยเฉพาะเมื่ออยู่ภายใต้ความดูแลของครูเท่านั้น
- ▶ ติดตั้งอุปกรณ์เสริม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ห้กับเฟอร์นิเจอร์ในศูนย์รับเลี้ยงเด็ก 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 ฯลฯ
- ▶ 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เป็นประจำเป็นเรื่องที่จำเป็นอย่างยิ่ง
- ▶ ให้ความรู้กับเด็ก เกี่ยวกับกฎเกณฑ์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และสถานที่ต่างๆ โดยการใช้อุปกรณ์และนิทานเพื่อที่เด็กจะดูเข้าใจได้โดยง่าย

03

มาตรการฉุกเฉินเพื่อรับมือกับอุบัติเหตุ

มาตรการฉุกเฉินเมื่อเด็กกินสิ่งแปลกปลอมเข้าไป

เมื่อเด็กกินนูหรี่ ยา กระจก ฯลฯ เข้าไป อย่าพยายามทำเด็กอาเจียน แต่พาเด็ก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นทีแล้วแจ้งให้แพทย์ทราบว่าเด็กกินอะไรเข้าไป เมื่อไหร่ และอย่างไร

เมื่อมีวัตถุแปลกปลอมเข้าไปในคอ



ทารก (อายุไม่เกิน 1 ขวบ)
ตบบริเวณหลัง



ทารก (อายุเกิน 1 ขวบ)
ตบบริเวณหลัง



เด็ก
กดท้อง

- ▶ หากเป็นเด็กทารกที่อายุต่ำกว่าหนึ่งขวบ ถือว่าทารกอยู่ในมือโดยให้ทารกคว่ำหน้าลง โดยไม่มีอะไรปิดปากหรือจมูกอยู่ ใช้สันมือกดตำแหน่งบริเวณสะบักทารกห้าครั้ง จากนั้นวางทารกบนพื้นโดยให้หงายหน้าขึ้น ใช้นิ้วชี้และนิ้วกลางกดที่ใต้ราวนมห้าครั้ง ทำขึ้นตอนซ้ำจนกว่าวัตถุแปลกปลอมจะหลุดออกมา
- ▶ หากเป็นเด็กทารกที่อายุมากกว่าหนึ่งขวบ วางเด็กคว่ำหน้าลงไปบนเข่าของคุณเพื่อที่สันมือของคุณจะโดนกดอยู่ที่เข่าของคุณ จากนั้นใช้สันมือกดตำแหน่งของเด็ก
- ▶ หากเป็นเด็กที่โตแล้ว ใช้สองมือโอบจากด้านหลังเด็ก มือข้างหนึ่งอยู่ต่ำกว่าลิ้น มีส่วนมืออีกข้างกำหมัดจากนั้นกดไล่จากบริเวณช่องท้องขึ้นไป

"Mamangin ang mga Anak sa Bata"

Paano Pigilan ang mga Aksidente sa mga Bata

04

มาตรการฉุกเฉินเพื่อรับมือกับอุบัติเหตุ

การรับมือกับแผลไหม้

- ▶ ใช้สายฉีดน้ำเป็นเวลา 15 ถึง 30 นาที และห้ามแกะแผล
- ▶ ล้างแผลให้ทั่ว แล้วใช้ผ้ากอซชุบน้ำสะอาดหรือน้ำเกลือปิดแผลเอาไว้

ข้อควรระวัง

- ▶ แม้แต่แผลไหม้เพราะอุณหภูมิที่อาจกลายเป็นแผลลึบกว่าได้ โปรดพาเด็กไปรับการรักษ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
- ▶ โปรดระวังอย่าให้แผลนี้แห้งหรือแฉะเกินไปเพราะจะทำให้แผลไหม้โดยตรง
- ▶ หากแผลไหม้บริเวณกว้าง โทรตามรถพยาบาลหรือ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นที

การรับมือกับการเลือกดอกหรืออาการฟกช้ำ


เลือดออก

วิธีการห้ามเลือดมีความสำคัญอย่างมากต่อการรักษาแผล ล้างบริเวณที่เป็นแผล 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ลึกและขนาดของแผล จากนั้นทำการห้ามเลือด

อาการฟกช้ำ


หากมีอาการฟกช้ำที่บริเวณแขนหรือขา ใช้แผ่นเจลเย็นประคบ หากบริเวณช่องท้องไปชนกับของแข็ง ให้เสิร์ฟน้ำอุ่นๆ ทำใจให้สบาย จากนั้นไปให้แพทย์ทำการตรวจ

ซีพีอาร์ (ในกรณีที่มีคนสติหรือไม่หายใจ)



ทารกหรือเด็กในวัยหัดเดิน

ใช้สองนิ้วกดลงไปบริเวณต่ำกว่าแนวหัวนมเล็กน้อย โดยใช้แรงกดจนอกยุบลง ไปประมาณหนึ่งในสาม (4 ซม.) หลังจากทำการกดครบ 30 ครั้ง ให้ทำการปิดปากและจมูก จากนั้นเปลี่ยนท่าการกดเข้าไปสองครั้งนาน 3 ถึง 5 วินาทีต่อครั้ง ทำซ้ำต่อเนื่องซ้ำหากจำเป็น



เด็ก

วางมือของคุณลงไปที่บริเวณต่ำกว่าหัวอกเล็กน้อย โดยใช้แรงกดจนอกยุบลง ไปประมาณหนึ่งในสาม (5 ซม.) หลังจากทำการกดครบ 30 ครั้ง ให้ทำการปิดปากและจมูก จากนั้นเปลี่ยนท่าการกดเข้าไปสองครั้งนาน 3 ถึง 5 วินาทีต่อครั้ง ทำซ้ำต่อเนื่องซ้ำ (ที่อัตราส่วน 30:2) หากจำเป็น ความถี่ของการกดควรอยู่ที่ 100-120 ครั้งต่อนาที

ควรรายงานอุบัติเหตุที่เกี่ยวข้องเด็กไปยังที่ใด

ติดต่อ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ระบบเฝ้าระวังการบาดเจ็บของมนุษย์โรค) (www.ciiss.go.kr) ขององค์กรผู้บริโภคเกาหลี หรือโทรสายด่วนผู้บริโภค 080-900-3500

‘고양 다문화청년 일자리학교’로 국제의료관광 전문인력 됐어요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 진행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대표 김지민/이하 다청넷)는 지난 7월 13일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고양 다문화청년 일자리학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다청넷은 5월 4일부터 고양시 거주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해 왔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참여자는 총 20명이며, 이 중 수료한 인원은 17명이다. 수료 인원 모두 글로벌 헬스코디네이터(민간자격 2015-003062)와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민간자격 2015-002461) 자격증을 취득했다.

양성과정은 전문강사진의 수준 높은 정규강의와 참여

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국제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자들의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일선에서 응대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들의 이미지는 곧 병원의 이미지,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이와 같은 전문인력 육성이 강조된다.

양성과정 이후, 다청넷은 참여자들의 병원 실습 과정을 통해 이들의 직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병원 등 의

료기관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김지민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다청넷은 앞으로도 다문화 청년과 고양시 소재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 청년과 병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취업 연계 사업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청넷은 다문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고양시 청취다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 ‘모든 출산기장 혜택’

다문화가족 등에도 적지 않은 도움될 듯 ... 덕양구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눈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기준 등에 의해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 예외지원 사업인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고양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여성의 고용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 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 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 8075-4195) 으로 문의하면 된다.

덕양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21일 화정문화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이동식 상담소를 설치해,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복지 욕구를 충

족시키는 서비스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첫 번째 실시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 측정 후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번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초기상담을 실시했으며, 긴급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또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운영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주변의 이웃을 제보해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이라는 소재의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고양시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와 같이 운영함으로써, 상담에 참여한 한 주민은 “복지정보와 구직정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시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안산시, 다문화가정 미숙아 돕기 '훈훈'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했으나 병원비 부족해 더리본(주) 후원 연계, 미숙아 병원비 인도주의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결혼 6년 만에 가까스로 낳은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인도 출신의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안산시는 30일 시청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허준 더리본(주) 대표이사, 인도 출신의 A(47)씨와 아내 B(36)씨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더리본(주)는 2009년 1월 '이화라이프'로 설립돼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장례서비스와 크루즈 여행, 외식업 등 토털라이프케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상조기업이다. A씨 부부는 더리본(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각각 유학비자(D-2), 동반비자(F-3)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해 어렵게 아이를 임신했다.

6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는 올 7~8월이 출산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말 몸의 이상을 느낀 B씨가 병원에 갔다가 '태아심박이상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으로 임신 6개월 만인 4월20일 몸무게 600g 정도의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났다.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3개월 이상 입원한 아들 C군은 현재 몸무게가 2.5kg로 늘어나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지만, 수백만 원 상당의 병원비가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전인 올 2월 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생계 곤란으로 상담을 받았다.

신학 공부를 위해 입국한 A씨는 2018년 갑상선암이 발병돼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니던 교회의 도움으로 수술과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B씨 역시 몸이 불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담을 통해 이들 부부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안산시는 우선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로 112만원 상당을 지

원했지만, 250만원의 의료비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이들을 돕기 위해 후원자 물색에 나섰다, 이 같은 사정을 듣게 된 더리본(주)가 흔쾌히 돕기로 했다.

우선 더리본(주)의 후원을 통해 C군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한 시는 추가 생활비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개인후원자를 찾고 있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신고도 안 돼 무국적·미등록 상태였던 아동을 돕기 위해 헤어케어 전문기업인 (주)TS트릴리온과 후원 결연식을 체결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TS트릴리온은 현재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는 현재 외국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이 돼 건강히 자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뒤 3개월째 일용직을 전전하며 9살 아들을 양육하는 40대 남성이 최근 가정 내 곤란한 사유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시는 극심한 생계곤란에 놓인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돕고 있다. 이 남성의 사연은 SNS상에서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 더리본(주) 대표이사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고 있었는데, 좋은 인연이 닿아 따뜻한 선행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아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선택 후원금을 내놓은 마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이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화폐 다운, 10% 혜택

12월까지 연장 국도비 확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안산화폐 다운 10% 할인 혜택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24억 원 더 확보하고 45억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발행액은 모두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 다운 일반발행액은 820억 원이며, 하반기에도 10% 할인 혜택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목표인 1천240억 원은 쉽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비롯한 정책발행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올해 다운의 총 발행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발행량, 카드 및 지류의 통계자료 분석, 이용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 다운이 예산 투입 대비 작년에는 약 15배, 올해는 약 20배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의 과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

안산시는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다운의 제도 유지, 발행액 증가, 할인 혜택이 적을 때에도 시민이 다운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운을 통한 유통 경제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운카드의 월 평균 충전액은 올 4월까지 53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배 이상인 무려 월 136억 원에 달한다”며 “많이 이용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다운이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하반기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운의 1인당 구입한도는 월간 60만원·연간 720만원까지이며 카드식은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 화폐 앱을 내려 받아 신청(만14세 이상 가능)하거나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구입할 수 있다. 지류식은 관내 모든 농협에서 살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지원보다 외면? 우리 곁의 이웃, 한국사회 속 '난민'을 말하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튜브 채널 통해 지역주민 난민이해교육 실시



예멘 난민 이후 한국 내 난민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7월 21일 지역주민 난민이해교육 '우리 곁의 이웃, 난민'을 진행했다.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강의로 이뤄졌다.

#한국 난민정책, "지원보다 외면?"

이일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난민은 2018년 예멘 난민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대신 말해주거나 옆에서 서 있거나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난민 문제에 있어 법률가들의 역할은 한정적, 제한적이며 사회나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난민들과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친구가 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난민 정책에 대해 "난민을 보호하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난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할까?' 난민을 거부

하는 정책과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할까?' 등 한국에 있는 난민은 대다수가 사실상 난민이 아니니 어떻게든 빨리 나가게 하려는 정책이다"라며 "이미 난민이 집을 얻어서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알아서 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에 대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난을 피해서 온 사람, 한국에 있지만 돌아가면 난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며 "한국은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며 박해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했다.

난민은 1915년 난민협약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지위(여성, 부모 잃은 아동, 성 소수자 등)나 박해의 위험(중대한 인권의 침해- 생명권, 신체 박탈, 교육받을 권리 박탈 등)이 있는 경우로 유엔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이 최고치를 보인다.

#한국사회 "연대보다는 난민 배제"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협약서 가입 시 출입국 관리소로, 국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규범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피할까?' 하는 제도가 되고 있어 최초 시행보다는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 희망 난민제도와 관련 미국 등 30여 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난민 몇 명 데리고 오는 생색내기용이 되고 있어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난민들의 어려움으로 각 나라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외국인들을 중점적으로 받다 보니 난민들은 입국하기 어려우며, 구급될 때에는 구급되는 당사자가 구급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항에 있

는 경우에도 난민의 경우 추방될 위기가 쉽게 오는 등 구급되기가 쉽다. 또한, 언어를 배우지 못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착취가 발생하기 쉽고, 난민을 인정받아도 가족을 보러 가기도 힘들고 초청을 할 수도 없다. 이 밖에도 여권이 없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민 지위를 받기 어려우며, 난민 자녀의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 왕따를 당하는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제도의 문제도 뒤따른다.

#난민에 대한 혐오가 왜 생기는가?

이 변호사는 "기존에도 한국 정부는 난민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썼다. 하지만 최근 국민 사이에서 난민 반대 의견이 나오자 그걸 빌미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해졌다"라며 "연대를 하며 난민의 옆에 함께 서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난민을 배제한다"라고 말했다.

난민의 취약성으로는 ▲법적 권리의 불안정성(국적, 기본권) ▲출입국 관리의 재량 vs 난민 보호 ▲사회, 문화적 이질성과 불수용성 ▲소수자 표지에 더한 취약한 지위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난민 혐오에 대해 "난민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불안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사회문제를 난민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파다하다"라며 역사적으로 발생한 나치와 재일조선인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난민은 OO하다'라는 명제들이 난민을 타자로 배제하며 능력주의 사회는 난민을 우리 사회의 약점으로 인지하고 한국의 동일성 문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추천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진국 최초 해외입국지 시설격리 의무회 행정명령했다

윤화섭 시장 "내외국인 모두의 안전 위한 조치...안산형 방역 체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의 지정시설 격리 등 입국 문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지만, 최근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입국자 증가와 함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 전날까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2명(55.2%)이 해외유입 확진자다.

지난 29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지정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해외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정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자택격리가 아닌 시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하고, 1인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박비용을 입국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산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부 해외 입국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를 막아 자가격리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해외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 시는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설격리 의무화는 귀국하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안산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격리 비용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안산형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으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자농협. 고향주부모임 후원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면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극복 및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하여 군자농협협동조합과 고향주부모임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족 ‘삼계탕 건강DAY’를 지난 7월 22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대상 삼계탕 나눔 행사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야외에서 오후 3

시부터 1시간 동안 현재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1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인분씩 나눔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군자농협 조인선 조합장, 김묘정 여성복지팀 과장 및 고향주부모임 6명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나눔을 진행했다.

삼계탕 나눔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삼계탕을 나누어주니 너무 힘이

되고 좋다”라며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삼계탕을 먹으면 울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을 알려주고 삼계탕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라며 군자농협협동조합과 고향주부모임에 감사사를 전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휴가·방학기간 생활방역 준수 홍보해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0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와 방학 기간을 맞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와 방학 보내기’를 위한 생활방역수칙을 시 홈페이지,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에 홍보하고 있다.

생활방역수칙은 여름휴가는 집이나 한적한 곳에서 지내기를 권장하며, 여행 시 가족 단위로 가급적 짧은 시간 움직이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휴게소·음식점에서 최소 시간 머물기 ▲사람 간 거리 최소 1m 이상 유지 등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도 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고, 유흥 시설,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시간대를 피하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앞서가는 다문화도시, 안산시의 최근 다문화 소식 2가지 뭘까?’

다문화마을특구 전선 지중화 및 차별 없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해요



다문화특구 전선 지중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한국전력공사 및 국내 5개 통신사와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부부로 구간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각 기

관과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전선,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선주 및 통신주를 제거하고 가공선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와 SK브로드밴드(주), (주)KT안산지사, (주)LG유플러스, SK텔레콤(주), 드림라인(주) 등 5개 통신사가 참여한다.

지중화 사업지역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부부로 구간(왕복 1.12km)으로, 실시시설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비는 안산시와 협약기관이 각각 반씩 나눠 부담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올 하반기 전선, 통신 시설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차별 없이 지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안산시는 국내 최대 다문화 도시답게 외국인 주민에게도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까지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 6만9천541명의 87.6%인 6만912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안산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해외유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따라 확진자 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자가격리관리 TF를 구성해 300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안산시는 ‘확진자 집계는 중앙정부가, 관리는 지자체가’해야 한다고 상급기관에도 건의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산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사각지대 외국인 점검관리 지속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언어소통의 불편 등에 따른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의 철저한 예방에 나서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출입구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며 별도로 외국인전용 창구를 만들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통역관을 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원활히 안내하며 외국인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2020 대한민국 다문화포용 대표도시'에 선정된 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이 가장 많으나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최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카자흐스탄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정부에 카자흐스탄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정기 항공편 운항 최소화, 신규 비자발급 억제 등의 제한조치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가 명백한 경우 입국금지, 난민 신청자의 취업·거주지 등 심사 강화 조치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특단 조치로 전국 최초로 오는 9월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모든 입국자를 14일 동안 시가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역사회 질병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내 방역활동에도 힘써 지난 10일에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내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나눠주며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공무원 5명,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3명 등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중앙동 소재 무도장을 방문해 인도네시아인 150여명 단체 모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체온 체크 등을 점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거주 도시 만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두지 않고 지속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 내 N차 감염 차단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청정 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사)민주열사박종철 기념사업회에 대해 묻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Ansan Global Youth Center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30여년 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물줄기를 둔 1987년 6월 항쟁 뒤에는 많은 선배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박종철 열사님! 그 분은 여전히 푸르른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그 시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사투를 벌이던 그 후배 이현주(민주열사 박종철 추모사업회 사무국장)님이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공간은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포용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현주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어떤 곳인가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신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열사 기일에 맞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종철인권상', '박종철문학상', '박종철장학금', '옛남영동대공본실탐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중에 가장 신한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예쁜 미소. 마지막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다른 사람들도 박종철 열사를 신한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나서 박종철 열사의 마지막 수사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수사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외로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은 박종철 열사가 매우 담담했다고 써놨더라고요. 이미 박종철 열사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509호실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비꿀 수 있을까?", "편법적으로 돌릴 수 없어" 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등과 공판을 받아들여면서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간 것이라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했어요. 관악구에는 박종철 열사 변치기 있는데요. 변치를 만든 이유는 박종철 열사가 509호에서 싸워서 바깥 사회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고있는지 하늘에서 보고 안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다른 것, 내가 아닌 남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고 다양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공간들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해져있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차별의 개념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차별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끌어안아 차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차별하고 있지 않나?', '인권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타인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으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인식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나 제도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인권과 헌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사회교육에 있어 중요해요. 저는 이 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어요. 인권과 헌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1987년 이전에는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국가의 폭력이 개입해서 나의 존엄이 위협되고 안전을 위협해야 했거든요. 1987년 이후로는 기본권을 요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고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 하길 원한다면 이주배경 청소년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하는 청소년관련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에게 헌법 교육을 하고 싶어요. 헌법을 보면 여러 가지 기본권이 나오는데요. 그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헌법이 있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헌장이 이곳 민주인권기념관이에요. 2008년부터 이 공간을 헌장 탐방하여 인권에 대해 꾸준히 교육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이를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또, 매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 기일을 맞이하여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권활동 등을 하는 청소년들이를 인정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에 동아리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아주 훌륭했는데요. 그 외에 서울 지역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 활동 등이며, 박종철 열사 관련 앱을 만들었던 동아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헌법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노력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있었던 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도 문명이 발전된 건 교원을 지극 가능하게 한 다양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따라서 지극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함께 노력해요. (웃음)



외국인 처우개선 위해 노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 2차 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부의장은 “21세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다”며 “사회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당연한 구성원이자,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인종차별의 뼈아픈 이민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적, 피부색, 언어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이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복지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개정이 없더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고, 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한 포럼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을 비롯한 6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장과 사회복지사, 시·군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50만 8095명에서 2017년 53만 6795명, 2018년 58만 733명, 2019년 59만 863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통계).

송하성 기자

이주민 250만 시대에 외국인들을 위한 필수시설, 외국인복지센터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7월 23일,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만명 외국인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복지센터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7개 외국인복지센터(8월 개원 용인시외국인주민센터 포함)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아 종사자의 경력인정과 임금 인상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센터 처우개선과 함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6개 외국인복지센터의 직급별 종사자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종사자들은 처우에 있어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업무의 필요성과 책임성에 있어 긍정적이고 자긍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지정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끼리의 협력 ▲공공기관과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과 유연성 등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수 외국인복지센터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된다’,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처우가 다르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수행시 기관끼리의 협력 도모가 매우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경기도의 외국인복지센터들은 경직성, 확실성 등 몇몇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견수렴과 소통의 유기적인 민관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민관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협업관계가 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이주 영역과 이주민지원센터는 끊임없이 분화되어 왔으며 그 과정은 이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 하에 진행됐

고 단체들도 이에 편승했다”며 “지난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센터들은 냉철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주민 대상 서비스인 만큼 통역 실무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 나선 이상락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장은 “처우개선 등 이영 센터장의 지적에 절대 공감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에 더해 출입국외국인청 등 일선에서 외국인주민들을 만나는 분들이 좀 더 친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최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헬으로써 향후 경기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회에 걸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OM서울사무소 등 79개 기관 366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등록이주 아동의 의료정책, 이주민 인권 인프라 구축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Vấn đề quốc tịch cho trường hợp sinh con ngoài hôn nhân với đàn ông Hàn quốc

Phụ nữ nước ngoài có con riêng, không phải là con của người Hàn thì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sẽ mang quốc tịch cùng với quốc tịch của mẹ.

Trong trường hợp này nếu người bố công nhận đứa trẻ là con của mình thì không vấn đề gì tuy nhiên nếu người bố không chấp nhận thì theo tòa án gia đình thì có thể khởi kiện bố đứa trẻ, sau khi nhận phán quyết thì đứa trẻ sẽ được công nhận là con ruột của bố đứa trẻ.

Nếu đứa trẻ được công nhận là con ruột của người bố thì theo luật, đứa trẻ đó từ ngày được sinh ra sẽ là con của bố đứa trẻ. nếu nói như trên thì đứa trẻ "từ thời điểm chào đời thì bố hoặc mẹ nếu là người hàn quốc thì sẽ đứa trẻ sẽ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nên theo điều số 2 luật quốc tịch thì đương nhiên đứa trẻ là công dân hàn quốc là điều đương nhiên.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có chút khác biệt. Theo điều số 3 luật quốc tịch thì người không phải là công dân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nếu được công nhận là con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bố hoặc mẹ) và là người chưa trưởng thành thời điểm đứa trẻ ra đời có bố hoặc mẹ là công dân hàn quốc thì nếu thỏa mãn các điều kiện trên thì có thể xin quốc tịch hàn quốc bằng cách khai báo lên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Theo đó đứa trẻ có mẹ là người ngoại quốc và là cô dâu nước ngoài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ược công nhận là con của bố là công dân hàn quốc thì áp dụng điều số 3 không phải điều số 2 luật quốc tịch thì phải khi khai báo lên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thì đứa trẻ đó mới có thể lấy quốc tịch Hàn.

Theo đó sau khi dắt đứa bé lê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làm giấy cư trú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phải khai báo lên bộ tư pháp thì đứa trẻ mới được công nhận là công dân hàn quốc.

Tuy nhiê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con ngoài hôn nhân tại hàn quốc thì đứa trẻ đó trong vòng 90 ngày từ ngày ra đời phải đến cục xuất nhập cảnh để khai báo người nướ ngoài, nếu hết hạn đăng kí mà vẫn chưa khai báo thì có thể sẽ phải đóng tiền phạt. nếu phải đóng tiền phạt thì trước tiên đóng tiền phạt sau đó làm thẻ người nước ngoài cho trẻ và sau đó nữa là khai báo lên bộ tư pháp để đứa trẻ được công nhận là công dân hàn quốc.



与韩国男性非婚生子后，其子女的国籍问题

如果外国女性与大韩民国男性之间出生了婚外子女（简称“非婚生子”），其孩子为外国女性的子女，即相当于与外国女性国籍相同的外国人。

在这种情况下，男方可以主动将孩子认作亲生子，否则女方可向管辖区域家庭法院提起诉讼，要求法院判决男方承认亲子关系。

如果孩子被认定为亲子关系，那么从法律上讲，孩子就自然属于“出生时父或母为大韩民国国民者”，因此根据韩国国籍法第二条，孩子当然是大韩民国国民。但是上述情况有点不同。

《国籍法》第3条规定，如果不是大韩民国国民的人（外国人）被大韩民国国民的父或母认知的未成年人，且具备出生时父或母是大韩民国国民的条件，则应向法务部长官提出取得国籍的要求，即通过申报才可取得大韩民国国籍。因此，如果孩子是外国女性的子女，是外国人的身份，又被认为是大韩民国国民父亲的子女，则适用《国籍法》第3条，而不是《国籍法》第2条，只有向法务部长官申报，才能取得大韩民国国籍。

这种情况，首先要把孩子带到出入境管理事务所，进行外国人登记，然后向法务部长官申报，让孩子成为大韩民国国民。

但是，如果外国人在韩国逗留并非婚生子，则该孩子必须在出生之日起90天内到移民局登记并登录为外国人（申报外国人登录证），否则将被处以罚款。如果处以罚款，您将可以通过缴纳罚款后，注册为外国人并向法务部长官申报，以获得韩国国籍。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시범)사업 - 놀이역신 선도사업 서비스 이용자 모집안내

안산시와 안산시 놀이기획자가 협심하여 지역아동에게 자기주도적인 팝업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팝업놀이란?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창의적인 놀이로 시간, 공간, 대상,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안산시놀이활동가(2명)과 아동(15명 내외)이 한 모듬으로 구성)

I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산 거주자로 만 6세~12세 이하 아동 (14년생~08년생 / 소득기준 없음 / 동 배정된 인원내 선착순 모집)
- ※ 단, 야외 단체 신체·조작 놀이가 가능한 아동 (필요한 경우 양육자의 조력 가능)

II 지원 내용

- 모집인원 : 총 240명 (16놀이모듬 x 아동 15명)
- 지원기간 : 2020. 9.~11월 (3개월), 폐관정 없음
-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이용기간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바우처 카드 발급·이용 필수)
- 우선순위 : 동 배정된 인원내 선착순 모집
- 금 액 : 월 176,730원 (정부지원 월 158,730원, 본인부담금 월 18,000원)(3개월이용)
- 서비스내용 : 모듬형 단체 팝업놀이 (주부 야외에서 진행)

III 신청 순서

- 1 바우처 신청 : 2020. 8. 3(월) ~ 8. 10(월), 8일간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신청서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2 바우처 대상자 선정 : 개별 핸드폰 메시지 통보 (2020.8.14.(금))
- ※ 바우처카드 신규(재발급) 신청자는 신청시 가입한 주소지로 카드 배송 (8.31.(월)전)
- 3 서비스 신청(제공기관 방문신청) : 2020. 8. 17.(월) ~ 8. 21.(금), 5일간 - 사회적협동조합 하다 (단원구 원선로 65-5, 2층(원곡동) T. 492-9678)

IV 문 의

- 안산신청 여성가족과 ☎ 481-2308 및 제공기관 하다 ☎ 492-9678

함께 이겨내요!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2020. 7. 17(금) ~ 8. 28(금) 24:00

공모대상 전국 8세 ~ 16세 (대한민국 거주자)

공모부문 포스터, 일러스트, 동시, 수필, 웹툰, 표어

공모내용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이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

주제예시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나의 생활 또는 느낀 점, 사례, 경험담을 바탕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조심하면서 나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공모전 홈페이지 내 상세참고 후 공모전 직통 접수

관련문의
건강사회운동본부 공모전 담당자 (02-3789-2286)
www.law-campaign.or.kr
www.건강한사회만들기.org

QR코드 검색

주최 건강사회운동본부 Campaign Office for Healthy Society 후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2020년 4·15총선 이후 이민정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이 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가 진행한 '2020년 4·15총선 이후 이민정책의 동향과 전망' 포럼에서 설동훈 교수(사진)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총선 이후 코로나 국면에서 시민사회가 감내해야 할 이민정책이 잘 정리돼 있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 두 달이 지났다. 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민정책'(이주민정책) 또는 '외국인정책'은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그 정책 현안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다.

1. 인구 고령화 심화와 내국인 총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

이주민은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외국인, 세대별로는 1세, 1.5세, 2세 이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날이 그 규모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체류외국인 수는 2,524,656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였다. 체류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외국인뿐 아니라 '국적취득자'와 '이민자 2세와 1.5세'의 수도 적지 않다. 2018년 1년 동안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수만 176,915명이었다. 또한, 외국인주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자녀인 '이주아동·청소년' 수는 2018년 11월 1일 기준 226,145명이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류외국인, 국적취득자, 이주아동·청소년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했다.

이민은 한국사회의 지속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2019년 11월까지 주민등록기준 한국인 인구는 51,851,4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12월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2019)에서는,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이라 예측하였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었다.

이제 한국인만으로는 더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더욱이, 2020년 1월 이후 한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줄고, 출국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 총인구가 준데 이어, 2020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줄고, 이출이 늘 경우, 인구감소 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인구감소, 인구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장래 설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이민이 그것에 대처하는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II. 코로나19 위기와 외국인정책

1. '외국인 주민' 차별한 재난지원금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민에게 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급 대상자는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언론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포함하지 않고,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므로, '국민'이 아니라 '주민'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 중 일부만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투자자 등을 배제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이 국가가 태풍·산불·가뭄·홍수·쓰나미·감염병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거주 기준으로 관광객·단기방문자를 빼고, 체류자격의 합법성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부는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격이 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재해 지원을 위한 시민권 지위 및 자격'을 규정하면서, "모든 FEMA 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없이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4월 20일 주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 정액 급부금'으로 4월 27일 기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주민' 등록을 해야 하므로,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국·프랑스·독일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국민 주민과 동등하게 처우한다. 예컨대, 4월 27일 독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프리랜서·자영업자·소규모사업자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납세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을 달리 처우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

가 시작되었다. 외국인 인구의 추가 유입이 없으면 총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면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아동수당 등 '주민' 대상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중 일부만 선별하여 포함하는 정책은 시대착오다.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선진사회 한국'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궁색하지 않을까? 선진사회 한국은 '전 지구적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치료제·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는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향해 공포·혐오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테러·전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특정 사회집단에 그 원인을 돌려 공격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것은 결코 새로운 사회현상이 아니다.

올해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가 발견되었고,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 봉쇄' 주장이 불거졌고, 이내 중국인 공포·혐오로 이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불매 운동을 의미하는 '노 차이나'(No China) 로고가 등장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식당과 찜질방 등에 '중국인 입장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다. 몇몇 언론은 서울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상점을 '비위생적', '위생불량 심각'으로 묘사하며, 재한 조선족동포에 대한 공포·혐오를 조장했다.

그 후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을 때, 공포·혐오의 태도는 그들을 향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외국인' 또는 '외국에 머무르다 귀국한 한국인'이 '불안 유발자' 집단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5월호 서울 이태원의 몇몇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된 후에는 성 소수자가 표적이 됐다. 사람들은 그들을 '공공의 적' 또는 '인간 바이러스'라 불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잠재적) 가해자이기도 하나, 그 역시 다른 사람으로 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피해자'라는 점을 간과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를 무조건 감싸는 '언더도그마'(underdogma)는 곤란하다. 언더도그마란 약자(underdog)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자(overdog)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고, 강자가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믿음이다. 즉, 몇몇 확진자의 이기적 행동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확진자가 속한 사회 집단 전체'를 '우리'와는 구분되는 존재, 즉 '타자'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낙인찍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음호에 계속)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도 함께 폭력예방

2020년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사업지원인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도 거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7월 24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찬희 경위는 ‘법률에 기반한 가정폭력 대응 방법’, ‘폭력위기상황 대응원칙 및 폭력예방 실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앞으로 다문화가족 대상 7회, 종사자 대상 8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안산,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최대 110만원·총 17회까지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직장 18만237원·지역 18만5천31원)의 난임 부부로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시술 종류별로 달라 회당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총 1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 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도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31-481-5975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여름휴가, “대부도에서 아름답고, 시원하게 즐기자”

대부도 물들인 100만 송이 해바라기, ‘노랑부리백로’도 안산에서 만나요



아직 여름 휴가지를 결정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이라면 대부도 해바라기 꽃밭에서 시원한 휴가를 보내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부도 대부북동 시화지구간척지 내 6만여㎡에 100만 송이 대형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역점시책 중 하나인 대부도 농업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조성된 해바라기 꽃밭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숨기는 여름 더위에도 대부도를 노란 물감으로 진하게 물들인 노란꽃 물결로 장관을 이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꽃밭이 조성된 시화지구간척지는 72ha의 광활한 면적에 자생하는 갈대와 각종 염생식물 및 동.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순환로 및 데크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5km에 이르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도 전국에 손꼽히는 명소다.

안산시 관계자는 “해바라기 개화가 이달 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바라기의 꽃말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처럼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수도권 제일의 섬인 대부도와 이곳 꽃밭을 방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부도에는 특히 안산시가 대부도 갯벌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 대표 브랜드로 선정한 시조(市鳥) ‘노랑부리백로’라는 새가 있어 더욱 특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국제조류보호회의(ICBP)에서 적색자료목록 22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멸종 직전의 국제보호조류로, 우리나라는 멸

종위기 1등급 보호 철새로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돼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에 있는 안산 대부도 갯벌에 4월부터 10월까지 취식 및 서식하며 인근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는 봄철 번식기에 부리와 발이 노란색을 띠다 7월 이후부터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안산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바닷새의 먹이활동으로 주요 습지를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부도 갯벌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철새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산시는 단원구청 앞 해바라기. 코스모스 단지에 꽃이 만개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청 인근 1만6천700㎡ 규모의 해바라기. 코스모스 단지는 형형색색 다채로운 색을 뽐내며 방문객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방문객이 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비자 취득과 변경 관련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

부모님 초청, 영주권 취득, 외국인 자영업자 재난소득 지급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 비자 취득 혹은 변경과 관련해 많은 외국인주민이 질문을 해왔다. 한국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가 맡았다.

질문1 : 저는 영주권(F5)을 가진 다문화가족인데 한국에서 학교, 직장, 결혼, 출산을 해서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어린 아이도 있는데 제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아끼 보는 걸 도와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비자가 3개월 관광비자입니다. 아빠가 3개월 돌봐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엄마가 다시 오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아기를 돌봐주십시오. F5 비자로 국적을 가진 내국인처럼 부모님을 초청해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나요?

답변1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심지어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고 난 후 한국인 신분으로 친정 부모님을 초청해도 똑같습니다. 최근 어떤 결혼이민자

한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 엄마 한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장기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지금 지방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아쉽게도 1차는 패소했고 항소하여 고등법원 2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결합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여 소송 중이니 소송 판결에 따라 친정부모 장기체류비자 부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 엄마가 한국에서 사신 지 7년 됐고 올해로 60세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F6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한국어 공부를 7년을 해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엄마랑 결혼한 한국 아저씨도 70대인데 엄마가 영주권이 없으면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엄마가 중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인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엄마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F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2 : 한국 정부에서는 영주권 취득의 기본조건이 언어와 소득증빙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영주권 전치제도가 시행되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부 시험면제 특별배려 대상자도 있으나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별배려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친정 엄마의 경우 결혼이민자로서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속하여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3 : 저는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외국인이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주권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자처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답변3 :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국민과 이민자들이 함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이민자들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재난을 처음 맞이하다보니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도 비영리단체라든가 일부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등록 외국인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확대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에 이민자라는 사유로만 지원이 배제된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힘내십시오.

(베트남어 34면, 일본어 42면)

원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시흥화폐 시루, 다문화가족도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참여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애초 7월 말까

지 진행할 예정이던 '시흥화폐 시루'의 10%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8월 1일부터 추가 200억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22일 기준, 올해 1018억여 원이 발행됐으며 '모바일시루'의 발행액은 700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시루는 전체 시루 발행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지역사회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시루의 유통률은 84%로 올해 약 590억

여 원이 시흥시 상권에 풀렸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시흥시 지역 점포에서만 시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된 590억 원의 시루가 시흥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가 활발히 유통되며 시루 가맹점 등록 업체 수도 급증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7,000개를 상회하는 9,704개 업체가 시루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모바일시루 결제가 100% 가능하다. 이처럼 시흥화폐 시루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배경으로는 모바일시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바일시루 가입자 수는 지난 22일 기준 15만 명으로 시흥시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이 앱을 사용 중이다. 언택트 결제 방식으로 1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모바일시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10% 특별할인 기간이 8월 이후까지로 연장된 만큼 지역 경제에 훈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문화예술공연으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 마음 달래요”

다문화가족도 시흥시의 다양한 온택트 문화예술공연 참여해요



코로나19로 중단된 문화예술공연으로 아쉬움이 큰 다문화가족이라면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으로 마음을 달래보자.

온택트 문화예술 공연 추진

시흥시는 7월 문화의 주간을 맞아 시민들과 예술인을 응원하고자 흥미로운 문화 공연과 전시를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경직된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문화예술계를 뒤덮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온(On-line)택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있다.

‘온택트’란, 언택트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한

계 사람 사이의 연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7월 문화의 주간(7월 27일~8월 2일)에는 시흥시 예술가들이 참여한 <집콕 문화생활 시즌2> 공연과 전시, 경기도 문화의 날 마술쇼 <방구석콘서트>와 토로, 해로와 함께하는 이색 마술 교육프로그램 <배워서 남주자>, 창작국악뮤지컬 <사자가 물고 간 꽃신>이 공연됐다.

온택트 콘텐츠는 공연 및 전시 등의 영상을 유튜브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리면서 그간 단절되었던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를 주고 있다.

콘텐츠는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일부 콘텐츠의 경우 문화의 주간 외에도 지속해서 관람할 수 있다.

#거리예술제 ‘섬머콘서트’ 개최

지난 7월 24일 군자동 도일시장 마오페 50 앞 야외무대에서는 시흥시 주최, (사)한국예총시흥지회와 (사)한국예

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마스크를 쓰고 즐기는’ 거리예술제섬머콘서트(SUMMER CONCERT IN MASK)가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군자동 주민들을 위로하고, 각종 공연 행사 축소로 어려워진 지역예술인들을 격려코자 마련됐다. 관람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팝페라 그룹 아르더 공연을 시작으로 MMC 재즈 앙상블과 시흥시무용단 와일드몽키즈의 댄스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을 치유하고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정영미 군자동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두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맑은물상상누리, 매력적인 공간 만들 맑은물상상씨

특색있는 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정왕동 시흥맑은물관리센터 내 유휴공간을 재생해 조성한 맑은물상상누리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갈 서포터즈 2기 ‘맑은물 상상씨’에 참여해보자.

이번에 모집하는 ‘맑은물 상상씨’는 8주간 교육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한 공간재생 ▲맑은물상상누리가 갖는 공간적 특성 등에 대해 습득하고, 이후 하수처리장이었던 맑은물상상누리의 스토리를 담아 문화복합공간으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다. 문화재생에 대한 학습과 문화 공간에 관심이 많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수료 후 ‘맑은물상상누리’ 서포터즈로 활동 가능한 사람을 우대한다. 맑은물상상누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arteco2019>)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arteco2019@naver.com)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뒷받침, 다자녀 등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제공서비스
 - *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 * 준비된 간식 챙겨주기
- 시간당 9,890원
-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 연 720시간 지원

종일제 서비스

- 만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제공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 * 기저귀 갈기
 - * 젖병소독
 - * 목욕 등
- 시간당 9,890원
-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차등 지원
- * 월 최대 200시간 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 전염성, 유전형 질병에 의해 아동의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제공
- 시간당 11,860원
- * 증명서류 제출시 정부지원 50% 적용

일시 연계 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안간 및 주말**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 * 6월 중순 오픈 예정
- * 아이돌봄서비스 열 설치 필요 (웹스도어, 플랫폼스도어 검색하여 설치)

▶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 카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및 대기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료 사전 결제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이용자명, 정부지원 신청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정회원승인 및 이용시간 파악을 위해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17-4516(선택번호 1번)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여성가족부

시흥시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월 8만원 할인혜택 시루 10% 특별할인 연장

추가 200억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도 5% 상시할인이 계속됩니다

힘내라 시흥시민! 커져라 굶족상권!

식사

잡것기

쇼핑

학원

운동

건강

민택돌봄

연태케어

커리어

미용

시루 홈페이지(www.sl-rulkr.com)에서 가맹점 검색 / 가맹점 앞 시루 스티커로 확인

즉시신청·즉시이용 가능한 모바일시루 사용방법

1

지역상권chuk! 다운로드 (플레이스도어 또는 웹스도어)

2

회원가입 후 지역을 시흥시로 선택

3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모바일시루를 충전

4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가맹점 QR코드를 스캔

2명 중 1명은 모바일시루 사용자

소상공인마 310-3545-B | 한국조폐공사 고객센터 1577-4321

多文化家族にも役立つ情報—地域 社會雇用福祉強化、政府發表

政府は文在寅大統領が發表した
‘韓國版ニューディール綜合計
画’のうち、‘セーフティネット
強化’分野に関するブリーフィ
ングを行い、多文化家族にも役立つ
制度を發表した。

韓國型傷病手当

政府は労働者が病氣や怪我など
をした場合に、一定手当が保障
され休養できる‘韓國型傷病手
当て’の導入も推進中だ。2022年
までに低所得層対象示範事業を
行い、導入方式を準備する方針だ。
基礎生活保障制度の生計給与扶養
義務者基準は廢止し、基準中位所
得算定方式へと変更する。ITフリー
レンサー、ケアサービス従事者
も産災保険対象にした。来年の1
月には國民就業支援制度を施行す
る。その内容は、低所得層生計支
援用求職促進手当を月50万ウォ
ンずつ最大6ヶ月間支給、就業支援
プログラムを導入するというもの
だ。

育児休職制度改編

育児休職制度も大幅に改定す
る。労働者の妊娠中の流・死産防
止のために、妊娠中でも育児休職
が可能な男女雇用平等法の改定計
画だ。労働者が必要ときに育児
休職を使えるよう、分割使用可能
回数も増やす。制限的に出産前後
の給與のみ受給可能であった特雇
従事者にも育児休職給与を支給す
る。

青年デジタル就職

政府は中小・中堅企業がIT関連職
務に青年を採用する場合、6ヶ月間
ひとり当たりの人件費を最大180万
ウォン支援する、‘青年デジタル就
職’事業を今年に続いて来年も施
行する。

デジタル革命に對應し職業訓練
もデジタル中心へと轉換する。職
業訓練に参加中する全求職者と在
職者に‘デジタル融合訓練’を提
供し、求職者がこの訓練に参加す
ると50万ウォンに該当する‘Kデジ
タル・クレジット’手当を支給する
予定だ。

國民就業支援制度

雇用保険の死角地帯をなくす第
2の雇用セーフティネットである、
國民就業支援制度のサービスも強
化する。

國民就業支援制度は保険料に基
盤を置く雇用保険とは違い、政府
予算で手当を支給する失業扶助
制度だ。来年の1月から施行され
る。低所得層求職者を対象に、月
50万ウォンずつ最長6ヶ月間、求
職促進手当を支給、きめ細かな就
業支援サービスを提供する。

政府は國民就業支援制度参加者
に対して、求職分野民間企業で3ヶ
月前後のインターンプログラムに
参加する機会を提供する計画だ。
働く意欲が不足している者には、
非政府機構(NGO)と公共機關など
で30日前後の短期間職務経験を提
供する。〈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다문화가족과 자녀에도 유용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독려



군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영미)가
2020년 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
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상담·치료 등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이
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하
며 최대 170% 이하까지 있음)에 해당하

는 가구다.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기
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모집 분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정서발달, 비전형성, 신
체정서통합서비스와 노인 시각장애인 안
마서비스, 장애인 정신건강도발서비스 등
총 10개 사업이다.

10개 사업 이용자 총 800명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11일까지 모집하며 서비스
지원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
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자동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자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
동은 특히 노인과 아동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031-
310-4498, 4492

이지은 기자

다문화 교육특구 예산확대 제안

장대석 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대상



장 대 석
경기도의원
(더민주, 시
흥 2)이 지
난 7월 24
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회장
박일규)로부

터 ‘경기도사회복지대상’을
받았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 정조위원장으로 활동
하면서 보건, 복지, 여성 등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경기도
의회의 복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지사과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
기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부서 설
치, 다문화 교육특구에 대한 예산 확대를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설

치와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의 책임성을 주문하고 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를 위해 장애인 학부모와 간담회 진
행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대석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도민들의
복지향상, 인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사회복지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도민들의 다양한 목
소리를 경청하면서 현장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양극화와 고령화 등으
로 우리 사회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
는 만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코
로나 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
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이민법 전문 변호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본상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NOTE

နိုင်ငံခြားသားလုပ်သား၏ အိပ်မက်ကို အားပေးပါမည်။

နိုင်ငံခြားသား အလုပ်ခန့်အပ်ခွင့်စနစ်



 မြန်မာ




၀၂ မတရား အလုပ်ထုတ်ခံရသလား

အလုပ်ထုတ်ခြင်း ဆိုသည်မှာ

လုပ်ငန်းရှင်က တစ်ဖက်သတ် အလုပ်စာချုပ်စာရင်းပေးပို့ရန်အတွက် အမည် သို့မဟုတ် ဆောင်ရွက်ပုံ မရွေးဘဲ အသုံးပြုသူတစ်ဖက် တစ်ဖက်သတ် အလုပ်စာချုပ်ကို အမှန်သတ်သည့် အပြုအမူ

အလုပ်ထုတ်ခွင့် ကန့်သတ်မှု

လုပ်ငန်းရှင်သည် သင့်တော်သည့် အကြောင်းပြချက်မရှိဘဲ တစ်ဖက်သတ် အလုပ်သမားကို အလုပ်ထုတ်ခွင့် မရပါ။

ထို့အပြင် ကုမ္ပဏီ အခြေအနေအထား အလုပ်ထုတ်ခြင်း၊ တနည်းအားဖြင့် စီမံခန့်ခွဲမှု အကြောင်းပြချက်ဖြင့် အလုပ်ထုတ်လိုသည့် အခြေအနေအထားပင် သတ်မှတ်ထားသည့် အချက်များနှင့် အဆင့်များကို လုပ်ဆောင်ရပါမည်။

မတရား အလုပ်ထုတ်ခံရလျှင် ယခုကဲ့သို့ လုပ်ဆောင်ပါ။

၅ ဦးနှင့်အထက်လုပ်ငန်းရှင်တွင်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င်း စသည့်တို့ စီမံခန့်ခွဲမှု သက်ဆိုင်ရာ အလုပ်သမား ကော်မတီသို့ ကုစားပေးရန် လျှောက်လွှာ ကို တင်သွင်းနိုင်ပါသည်။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ရခြင်းနှင့် ပတ်သက်၍ မူလ လုပ်ငန်းရှင်သို့ ပြန်သွားနိုင်ခြင်း သို့မဟုတ် အလုပ်ပြန်လုပ် လိုလျှင် အလုပ်ထုတ်ထားသည့် ကာလ၏ လုပ်ဆောင်မှု ရရှိနိုင်ပါသည်။

၅ ဦးအထိ လုပ်ငန်းရှင်ပြင်ပက တရားရုံးတွင် တရားစွဲဆိုလျှာ တင်သွင်းနိုင်ပါသည်။

* ကုစားပေးရန်လျှောက်လွှာ -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ရသည့်အမှုမျိုးကို ၃ လအတွင်း လျှောက်ထားရမည်။

04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 ဖြစ်ပွားလျှင် ယခုကဲ့သို့ လုပ်ဆောင်ပါ။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 ဖြစ်ပွားလျှင် လုပ်ငန်းရှင်နှင့်သက်ဆိုင်သည့် အလုပ်သမားအဖွဲ့အစည်းတွင် လုပ်သားက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 ထောက်ခံမှုအကြံပြုအလုပ်လွှာကို တင်သွင်းရန်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 ဖြစ်ပွားလျှင် လုပ်ငန်းရှင်က ဆောင်ရွက်ပေးလျှင်ဖြစ်စေ၊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အလုပ်လွှာကို သဘောမတူညီလျှင်ဖြစ်စေ ကိုယ်တိုင် လျှောက်ထားနိုင်ပါသည်။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ဖြစ်ပွားရန် အကြောင်းရင်း

ဖြစ်ပွားသည့်နေရာအခြေအနေ စသည့်တို့ကို မှတ်သားရန်

ထိခိုက်မှု ဖြစ်ပွားလျှင် ၁၅ ရက်အတွင်းအစီအစဉ် စီမံခန့်ခွဲမှု ရှိရန်

ထို့အပြင် ဖြစ်ပွားသည့်နေရာ စာတမ်း၊ များပြားသက်သေ ထုတ်ဆိုရန် စသည့် ပစ္စည်းများကို ရယူခြင်းဆင် တားရန်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လျှောက် ထားခြင်းကို အောက်ပါအတိုင်း ဆောင်ရွက်ပါမည်။

၁ ဆေးကုသခြင်း (ဖြစ်ဖြစ်လျှင်နှင့် ဆိုးရွားလာလျှင်)

၂ ဆေးကုသရန်လျှောက်ထားခြင်း

၃ ဆေးကုသခြင်း

၄ ထောက်ပံ့ခြင်း

၅ မသန်စွမ်းခြင်းနှင့် လူနာပြုခြင်း စနစ်

၆ ကျန်းမာရေးသုတေသနနှင့် နာစာရစနစ်

၇ ဆေးကုသခြင်းအကြောင်း အလုပ်မရှိသည့်ကာလအတွက် အလုပ်နားလတ်

အလုပ်သမားအဖွဲ့အစည်း ၀၅၅၀-၀၀၇၅ 07

၀၃ ရန်ရှိသည့် လုပ်အားမ ပေးဘူးလား

လုပ်အားမ ပေးခြင်းဆိုသည်မှာ

လုပ်ငန်းရှင်က လုပ်သား၏ လုပ်အားအပေးပေးမှု မရမည့် လစာကို ပေးရန်မဟုတ်ဘဲလုပ်သားအဖွဲ့အစည်း (လစာ လက်ရက်) တွင် ပေးပေးရန်

တစ်ဖက်သတ် လစာလျှော့ခြင်း သို့မဟုတ် လုပ်သားထုတ်ခွင့်ကို သက်ဆိုင်သည့် သဘောတူညီချက်မရှိဘဲ အလုပ်ထုတ်ခွင့်ပေးခြင်း ၁၄ ရက်အတွင်း မပေးခြင်း အပါအဝင်

လုပ်အားမ ပေးလျှင် ဤကဲ့သို့ ပြေငြိမ်းပါ။

လုပ်အားမပေးလျှင် လုပ်ငန်းရှင်နှင့် သက်ဆိုင်သည့် အလုပ်သမားစနစ်ကြောင့် တိုင်ကြားခြင်း သို့မဟုတ် တရားစွဲဆိုမှု တရားစွဲဆိုခြင်း ပြုနိုင်ပါသည်။

လုပ်ငန်းရှင် ဝေးထွက်ခွင့်ပေးခြင်း အစားအယူမှု ကို လျှောက်ထားနိုင်ပါသည်။

* အစားအယူမှု - လုပ်သား တင်ပြသည့် လုပ်ငန်းရှင် ဝေးထွက်ခွင့်ပေးခြင်း စသည့်အကြောင်းအရာများ မပြုနိုင်ဘဲ လုပ်အားမ ပေးသည့်တိုင် မပေးရန် နိုင်ငံတော်က သတ်မှတ်ထားသည့် အတိုင်းအတာအတွင်း ဦးစွာ ပေးပေးရမည့် ခွင့်

အကြောင်းအရာ	အသုံးပြုနိုင်ခြင်း သို့မဟုတ် တိုင်ကြားခြင်း	တရားစွဲဆိုမှုအမျိုးအစား
အောက်ဖျက်	အလုပ်သမားစနစ်ကြောင့် အသုံးပြုမှုနှင့် တိုင်ကြားခြင်းကို တင်သွင်းပြီး လုပ်ငန်းရှင်ကို ဖမ်းဆီးမှု ပြုစေရန်အတွက် စီစဉ်ထားခြင်း ခြိမ်းခြောက်ခြင်း	တရားစွဲဆိုမှု အမျိုးအစားနှင့် တရားစွဲဆိုမှု တရားစွဲဆိုမှုနှင့် တိုင်ကြားခြင်း
အားထူးချွန်	လုပ်အားမ ပေးခြင်း အစားအယူမှု အသုံးပြုမှုနှင့် တိုင်ကြားခြင်း	လုပ်အားမ ပေးခြင်း အစားအယူမှု အသုံးပြုမှုနှင့် တိုင်ကြားခြင်း
အားထူးချွန်	လုပ်ငန်းရှင်သည် လုပ်အားမ ပေးနိုင်သည့်အပြင် အချိန်လျှင် ပြန်လည်ပေးခြင်း အစားအယူမှု	ကားရိပ်နှင့် အသုံးပြုမှု ဖြစ်နိုင်ခြင်း

02



ကုစားပေးခြင်း ဆောင်ရွက်ပုံမှာ အောက်ပါအတိုင်း ဖြစ်ပါသည်။

၅ ဦးနှင့်အထက် လုပ်ငန်းရှင်တွင် အလုပ်လုပ်နေရာမှ မတရား အလုပ်ထုတ်ခံရလျှင် အောက်ပါအတိုင်း ကုစား ပေးခြင်းဆောင်ရွက်ရန် လုပ်ဆောင်ပါသည်။

အလုပ်သမားမရေရာကုစားရန်နှင့် ချေးငွေအား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ရခြင်း စသည့်နည်း ဖတ်သက်သည့် ကုစားပေးမှုဆောင်ရွက်ရန် လိုအပ်သည့် အချက်များ ရှင်းလင်းစီစဉ်

အလုပ်သမားကော်မတီတွင်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ရခြင်း စသည့် ကုစားပေးရန်လျှောက်လွှာ၊ လျှောက်ထားရသည့်အကြောင်းရင်းတို့ကို တင်သွင်း

အလုပ်သမားကော်မတီ၏ စစ်ဆေးမှုပြုမှုမှ စတင်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ရသည့်ဟု သတ်မှတ်လျှင် မူလအလုပ် ပြန်ရန်နှင့် သက်ဆိုင်ရာလုပ်အားပေးရန် အမိန့်ပေး

လုပ်ငန်းရှင်က အမည်မသိ အမိန့်ကို လိုက်နာခြင်းမရှိလျှင် အကြောင်းအရာ တင်စေတမ်း

အလုပ်သမားစနစ်ကြောင့် ချေးငွေအစုအဝေးတာ ၀၅၅၀-၀၀၇၅ နိုင်ငံခြားသားလုပ်သားအဖွဲ့အစည်း ၀၅၅၀-၀၀၇၅ 05

၀၄ လုပ်ငန်းရှ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 ကြိုတင်

လုပ်ငန်းရှ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 ဆိုသည်မှာ

တစ်ဖက်သား၏ စွန့်ပေးသည့် လိင်ပိုင်းဆိုင်ရာ ချော့ချော့မှုများကို မတရားအလုပ်ထုတ်ခြင်း အချက်အလက်အဖြစ် အသုံးပြုခြင်း သို့မဟုတ် အလုပ်ခန့်အပ်မှုပေးခြင်း အစားအယူမှု ပြုစေခြင်း စသည့် လက်ဆိုင်လက်ကိုင် ပြုစုခြင်း-ပြုနိုင်သည့် နှောင့်ယှက်မှုပေးခြင်းအပြင် အခြားအချက်များ

လုပ်ငန်းရှင် အထက်အရာရှိ သို့မဟုတ် လုပ်သားတစ်ဦးသည် လုပ်ငန်းရှင်တွင် ရာထူးကို အသုံးပြု၍ အခြား လုပ်သားတစ်ဦးကို လိင်ပိုင်းဆိုင်ရာ ချော့ချော့မှု အလုပ်အကိုင် သို့မဟုတ် အလုပ်ခန့်အပ်မှုပေးခြင်း အစားအယူမှု ပြုစေခြင်း

လုပ်ငန်းရှင်တွင်း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သည် ဤပုံစံဖြင့် ဖတ်သက်ရန် အကြောင်းရင်း

* လုပ်ငန်းရှင် ဖြစ်ပွား ချော့ချော့မှု စသည့်တို့ကို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အဖြစ် တင်သွင်းခြင်း ဆိုင်ရာနှောင့်ယှက်မှုအဖြစ် သတ်မှတ်ပါသည်။

အောက်ပါကဲ့သို့သော အပြုအမူများသည်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အဖြစ် အကျဉ်းချုပ်ပါသည်။

၁ ဝါကျပြောခြင်း

၂ ဝါကျပြောခြင်း

၃ ဝါကျပြောခြင်း

၄ ဝါကျပြောခြင်း

၅ ဝါကျပြောခြင်း

၆ ဝါကျပြောခြင်း

၇ ဝါကျပြောခြင်း

၈ ဝါကျပြောခြင်း

၉ ဝါကျပြောခြင်း

၁၀ ဝါကျပြောခြင်း

၁၁ ဝါကျပြောခြင်း

၁၂ ဝါကျပြောခြင်း

၁၃ ဝါကျပြောခြင်း

၁၄ ဝါကျပြောခြင်း

၁၅ ဝါကျပြောခြင်း

၁၆ ဝါကျပြောခြင်း


၁၇ ဝါကျပြောခြင်း

၁၈ ဝါကျပြောခြင်း

၁၉ ဝါကျပြောခြင်း

၂၀ ဝါကျပြောခြင်း

08



အောက်ပါ တရားစွဲဆိုမှုများ လိုအပ်ပါသည်။

လုပ်ငန်းရှင်လိင်စား ဆက်သွယ်ရန်နည်းပညာ၊ လုပ်ငန်းရှင်အပိုင် စသည့်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 အချက်အလက် မှား အလုပ်စာချုပ်၊ လစာထုတ်ခွင့်အပိုင် စသည့် စာချုပ်စာရင်း၊ လစာပေးသည့် ဘက်စာချုပ် အကြောင်းအရာများ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စား သက်သေခံချက်၊ အလုပ်ရိပ်မှ တစ်ဖက်သတ် စသည့်

ကုစားပေးမှု ဆောင်ရွက်ပုံမှာ အောက်ပါအတိုင်းဖြစ်ပါသည်။

အလုပ်သမားစနစ်ကြောင့် တိုင်ကြားခြင်း (အသုံးပြုမှုနှင့် တိုင်ကြားခြင်း) ဆောင်ရွက်ပုံ

* အသုံးပြုမှု - မပေးသည့် လုပ်အားမ ပေးရန် တောင်းဆိုခြင်း တိုင်ကြားခြင်း - လုပ်ငန်းရှင်ကို အလုပ်သမားအဖွဲ့အစည်းအစား အလုပ်ထုတ်ခွင့်ပေးခြင်း အစားအယူမှု တောင်းဆိုခြင်း

အပြစ်မရှိသော်လည်းပေးဆောင်ခြင်း (လုပ်ငန်းရှင်၊ လုပ်သား)

လစာပေးခြင်း စသော

လုပ်ငန်းရှင်ကို မပေးသည့်လုပ်သားပေးရန် ညွှန်ကြားခြင်း

လုပ်ငန်းရှင်က မပေးဘဲ ပြင်ဆင်လျှင် ရာထူးပေး ပြုစုခြင်း

တရားစွဲတွင် တရားစွဲ တရားစွဲဆိုလျှာတင်သွင်း

နိုင်ငံခြားသားလုပ်သားအဖွဲ့အစည်း - လုပ်အားမပေးခြင်း တောင်းဆိုမှုအစစ် လစ်လျူ ၀၅၅၀-၀၀၇၅ 03

၀၅ အလုပ်လုပ်ရာက ထိခိုက်သွားသလား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ဆိုသည်မှာ

အလုပ်သမားတစ်ဦးသည် လုပ်ငန်းတာဝန်ဆိုင်ရာအလုပ် သို့မဟုတ် အခြားအလုပ်တာဝန်များအကြောင်း သေဆုံးခြင်း သို့မဟုတ် ရောဂါဖြစ်ပွားခြင်းတို့ ဆိုလိုပါသည်။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ဖြစ်ပွားပြီး ၄ ရက်အထက် ဆေးကုသရန် လိုအပ်ခြင်း သို့မဟုတ် သေဆုံးခြင်းဖြစ်လျှင်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စားအယူမှု ထောက်ပံ့ခွင့် ရရှိနိုင်ပါသည်။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အစားအယူမှု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ကြောင်း နှစ်နှစ်အထက် အတွက် အစားအယူပေးခြင်း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ကြောင်း အစားအယူပေးခြင်း

မူ အမျိုးအစားများ	အခါက ဆောင်ရွက်သည့် အကြောင်းအရာများ
ဆေးကုသ စနစ်	အလုပ်လုပ်နေစဉ်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ကို လိုအပ်ချက်ကင်းသည့်အထိ ဆေးကုစေရန် ဆောင်ရွက်ခြင်း
အလုပ်နားလတ်	ဆေးကုသခြင်းအကြောင်း အလုပ်လုပ်နိုင်လျှင် လုပ်ငန်းရှင် ဆောင်ရွက်ခြင်း
ပသခွင့်ပေး လစာ	အလုပ်လုပ်နေစဉ်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ကြောင်း ဆေးကုသပြီးနောက် ပသခွင့်ပေး ကျခံရခြင်း စနစ်ဆောင်ရွက်ခြင်း
လူနာပြု စနစ်	ဆေးကုသပြီးနောက်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ဖြစ်သည့် လုပ်သားကို လူနာပြုရန် လိုအပ်လျှင် ဆောင်ရွက်ခြင်း
ကျန်းမာရေးသုတေသန စနစ်	လုပ်ငန်းရှင် ထိခိုက်မှုအကြောင်း လုပ်သားအဖွဲ့အစည်း ကျန်းမာရေးသုတေသန စနစ်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ကို ဆောင်ရွက်ခြင်း
နာစာရ စနစ်	အလုပ်လုပ်နေစဉ်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ကြောင်း စသည့်လုပ် လုပ်သား၏ နာစာရ ကျန်းမာရေးစနစ်ဆောင်ရွက်ခြင်း
ထိခိုက်မှုအစားအယူပေးခြင်း	ဆေးကုစေခြင်းအစား ၂ နှစ်ကြာသည့်အထိ မပေးချက်ကင်းလျှင် အလုပ်နားလတ်အစား ဆောင်ရွက်ခြင်း

06



၁ ကာကွယ်ခြင်း ပြုမှုများ

နည်းစနစ်မရှိခြင်း သို့မဟုတ် ဖော်ပြခြင်း ချော့ချော့မှုများကို ဖော်ပြခြင်း စသည့် လုပ်ငန်းရှင်ထိခိုက်မှုအကြောင်း အပြစ်မရှိ အစားအယူပေးခြင်း စသည့် အစားအယူပေးခြင်း အစားအယူပေးခြင်း စသည့် အစားအယူပေးခြင်း

၂ အခြားအချက်အလက်များ

ညွှန်ကြားသည့် စာတမ်း ပေးရန် ပြုစုမှုများ ညွှန်ကြားသည့် နည်းစနစ်များ စသည့်တို့ကို ချော့ချော့မှုများ ဖြစ်ပွားခြင်း သို့မဟုတ် ဖော်ပြခြင်း စသည့် အပြစ်မရှိ အစားအယူပေးခြင်း စသည့် အစားအယူပေးခြင်း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 ဖြစ်ပွားလျှင် အောက်ပါအတိုင်း ဆောင်ရွက်ပါ။

ညွှန်ကြားသည့် စာတမ်း ပေးရန် ပြုစုမှုများ ညွှန်ကြားသည့် နည်းစနစ်များ စသည့်တို့ကို ချော့ချော့မှုများ ဖြစ်ပွားခြင်း သို့မဟုတ် ဖော်ပြခြင်း စသည့် အပြစ်မရှိ အစားအယူပေးခြင်း စသည့် အစားအယူပေးခြင်း

လိင်ပိုင်းဆိုင်ရာ နှောင့်ယှက်မှု ဖြစ်ပွားလျှင် အောက်ပါအတိုင်း ဆောင်ရွက်ပါ။

ညွှန်ကြားသည့် စာတမ်း ပေးရန် ပြုစုမှုများ ညွှန်ကြားသည့် နည်းစနစ်များ စသည့်တို့ကို ချော့ချော့မှုများ ဖြစ်ပွားခြင်း သို့မဟုတ် ဖော်ပြခြင်း စသည့် အပြစ်မရှိ အစားအယူပေးခြင်း စသည့် အစားအယူပေးခြင်း

အခြားအချက်အလက်များ (လိင်ပိုင်းဆိုင်ရာနှောင့်ယှက်မှု ဖြစ်ပွားခြင်း အပြစ်မရှိ) ၀၅၅၀-၀၀၇၅ 09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aggamit ng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althy Family Team (031-310-2617)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ducation Support (031-317-4516)

- **Kwalipikasyon** : Mga bata bago at pagkatapos ng eskwela
- **Panahon ng paggamit** : Buong taon (Lunes hanggang Biyernes 10:00 ~ 18:00)
- **Nilalaman ng Suporta** : Magkaloob ng ligtas na pangangalaga ng bata, suportahan ang mga aktibidad sa salitang pangangalaga ng bata, magrenta ng mga laruan at libro, pagsasagawa ng mga programa
- **Mga Pasilidad**

Numero	Pangalan ng institusyon	Lugar	Kinaroroonan
1	Center Community Child Care Sharing Center	Jeongwang-dong	Healthy Family culture
2	Forest Village Community Child Care Sharing Center	Janggok-dong	Forest Village Apartment
3	Konyoung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Jeongwang-dong	Gunyoung II-Apartment
4	Geomo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Geomo-dong	Geomo Social Welfare Center
5	Green Forest Community Child Care Sharing Center	Jug-yuldong	Siheung 6th Prugio
6	Blue Forest Community Child Care Sharing Center	Jonam-dong	Firstrium Apartments
7	Dodam Dodam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Jeongwang-dong	SK View Apartment
8	Donyang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Janggok-dong	Dongyang Dexville Apartment
9	Boseong Child Care Sharing Center	Jeongwang-dong	Boseong Apartment
10	Jinmal Daewoo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Janggok-dong	Jinmal Daewoo 3rd Apartment
11	Sincheon Juwang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Sincheon-dong	Juwang Church (Vision Center)
12	Janghyun Hope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Janghyeon-dong	Janghyeon Happy Housing Apartment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Ainuri Child Care Center

Child Care Division, All Day Childcare Team(031-310-3423)

Isang sentro ng pangangalaga sa elementarya na pinamamahalaan ng lungsod ng Siheung na nagbibigay ng mga serbisyo tulad ng proteksyon, pag-aalaga at edukasyon para sa mga batang nangangailangan.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Lahat ng mga bata na nangangailangan ng pangangalaga mula 6 ~ 12 taong gulang
- Pangunahing prayoridad) Mag-asawa na parehong naghahanapbuhay, Solong magulang , Pamilya na may maraming bilang ng anak
- **Bilang ng taong maaaring gumamit** : 1 tao (25 ~ 30 katao) bawat 3.3m²
- **Panahon ng Operasyon** : (semestre) 13:00 ~ 19:00 / (sa panahon ng bakasyon) 09:00 ~ 19:00
- **Mga namamahala** : Direktor 1, 2 guro na mangagalaga sa mga bata. *Nakaugnay sa mga komunidad, katulad ng mga mag-aaral na nagtatrabaho bilang part-time at mga nagboboluntaryo
- **Programa** : Pangunahin (Attendance, Meal service merienda) / Karaniwan (Takdang aralin at Pagbasa, Pag-aalaga) / Espesyalidad (Edukasyong Pang-banyaga, Musika, Pamumuno, atbp.)
- **Bayad** : 60,000 won/buwan (hindi kasama ang tanghalian kapag bakasyon, kasama ang tanghalian)
- **Katayuan ng Pasilidad**

Numero	Pangalan	Lugar	Kinaroroonan	Maaring Tawagan
1	Eungye Central Town Branch	Eunhaeong-dong	Siheung, Eungye Jungang-ro 97, Community Center	070-7720-4542
2	Shiwa Doosan Apartment Branch	Jongwang 1-dong	2F, Management Building, 286, Siheung	070-4178-3378
3	Halla Vivaldi 3rd Branch	Baegot-dong	Siheung, Seoul Daehak-ro 172-20 Community Complex	-
4	Lake Pum Ae Apartment Store	Mokgam-dong	Siheung, Moknam Namseo-ro 92-12 Community Complex	-

Sabadong Palaruan na malapit sa aking anak

Self-governing Village Department (031-310-2678)

- **Alipikasyon** : Mga bata mula sa mga pamilyang nag-iisang magulang na nakatira sa Daeya-dong
- **Panahon ng Aplikasyon** : Tuwing Ikatlong buwan
- **Bayad** : Libre
- **Bilang** : 15 katao (Unahan sa pagpaparehistro)
- **Mga Nilalaman sa Suporta** : edukasyon sa tamang pag lalaro (tuwing Sabado)
- **Paraan ng Aplikasyon** : Bumisita, Tumawag at mag sumiti ng aplikasyon
- **Proseso ng Suporta** : Aplikasyon → Pagkumpirma ng mga Kinakailangan
- **Mga Kinakailangan na Dokumento** : Registration Form

32

Mga Kabataan

33

**KONEKSYON NG PAMILYA
PATA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Ainuri Child Care Sharing Center Child Care Division, All Day Childcare Team (031-310-3424)

Ang mga lokal na residente ay nangangalaga sa mga bata sa pamamagitan ng paggamit ng mga lugar tulad ng mga paaralan ng nayon, malit na aklatan, at mga pampamayanang pabahay ng komunidad. Mga pasilidad sa pangangalaga ng mga nasa elementaryang estudyante (Public Offering Project)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Batang may edad 6-12 na nangangailangan ng pangangalaga
-(Pangunahing prayoridad) Mag asawa na parehong nag hahanapbuhay (Solong Magulang), Mga batang may mababang grado, Pamilyang maay maraming bilang ng anak
- **Bilang ng maaring gumagamit** : 15 hanggang 20 ka tao
- **Panahon ng Operasyon** : (semestre) 13: 00 ~ 19: 00 / (sa panahon ng bakasyon) 09: 00 ~ 19: 00
- **Mga namamahala** :
- **Programa** : Pangunahin (Attendance, Meal service ? merienda) / Karaniwan (Takdang aralin at Pagbasa, Pag-aalaga) / Espesyalidad (Edukasyong Pang-banyaga, Musika, Pamumuno, atbp.)
- **Bayad** : 40,000won / buwan (hindi kasama ang tanghalian kapag bakasyon, kasama ang tanghalian)
- **Katayuan ng Pasilidad**

Numero	Pangalan ng Lugar	Lugar	Kinaroroonan	Maaring Tawagan
1	Daeya Social Welfare Center	Daeya-dong	Siheung, Hohyeon-ro 55	031-404-8114
2	Iodem Gwasalamdeul	Sincheon-dong	Siheung, Sincheon-ro 100 beon-gil 33, 1st Floor	031-505-1211
3	Siheung Christian Youth Association (Siheung YMCA)	Eunhaeong-dong	Siheung, Bankro154 Bando Plaza, 4th Floor	031-315-4310
4	Hope Center Village School	Maehwa-dong	8, Siheung, Maehwa 2-ro 48beon-gil	031-318-5253
5	Sky Dream Small Library	Sinhyeon-dong	Siheung, Sinhyeon-ro 12beon-gil 8	031-315-0179
6	Happy Forest Village School	Janggok-dong	siheung.jang-gogio 53beongil 10	031-504-7721
7	Yeonseong-ajiteu	Yeonseong-dong	Siheung, Haedong-ro 133beon-gil 8 Management Building 3F	031-310-5880
8	Educational Community Legged Cooperative	Gunja-dong	Siheung & Gunro 521 Estee Tower 202	031-506-1314
9	Green Forest Small Library	Jeongwang bon-dong	45-10, Siheung, Jukryul-ro, 103 Dong, Siheung 6th Chaprugio	031-434-8639
10	Moonlight Pogu Village School	Wolgot-dong	Siheung, Wolgot Coastal Road 111-1	031-317-2016

Sentro ng marurunong sa edukasyon sa Siheung sa pamamahala ng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Team (031-310-3192)

- **Mga maaring magparehistro** : nasa ika -3 tao ng Middle School ~ ika-2 taon ng Highschool
- **Panahon ng Aplikasyon** : Nobyembre
- **Bayad** : Libre
- **Nilalaman ng Suporta** :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Matematika, Agham , Pinaghalo) klase, Pag aaral R & E
- **Paraan ng Aplikasyon** : Magpa koreyo ng mga dokumento sa Siheung Gifted Educ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Mga kinakailangang Dokumento** : Aplikasyon
* naka-post sa Siheung Gifted Education Center website bawat taon

Paggabay sa Malikhaing Pagtatala ng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Office of Education and Autonomy (031-310-3192)

- **Mga maaring magparehistro** : Mga nasa ika-6 na baitang ng elementarya
- **Panahon ng Aplikasyon** : Marso
- **Bayad** : Libre
- **Nilalaman ng Suporta** : Pagtuturo ng online coding sa pamamagitan ng mentoring ng mga mag-aaral sa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
- **Paraan ng Aplikasyon** : Siheung Happiness Education Support Center homepage (<https://happyedu.siheung.go.kr>)
- **Mga Kinakailangan dokumento** : Application Form

Paggabay sa Musika sa pamamahala ng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Office of Education and Autonomy (031-310-3192)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Mga Mag aaral sa ika-4 na taon sa elementarya hanggang sa ika-2 taon ng middle school
- **Panahon ng Aplikasyon** : Enero
- **Bayad** : Libre
- **Nilalaman ng Suporta** : Pagtuturo ng mga aralin sa instrumentong pangmusika at orchestra ensemble sa Pambansang Unibersidad ng Seoul
- **Paraan ng Aplikasyon** : Siheung Happiness Education Support Center homepage (<https://happyedu.siheung.go.kr>)
- **Mga Kinakailangan dokumento** : Application Form

34

Mga Kabataan

35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지역정보

‘스마트 가든’, 온라인 독서토론 등 눈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다문화가족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설 및 사업들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들로 좀 더 즐거운 집콕 생활을 해보자.

#자연을 품은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

시흥에코센터는 1층과 2층 복도에 교육체험을 위해 자연의 편안함을 그대로 품은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을 설치했다.

지난 6월 시흥에코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가든은 큐브 형태의 실내형 정원이자 산호수, 테이블야자, 호야, 스노우 사파이어 등 공기정화 효과가 크고, 관리가 쉬운 식물로 구성됐다. 자동화 관리 기술을 이용한 온도, 습도, 향기, 물소리 등 다양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정원 유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유지관리가 매우 쉽다.

스마트 가든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식물을 통해 이용자들의 심신이 안정되고 우울, 피로,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흥 에코센터 방문객에게 스마트 가든을 힐링 감성 체험기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흥에코센터 이용 및 환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70-

4446-8900) 또는 홈페이지(<https://sh-ecocenter.or.kr/>)를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독서토론 리더 과정’ 운영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비대면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리더 과정’을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독서토론 리더 과정’ 프로그램은 독서토론 이론 강의 및 실습을 네이버 밴드, ZOOM 앱을 활용해 진행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 운영되며, 강의 종료 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깊이 있는 책 읽기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의 특성상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PC, 노트북, 스마트폰 등)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흥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 신설

시흥시는 지난 7월 6일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및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사업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로 이관해 담당 공무원이 맡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다. 시흥시는 2019년 4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90. 심청이와 흥부놀부

대화-아파트 컴퓨터에서



안진숙

민정 : 저기 오시는 분이 예전 우리 아파트 앞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맞아요?

은숙 : 맞아. 예전에 이 학교 선생님이셨다가 교장선생님으로 돌아오셔서 정년퇴임하셨어.

메이 : 걸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가요?

은숙 : 당뇨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 그래서 따님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해. 저기 옆에 있는 아가씨야.

메이 : 정말 좋은 따님이네요

민정 : 저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효녀 심청이처럼 착하네.

은숙 : 결혼도 얼마 남았는데 아빠 때문에 신혼집도 근처에 구했다고 해.

민정 : 요즘 사람들 효심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잘 보면 부모님께 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메이 :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은숙 :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

민정 : 맞아요.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부모님 안 모신다고 해요.

은숙 : 우리 아들들도 좀 걱정이긴 해. 큰 아이는 놀부처럼 욕심이 많아서 동생이 힘들어 해.

민정 :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숙 : 요즘은 흥부처럼 너무 착한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지.

민정 : 그래도 흥부처럼 한번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은숙 : 너무 큰 욕심만 부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심청이와 흥부놀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심청이는 효도를 하는 자식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흥부놀부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교훈 가르쳐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 속의 다양한 인물과 즐거리를 알아 두는 것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표현 - 심청이, 흥부놀부

- 그 분은 부모님을 향한 효도로 너무 유명해서 ‘효녀 심청’상을 받았어.
- 너는 마음 씩씩이가 놀부처럼 고약하구나!

한국의 옛 이야기 속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생각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의 전래 동화를 읽고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나 교훈을 잘 확인하고 배워서 생활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 - 효

한국인에게 효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문화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면 칭찬하고, 불효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합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걱정이 없도록 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장덕천 부천시장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지역정책 부문 본상 수상'

경제적 어려움 겪는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정 ... 보편적 인권 한걸음 앞서

장덕천 부천시시장에게 한국이주인권상이 전달됐다.

경기다문화뉴스 송하성 대표는 지난 7월 22일 부천시청을 방문해 장덕천 시장에게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지역정책 부문 본상 상패를 전달했다.

이 상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에서 개최된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장 시장이 바쁜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장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결단을 내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천시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부천시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 5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록 외국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은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과 부천시 지원금 5만 원이 더해져 1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외국인은 부천시 지원금 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언어별 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 언어별 상담 통역사를 고르게 배치해 행정을 세밀하게 했다.

장덕천 시장은 상패를 전달받은 후 환담을 통해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부천시에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율이 현재 70% 정도에 불과해 마음이 무겁다"며 "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작으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펼치며 지급에 박차를 가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21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4만2천287명 중 66.9%에 해당하는 2만8천283명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최종 지급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송하성 기자



"부천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범죄피해 예방 위해 함께 협력해요"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장병덕)는 지난 7월 15일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회장 김수경)과 '코로나 19'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지원 관련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병덕 부천오정경찰서장, 김수경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식 진행과 함께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30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회장 이취임 행사 시 화환 대신 쌀 32포를(100만원 상당) 지역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부천다사랑로타리클럽 김수경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기에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병덕 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다"며,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사각지대 발굴, 다문화가정, 이슬람예배소 방역 지원 등 다양한 치안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범죄피해 예방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과 삼계탕 나눔 ... 사랑도 나눠요"

부천다가 원미2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행사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와 원미2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 16일 초복을 맞이해 원미도시재생주민사업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삼계탕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맞벌이로 집에 혼자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더위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미2새마을부녀회장 등 회원 16명이 정성을 다해 삼계탕을 준비하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등 7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 8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삼계탕을 받은 한 다문화가족은 “무더운 여름에 직접 집으로 삼계탕을 배달해주어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보내주신 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초복 맛이 삼계탕을 만들어 준 원미2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부천다가, 요리교실 관련 협약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대표 이상미)와 지난 5월 18일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원활한 진행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주요리제과커피직업전문학교에서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진행할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같은 다문화가족들이 부천시에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는 삶이 따뜻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습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기관
서비스방식	내방, 전화, 출장, 이메일 등
서비스언어	중국어 / 베트남어
서비스기간	1월 ~ 12월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상담 요청 시 다언어 통역 • 행정 시업기관 이용 시 통역 • 무거 상담 시 긴급지원 통역 • 보건소,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 결혼 이민자 자녀 유치원, 입학장, 입학장 통번역 • 생활 상담, 구직 상담 통번역
신청방법	전화, 팩스 또는 내방 신청서 작성 • (070-4457-6106 (송고어) • (070-4457-6107 (베트남어) • 팩스번호 : 032-025-1371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 (원미동) • 다중교통 이용안내 - 지하철 : 호선 부천역(북부역) 4번 출구 - 0번도-7번 56번 2번 1번 013-2번 => 풍동이과도 하차 - 지하철 : 호선 소사역(북부역) 2번 출구 - 60번, 95번 => 소정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차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中國語

为了解多元文化家庭由于文化、语言、生活习惯等差异引起的不便及纠纷提供免费实时翻译服务。

服务对象	结婚移民者及厚庭成员
服务方式	内访, 电话, 出行
服务语言	中国
服务时间	1月 - 12月
服务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入国初期咨询及相关信息提供 • 家庭成员间的语言沟通翻译必要时可提供家访服务 • 利用行政 司法各种公共机关时的翻译 • 紧急情况时翻译服务 • 利用保健所, 医院等 弘文社 的翻译服务 • 提供幼儿园, 小学 家长通知单 翻译服务 • 其他生活, 就业 咨询及翻译
申请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电话及内访递交申请书 • 070-4457-6106 中国语翻译

Tiếng Việt

Chương trình nhằm giúp 45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những quan điểm khác biệt về sinh hoạt văn hóa, phong tục tập quán, ngôn ngữ, lễ nghi

Đối tượng	Phụ nữ có trẻ và gia đình
Cách sử dụng	Tại trung tâm, điện thoại
Ngôn ngữ	Việt Nam / Trung Quốc
Thời gian	Từ tháng 1 - tháng 12
Nội d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ười mới nhập cảnh, tư vấn, cung cấp thông tin trong sinh hoạt • Đa định nền văn hóa, ngôn ngữ khác biệt, tư vấn, thông báo dịch • Hành chính, thực thi pháp luật • Sử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nguy kịch, khẩn cấp • Y tế phúc lợi, tại bệnh viện • Dịch giấy thông báo của trường học, mẫu giáo cho con em gia đình kết hôn cư trú • Thông dịch cơ quan tư vấn • Tư vấn những vấn đề khác trong sinh hoạt như việc làm.
Cách đăng k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Điện thoại hoặc đến trung tâm • 070-4457-6107 thông dịch viên Việt Nam

다문화가족 자녀도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여름방학 참여해요

12개 부천시립도서관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콘텐츠 확대해 비대면으로 운영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칫 심심하기 쉬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보자.

부천시립도서관이 비대면 교양 강좌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에 따라 8월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시설이 운영 중지·축소함에 따라 도서관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식문화 공유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부터 다채로운 아동 강화를 포함한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줌(Zoom), 유튜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수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미도서관(부천동 소재)

원미도서관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초등 독서원예'를 운영한다. 8월 22일, 29일 토요일에는 초등 1~2학년을 위한 '창의톡톡 클레이'를 운영한다.

#상동도서관(상동 소재)

상동도서관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초등 5~6학년 대상 3회기 강좌 '경제야 놀자, 용돈이 뭐지?'를 운영한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수강하는 '생각 나무 생각 키우기'를 운영한다.

#심곡도서관(심곡본동 소재)

심곡도서관에선 8월 3일부터 7일까지 초등 3~6학년 대상 '북 캐릭터x북 웹툰' 강화를 운영한다. 8월 22일부터는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물조물 흙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부도서관(도당동 소재)

북부도서관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4회기 강화를 준비했다. 초등 1~3학년은 '고전소설로 배우는 한국사'를, 초등 4~6학년은 '스토리 세계사'를 신청할 수 있다.

#꿈빛도서관(중동 소재)

꿈빛도서관은 8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시민인문학 특강 '조희창의 클래식 인문학 - 250세 베토벤에게 묻다'를 개최한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도서교실을 운영한다.

#책마루 도서관(신중동 소재)

책마루도서관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 초등 1~2학년 대상 5회기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만나는 북아트'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에 초등 5~6학년 대상 '하브루타로 배우는 생각의 기술'을 운영한다.

#꿈여울 도서관(작동 소재)

꿈여울도서관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초등 3~4학년 대상 프로그램 '책이랑 만들기'를 운영하며,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초등 5~6학년 대상 강의 '세계건축 예술여행'을 운영한다.

#도당도서관(도당동 소재)

도당도서관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조물조물 클레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금 초등 4~6학년 대상 '내 손 안의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정도서관(오정동 소재)

오정도서관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강의 '차이나는 한국사'를 운영하고,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초등 3~4학년 대상 탐방 프로그램 '슬기로운 랜선탐방'을 운영한다.

#역곡도서관(역곡동 소재)

역곡도서관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초등 4~6학년 대상 '아동 역사논술교실'을 운영한다.

#사랑나무가족 작은도서관(신중동 소재)

사랑나무가족도서관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전! 방구석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말채향기 작은도서관(심곡동 소재)

진말채향기 도서관은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성인 대상 강좌 '살롱 드 진말 시즌3- 철학카페에서 시 읽기'를 운영하며,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ZOOM 교육'을 운영한다. 김영의 기자

<기고>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50일 자동연장,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피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sky3229@naver.com

코로나19 긴급재난을 맞이한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겨 이동에 발목이 묶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역시 3년이나 4년10개월 고용계약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 잠시 머물러 살던가 아니면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지난 4월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50일 자동 연장되면서 엉뚱하게도 생각하지 못한 피해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 출신의 M씨(남 25세)는 2017년 6월 14일에 입국하여 2020년 6월 14일이 3년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이에 고용주는 M씨를 재고용하기로 상호 합의

를 하고 2020년 6월 10일 재고용계약을 한 후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고를 마치고 관할출입국에 체류기간연장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미얀마 M씨는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며칠 요양을 하는 가운데 다른 직종을 찾아 이직을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관계자와 협의한 후 이직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21일 퇴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등록을 하려고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는데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8월 3일까지 1차 고용계약기간이기에 퇴사한 회사로 재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8월 3일 전에 출국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M씨는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울며불며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로 황급히 찾아와 고충상담을 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50일

간의 체류기간 자동연장으로 인해 1차 고용계약기간도 6월 14일에서 50일 연장된 8월 3일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미얀마 M씨는 재고용시작일이 2020년 8월 3일부터이기에 그 이전에 퇴사를 하면 출국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하는 수 없이 필자는 M씨가 근무하던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재입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다.

다행히도 회사가 이를 승낙해 M씨는 다음날부터 재입사를 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긴급재난으로 이민자들의 민원과 고통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कीरामी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मद्दत हुकु

स्वास्थ्य र स्वास्थ्य हेरचाह



03 स्वास्थ्य संस्था

1. विभिन्न प्रकारका स्वास्थ्य संस्था

स्वास्थ्य संस्थाहरुको आकार, चलाइने क्रम, दिने सेवा र दायराको आधारमा वर्गीकरण गरिन्छन। कम गम्भिर प्रकारका रोगहरु जस्तै रुघाखोकी, पाचनमा समस्या, आदिको उपचारको लागि क्लिनिक जानुपर्छ। यदि रोग निको भएन अथवा संवेदनशिल परीक्षण गर्नुपर्ने भयो भने साधारण अस्पताल वा पहिलो स्तरको अस्पतालमा उपचार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औषधी उपचार हेरचाह फाइदाहरुका चरणहरु	मुख्य	सहायक
औषधी उपचार गर्ने संस्थासंग सहकार्य	औषधी उपचार अभ्यास गर्दै गरेकाहरुका कार्यालयहरु तथा सार्वजनिक स्वास्थ्य केन्द्रहरु	उच्चस्तरिय साधारण अस्पतालहरु
औषधी उपचार	बिरामीलाई बाहिरै राखेर गरिने उपचार, खोप, स्वास्थ्य व्यवस्थापन	सघन जाँच, अनियमितता वा रोगको उपचार, स्वास्थ्य व्यवस्थापन
चिकित्सक संस्था	सार्वजनिक स्वास्थ्य केन्द्रहरु, ओरिएन्टल औषधी क्लिनिकहरु, आन्तरिक औषधी, बालरोग उपचार परिचारलाई औषधी, स्वास्थ्य परीक्षण केन्द्र	विशेष डिपार्टमेन्ट सहितका साधारण अस्पताल

• पहिलो स्तरको अस्पतालमा उपचार गर्दा, तपाईंले पहिलो स्तरको उपचार गर्ने डाक्टरको उपचारको रिपोर्ट बुझाएर स्वास्थ्य बिमाको उपभोग गर्न कानुन प्रावधान छ। डाक्टरको उपचारको रिपोर्ट बिना

पहिलो स्तरको स्वास्थ्य बिमाको उपभोग गर्ने भनेको आपतकालिन बिरामी, सुत्केरी, दाँतका बिरामी, पुनर्स्थापना, पारिवारिक बिरामी, र होमोफिलियाको उपचार गर्दा मात्र मिल्छ।
 • कोरियामा धेरै ओरिएन्टल (पूर्विय) उपचार क्लिनिकहरु छन, ती क्लिनिकहरुले विविध उपचार सेवाहरु प्रदान गर्दछन, जस्तै, एक्युपञ्चर, मोक्जा काउटरी तथा हर्बल औषधी उपचार।

2. उपचार क्षेत्र तथा उपचार विधा

अस्पताल वा क्लिनिक

क्लिनिक	क्षेत्र
आन्तरिक औषधी उपचार	शरीरभित्रका अंगहरुमा कुनो अपरेसन नगरी गरिने उपचार; पाचन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 (घाँटी, पेट आदि), फोक्सोको क्यान्सर, तथा मुटु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 रक्तनलीका रोगहरु, रक्तचाप, मधुमेह, आदि।
बाल रोग	18 वर्षभन्दा मुनिका बालबालिका तथा बच्चाहरुको हेरचाह र उपचा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छ, उमेर नपुग्दै जन्मिएका बच्चाहरुको हेरचाह, बच्चाहरुका रोगहरुको उपचार, एलर्जी तथा अन्य रोगहरुको उपचार
प्रसूति एवं स्त्री रोग	गर्भवस्था तथा प्रसूति तथा महिलाहरुका प्रजनन अंगमा हुने अनियमितताहरुको उपचारसंग सरोकार राख्छ
मानसिक स्वास्थ्य को लागि चिकित्सा प्रभाग	मानसिक रोगहरुको लक्षण देखाउने रोगहरुको उपचा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छ
स्नायुशास्त्र	स्नायु प्रणालि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 जस्तै हृदयघात, छारेरोग, दिमागले सोचन नसक्ने समस्या, नशामा पिडा हुने जस्ता रोगहरुको उपचा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छ।
पारिवारिक औषधी	उमेर, लिङ्ग जे भए पनि परिवारका सम्पूर्ण सदस्यको स्वास्थ्यमा ध्यान दिन्छ, र परिवारलाई एउटै एकाइ मानेर यसको सम्पूर्ण स्वास्थ्यमा जोड दिन्छ।
छाला रोग	छाला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को उपचारमा जोड दिन्छ; जस्तै: डन्डिफोर, कपाल झार्ने, घाउछट्टिआ आदि
सामान्य शल्यक्रिया	अपरेसन चाहिने रोगहरुको उपचार गर्न प्रयोग हुन्छ; जस्तै: एपेन्डिसाइटिस, संक्रमण, पाचन प्रकृत्याको अनियमितता आदि
हाडजोर्नी शल्यक्रिया	अस्थिपञ्जर प्रणालीमा आएका अनियमितताको उपचार गर्छ, साथै सम्बन्धित मांशपेशीको समेत यन्त्रहरुको माध्यमले उपचार गर्छ।
प्लास्टिक शल्यक्रिया	आँखाको ढक्कनलाई पुनः नयाँ आकार दिन, जलेको मांशपेशीलाई पुनः पहिलाको जस्तै पार्ने र शरीरलाई नयाँ आकार दिन तथा शरीरको कार्यक्षमता बढाउन प्रयोग हुन्छ।
पुनर्वास चिकित्सा	रोगसँग सम्बन्धित मांशपेशी, हाड, तथा स्नायु प्रणालीलाई पुनर्स्थापना विशेषज्ञ डाक्टर र फिजिकल थेरापिस्टको मद्दतले उपचार गर्छ
मूत्रविज्ञान	पिसाब नली, मिर्गौला एवम् मूत्र थैली साथै लिङ्ग तथा अन्डकोषमा देखिएका अनियमितताको उपचारसँग सम्बन्धित छ
नेत्र विज्ञान	आँखा र त्यसका स्नायु प्रणालीमा देखिने रोगहरुको उपचार गर्छ, आँखाले टाढाको मात्र देख्ने वा नजिकको मात्र देख्ने समस्याको पनि अपरेसनद्वारा उपचार गर्छ
कान, नाक र घाँटीको रोग	नाक, कान र घाँटी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को उपचार गर्छ
दन्त चिकित्सा	सडैका दाँतहरुको उपचार गर्छ, दाँत सोझ्याउने, पालिस गर्ने, दाँतका दाग हटाउने आदि कार्य गर्छ
आपतकालीन चिकित्सा	आपतकालिन अवस्थामा रहेका बिरामीको रोगको निदान र उपचारसँग सरोकार राख्छ

कीरामी जनजीवन सम्बन्धी मद्दत हु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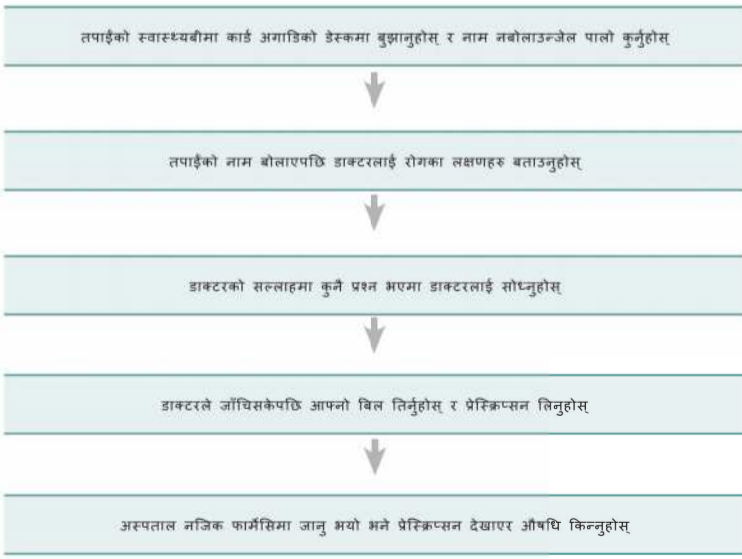
स्वास्थ्य र स्वास्थ्य हेरचाह

चाइनिज एक्युपञ्चर तथा हर्बल क्लिनिक, वा ओरिएन्टल मेडिकल क्लिनिक

क्लिनिक	क्षेत्र
आन्तरिक औषधी उपचारका बिभागहरु, स्त्रीरोग, बालरोग, आदि (ओरिएन्टल उपचारासहित आठवटा विषयहरु)	एक्युपञ्चर, हर्बल औषधिहरु तथा एशियामा शुभ्रभएका अन्य उपचारपद्ध

3. उपचार केन्द्र प्रयोग गर्ने तरिका

(1) पहिलो श्रेणीको अस्पताल प्रयोग गर्ने तरिका



(2) दोस्रो श्रेणीको अस्पताल प्रयोग गर्दा फरक हुने कुरा



4. आकस्मिक आपतकालिन अवस्थाको सामना गर्दा

• आपतकालिन औषधी र रुघाखोकी तथा फलुका निम्ति दुखाई कम गर्ने औषधीहरु घरमा राखेमा उपयोगी हुन सक्छन।
 • यदि तपाईंले 119 मा फोन गर्नुभयो भने तपाईंलाई नजिकैको अस्पताल पुर्याउन एम्बुलेन्स आउनेछ। तपाईंलाई आकस्मिक कक्षमा राखेर उपचार गरिनेछ। यदि तपाईं अपरेसन वा शारिरिक परिक्षणका निम्ति अस्पतालमा भर्ना हुनुपर्ने भएमा तपाईंले अस्पतालको कक्ष खाली नहुन्जेल पालो पर्छनु पर्नेछ।
 • तपाईंले अस्पतालको कक्ष पाएपछि अस्पतालको प्रकृत्या पालना गर्नुपर्नेछ।

जानी राखौँ

अस्पताल वा औषधी पसल जादा तपाईंको स्वास्थ्य बीमा कार्ड र परिचयपत्र बोकेर हिंड्नुहोस्

- आपतकालिन अवस्थामा ☎119 मा फोन गर्नुहोस्
- स्वास्थ्य तथा कल्याणकेन्द्र ☎129 (मोबाइल फोनबाट स एरिया कोड विचेपडि मात्र ☎129 थिच्नुहोस्)
- आपतकालिन उपचार सूचना केन्द्र ☎1339

Dành cho visa kết hôn **다문화가족 교육도 받고 취업도 도전해요**

한국정보화진흥원, 결혼이민자 60시간 무료 방문 정보화교육 활용하세요

따뜻한 디지털 세상,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방문 정보화교육

대상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 (가족 포함)
교육시간	60시간
교육내용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SNS 활용, 영상편집 방법 등
신청방법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www.itstudy.or.kr) 또는 정보화상담실(1588-2670)
교육비	무료

1:1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정보화교육 을 통해
디지털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HÀNG năm có hàng trăm nghìn người ngoại quố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diện kết hôn. Khi đến Hàn Quốc sẽ rất ngỡ ngàng với cuộc sống, phong tục, tập quán nơi đây và ngôn ngữ cũng là một rào cản lớn đối với chúng ta.

Đồng hành với việc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chúng ta phải tìm cho mình những sở thích phù hợp để có thể làm cho cuộc sống thêm đa dạng, phong phú và còn giúp phần cải thiện tâm lý, xả stress giúp bản thân có cuộc sống tốt hơn. Khi đã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ở nước ngoài, chúng ta sẽ muốn tìm cho mình một công việc thích hợp vừa để trang trải cho gia đình, vừa để góp phần thúc đẩy kinh tế cho đất nước và để bản

thân mình có thể phát huy được những năng lực mà mình vốn có.

Nhưng khi chuẩn bị xin việc chúng ta sẽ cần phải có những yêu cầu cơ bản để đáp ứng với các công ty hoặc tổ chức hướng đến. Vậy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cho mình những hành trang phù hợp chưa?

Tại Hàn Quốc, khi nhập cảnh bằng visa kết hôn, chúng ta sẽ được tài trợ các khoá học miễn phí tại nhà do viện thông tin hoá của Hàn Quốc tài trợ. Các giảng viên sẽ trực tiếp đến nhà để dạy 1:1 cùng học viên và gia đình của học viên để giúp chúng ta có nhận được khoá học đầy đủ và trọn vẹn nhất.

Trong 60 tiếng các bạn sẽ được học

khoá cơ bản về máy tính, tận dụng tối đa các tính năng của điện thoại thông minh, sử dụng tối đa các trang xã hội và các phương pháp biên tập hình ảnh v.v. Khi đã nắm chắc các nền tảng cơ bản cần thiết trong công việc cùng với sự thông minh và năng lực vốn có của bản thân thì vấn đề tìm việc làm sẽ trở nên dễ dàng hơn cho bất kì ai. Vậy thì chúng ta còn do dự gì nữa mà hãy liên hệ đến số 1588-2670 để được tư vấn trực tiếp hoặc vào trang web www.itstudy.or.kr để được nhận khoá học miễn phí của cơ sở 한국정보화진흥원 nhé các bạn!

Mỗi năm rất nhiều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diện kết hôn. Khi đến Hàn Quốc sẽ rất ngỡ ngàng với cuộc sống, phong tục, tập quán nơi đây và ngôn ngữ cũng là một rào cản lớn đối với chúng ta.

Đồng hành với việc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chúng ta phải tìm cho mình những sở thích phù hợp để có thể làm cho cuộc sống thêm đa dạng, phong phú và còn giúp phần cải thiện tâm lý, xả stress giúp bản thân có cuộc sống tốt hơn. Khi đã thích ứng với cuộc sống ở nước ngoài, chúng ta sẽ muốn tìm cho mình một công việc thích hợp vừa để trang trải cho gia đình, vừa để góp phần thúc đẩy kinh tế cho đất nước và để bản

thân mình có thể phát huy được những năng lực mà mình vốn có.

Nhưng khi chuẩn bị xin việc chúng ta sẽ cần phải có những yêu cầu cơ bản để đáp ứng với các công ty hoặc tổ chức hướng đến. Vậy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cho mình những hành trang phù hợp chưa?

Tại Hàn Quốc, khi nhập cảnh bằng visa kết hôn, chúng ta sẽ được tài trợ các khoá học miễn phí tại nhà do viện thông tin hoá của Hàn Quốc tài trợ. Các giảng viên sẽ trực tiếp đến nhà để dạy 1:1 cùng học viên và gia đình của học viên để giúp chúng ta có nhận được khoá học đầy đủ và trọn vẹn nhất.

Trong 60 tiếng các bạn sẽ được học

khoá cơ bản về máy tính, tận dụng tối đa các tính năng của điện thoại thông minh, sử dụng tối đa các trang xã hội và các phương pháp biên tập hình ảnh v.v. Khi đã nắm chắc các nền tảng cơ bản cần thiết trong công việc cùng với sự thông minh và năng lực vốn có của bản thân thì vấn đề tìm việc làm sẽ trở nên dễ dàng hơn cho bất kì ai. Vậy thì chúng ta còn do dự gì nữa mà hãy liên hệ đến số 1588-2670 để được tư vấn trực tiếp hoặc vào trang web www.itstudy.or.kr để được nhận khoá học miễn phí của cơ sở 한국정보화진흥원 nhé các bạn!

다문화가족 여가생활, Молодеж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егодня посвящу статью одному сайту,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ен мног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Скоро наступят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и многие родители начнут беспокоиться чем же занять своих детей. Ведь охота, чтобы дети не только весе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с друзьями, но и зани

мались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м, которое так ценитс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Молодеж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это именно то место, которое поможет вам справиться со всем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Центр,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ует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второй десяток лет,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звитие здоров

ой молодежи с помощью различных тренингов, программ и лекций. Целью является подарить детям радость участия, новый опыт, разные эмоции и обретение новых друзей.

Центр постоянн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овые проекты,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эмоциональное здоровье детей и развитие разносторонности. Поэтому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программ для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как например, экокемпинг),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для развития личностных качеств, для оздоровления в загрязненной среде и т.д. Молодеж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многодневное (обычно 2-х или 3-х дневное) обучение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го и подросткового возраста. Кроме этого, доступны многодневны

е выпускные поездки и корпоративное обучение. Программы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 начиная от морского рафтинга, коман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нятий на пляже и заканчивая скалолазанием и выживанием. Я думаю, это схоже со скаутским движением.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тоже заключалось в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достижении их полного физическо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ак личности. Так как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программах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 то семьям с любым достатком 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Со всеми программами,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центром,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мом сайте www.ggyu.kr.

올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피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외국인주민, 3시간 기다리고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접수 못해

1시간 30분 이상 대기 기본에 외국인주민 분통, 서버용량 증설은 미적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가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도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주민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귀화신청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사전평가를 거쳐

각 단계 교육과정에 참여한 뒤 단계별 평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의 상당수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신청접수의 어려움으로 악명이 높다.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는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지정된 기간에 접수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약 2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제9차 사전평가 접수'의 경우에도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접속했으나 '앞에 대기자가 5751명, 뒤에 대기자 58명이 있으며 예상대기시간이 1시간 35분 51초'라는 안내가 뜬 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1시간 35분을 기다린 뒤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대기 중에 로그인 최대 가능시간 5분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야 한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외국인주민들이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다가 다시 5분이 지난다. 그러면 또 다시 1시간 30분을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대기하다가 사전평가신청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동포 A씨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신청하려고 수개월 동안 3차례나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서버 용량 증설이다. 평가를 받는 모든 외국인주민들이 1회 3만원씩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민재단 측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이민재단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뒤 접속자 수와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서버용량 증설을 한 바 있으나 추가 증설은 예산 및 내부 문제로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받기 원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동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해도 1만명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동시 접속자 1만명을 해결하지 못해 외국인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동서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주민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아 당연히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평가 비용을 받는 기관이 2시간씩 기다리는 외국인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며 서버 증설에 미온적인 것은 외국인주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어려움 극복하기 '이민자 사업가 초청 간담회'

경기글로벌센터, 사업 다변화 '이민자사업가네트워크모임' 추진



코로나19 재난 사태에 국내에서 무역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이민자 사업가들 역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가족이 있는 이민자 사업가들도 한국인들과 똑같이 코로나 긴급재난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론 각종 지원정책에서는 배제된 상태이다.

이민자 사업가들은 국내에서 무역사업이나 기타 제조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긴급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 이

민자란 이유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그림의 떡이 됐다.

이러한 상황을 이민자 고충 현장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민자 사업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 CEO들을 초청하여 이민자 사업가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이민자 사업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송인선 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민자 사업가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여 국내 다양한 수출공산품 정보를 개발 공유하고 나아가 이민자 사업가 모국의 공산품 정보도 공유하여 수입을 다변화하고 상호무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과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과 진로 동기부여!

오산건강가정, 드림키움 프로젝트-학습유형 워크숍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7월에 센터 교육실에서 미래설계 프로그램 “드림 키움 프로젝트-학습유형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령기 자녀의 학습유형 검사와 기타 활동을 통해 학습동기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 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령기 자녀의 학습유형 검사 및 해석, 워크숍(꿈의 부채 만들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등), 직업탐색 교육 등에 참여했으며 부모 역시 개별 상담을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유형 분석 및 코칭을 통한 미래설계에 도전하고 자녀의 학습동기를 새롭게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을 위한 교육도 4회 이상 실시해 효과를 높였 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오산문화재단, 여름방학특선 ‘ON:택트 Stage’공연 선보여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조요한)은 코로나19 확산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여름방학 특선 ‘ON:택트 Stage’ 기획공연을 네이버TV 오산문화예술회관 채널에 선보인다.

재단은 지난 6월과 7월, 강화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관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문화도시오산 이음힐링콘서트 유희스카’와 ‘리틀뮤지션’의 총 2개의 공연을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번 ‘ON:택트 Stage’ 공연은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무관중으로 녹화를 진행해 네이버TV 오산문화예술회관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인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D’, ‘연극 수상한 집주인’, ‘국악 가족뮤지컬 감치傳’ 등 3개 공연과,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인 ‘정형일 Ballet Creative’의 ‘Swan Lake : The Wall’ 1개 공연으로 총 4편이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D’는 루이스 캐롤의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입체영상에 녹여낸 작품으로 익숙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가 어린이 특유의 무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8월 10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 도움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등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가기관 모집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증진 시키고 아동의 의사 표현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2020년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가기관을 모집한다.

오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점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예방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세부일정 협의 후 조정된다. 오산시 관내 만 4세이상 유아 및 초.

중, 고교생 대상이며 이메일(happycenter@empas.com) 접수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osan.familnet.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심리정서지원 등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만 9세~24세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이다.

교육은 8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한국어교육, 특성화(한국문화 이해교육, 요가) 등이 진행된다. 전화(070-4336-1406)로 상시접수 받는다.

#결혼이민자 모국어강사 양성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결혼이

민자 취업교육지원사업인 ‘모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모국어강사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언어별 특성 및 해당 국가의 문화소개법과 모국어(외국어) 교수법을 지도하여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희망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강사의 자기소개법 ▲언어별 나라 소개법, 특징 소개 ▲인사말, 숫자, 문자 교수법 ▲단원별 학습법 ▲어린이 언어 교수법 ▲스피치 등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 시간에는 시강 및 수료식도 진행한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청 031-8036-8036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72-1335 행복한이주민센터 031-374-5554 나눔과비움 070-8891-863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00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24-980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Скидка на стоимость EMS’ 다문화가족 EMS 배송비 할인받기

모국 소포발송 증가, 결혼이민비자 가지고 서류 제출하면 비용의 10% 할인



Как часто вы отправляете посылки в родную страну?

А при усло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навестить Родину в любое время?

До прекращ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полётов из Кореи, я не часто отправляла посылки - практически раз в год. Поэтому меня не сильно волновала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и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Но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я стала постоянным гостем в районном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С учетом отправок и посылок раз в два месяца, стоимость доставки посылок влетало в копеечку. Поэтому я стала искать информацию как можно сэкономить на стоимости отправки зарубеж. Наверное,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чем тяжелее посылка, тем относительно дешевле выходит отправка. Так, при отправку в Россию посылку весом 2 кг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заплатить 51 000 вон, 5кг - 80 500 вон, а 10 кг - 128 500 вон. Следуя

этой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мне намного выгоднее отправлять как минимум 5 кг сразу.

Но, как вы знаете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программ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Не обошло стороной и отправки посылок к зарубеж для таких семей.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 э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10%-процентной скидки на стоимость отправки EMS в родную страну. Не правда ли, неплохая помощь? Возможность сэкономить даже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вон поднимет настроение любому человеку!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это наличие брачной визы (F-6, F-6-1, F-6-2, F-6-3).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в вашей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е (외국인등록증) должно быть указано именно **결혼이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кидку на отправку посылки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составе сем

ьи (가족관계증명서),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주민센터, и свою ID-карту (외국인등록증).

Возможно, сроки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этому желательно заранее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в ближайшем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по телефону, либо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Как оказывается, существует еще больше программ и помощи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чем мы думаем. Особенно радует больш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грамм, разработанных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모국으로 소포를 얼마나 자주 보내세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운행이 중지되기 전에 저는 거의 소포를 보내지 않았습니. 따라서 운송비용 및 기타 요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 저는 지역 우체국 단골손님이 되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소포를 보내기 때문에 배송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내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소포는 무거울수록 비용이 조금씩 저렴해 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2kg 무게의 소포를 보낼 때는 51,000원이지만, 5kg은 80,500원, 10kg은 128,500원 입니다. 이 패턴에 따라 한번에 5kg 이상을 보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용하면 더 좋겠지요. 물론 국제 소포에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MS로 모국에 소포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결혼이민비자(F-6, F-6-1, F-6-2, F-6-3)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정확히 결혼이민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마도 기간은 경기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 시에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서 기쁩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오산시, 속초해수욕장 찾는 시민에 물놀이 용품 무료 대여해요

다문화가족도 무료로 ‘속초해수욕장 오산시민 행복서비스’ 이용하세요



오산시(시장 박상욱)는 지난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오산시민에게 파라솔 등 물놀이 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속초해수

욕장 오산시민 행복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한 오산시민은 해수욕장 내 위치한 행정지원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튜브와 파라솔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오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산시 공무원들이 직접 대여 부스를 운영하는 대신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서비스를 운영, 예산절감을 통해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을 늘렸다.

이용석 오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올해 속초해수욕장 오산시민 행복서비스는 작년보다 긴 21일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여 물품 소독 등 방역도 철저히 실시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하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오산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자매도시 속초시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준비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속초해수욕장에 들러보자.

한편, 속초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오산시민들은 해수욕장 내 행정지원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장과 샤워장 무료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자치행정과(☎031-8036-7103)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상담으로 해결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로 개인, 부부상담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이던 사회복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한다. 하지만 시설별 외부인 출입 관리와 이용자 열 체크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대면상담은 쉽지 않다.<사진은 파주건가다가의 부모교실 프로그램>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 파주건가다가)는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순간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

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 시간적인 신속성과 사건의 응급성 그리고 익명성 존중 면에서 장점이 큰 전화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위기상황에서의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나, 과도한 불안은 몸과 마음을 소진해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싶지만,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남과 면담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족 간의 성격 차이로 갈등 관계에 있거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지친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화 상담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가중된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 격리된 상태로 인한 마음의 고통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상담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파주시민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팀 031-949-9162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파주형 민간협력 일자리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도 일자리 도전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타개하고자 시 자체 특성화사업으로 '파주형 민간협력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희망일자리 사업(공공일자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시에서 인턴기간(3개월) 인건비를 보조해 참여자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습득 후 정규직 채용과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시 거주자로 모집인원은 24명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파주시가 별도로 채용해 민간업체와 매칭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참여자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며 시급 8,500원(최저임금)과 주차·월차수당, 부대비 등 인턴기간의 인건비는 파주시가 지원한다.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파주형 민간협력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강기애이사랑 부모학교

처음이라 배웁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유명강사 특강

2020. 8. 21(금) ~ 11. 13(금)
매주 금요일 밤 10시

<p>오전 10시 Live 8월 21일/28일</p> <p>노규식 원장 [장래를 키우는 부모의 욕망]</p>	<p>9월 4일</p> <p>김현수 교장 [오늘 아이를 이해하고 잘 돌보는 법]</p>	<p>9월 11일/18일</p> <p>박상미 교수 [나를 믿어주는 한사람의 힘] [정소년/학부모 고민상담소]</p>	<p>9월 25일</p> <p>이인오 대표 [세우자 알고 상생의 대회는 가능한가?]</p>
<p>10월 16일/23일</p> <p>정지훈 교수 [나의 이야기 만날 때] [미래의 학교, 미래의 교육]</p>	<p>10월 30일</p> <p>우명훈 소장 [가문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p>	<p>11월 6일</p> <p>최민준 대표 [아사와 아들은 처음이지?]</p>	<p>11월 13일</p> <p>이유남 교장 [자녀의 잠재력과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p>

- 매주 금요일 10시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 **에서 만나요**
*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알림신청을 하시면 특강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특강에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
- 특강참여방법
1. 특강 전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질문**을 해주세요! (특강 방향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forms.gle/2W4HJ3WajyJomW7GR9>
2. 오전 10시 **실시간 강의**(8월21일, 8월28일)시 **댓글로 질문** 또는 **소통**을 해주세요!!
- 관련문의
아름다운사람들 010-8970-0355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4406

2020 맞벌이 가정을 위한 무료노무상담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직장내 고충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전문 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 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대 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엄마, 아빠 및 그 가족**

사업기간: 2020년 2월 ~ 11월

접수방법: 평일 9시 ~ 18시 전화접수
(점심시간 12시 ~ 13시)

※ 선착순 접수이며 매월 12건 진행됩니다.

연 락 처: 031-949-9161~4

내 용: **노동법률 전반**
(임금체불, 체당금,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재보상, 육아휴직, 부당해고 등)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Sistem Jaminan Sosial Republik Korea

나. 4대 사회보험제도

4 Jenis Asuransi Sosial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노후·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미리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는 ①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②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또는 질병보험), ③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④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등 크게 네 가지 종류로,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Sistem Asuransi Sosial sebuah sistem yang mempersiapkan sejak dini apabila rakyat mengalami resiko sosial seperti hari tua, penyakit, cacat, pengangguran, kematian, dan juga untuk menjamin kesehatan dan pendapatan rakyat. Permasalahan sosial seperti yang disebutkan di atas adalah penyebab yang dapat membuat kehidupan perekonomian anggota masyarakat dan keluarganya menjadi tidak stabil.

Hukum Dasar tentang Jaminan Sosial Pasal 3 Nomor 2 menyebutkan "asuransi sosial berarti sistem untuk menjamin kesehatan dan pendapatan masyarakat dengan jalan memberikan jalan keluar dalam asuransi untuk mengatasi risiko yang muncul dalam masyarakat"

Sistem asuransi sosial asuransi Republik Korea adalah ①Asuransi Kompensasi Bencana Kerja adalah bencana yang terjadi di tempat kerja, ②Asuransi Kesehatan (Asuransi Penyakit) untuk penyakit dan cedera, ③Asuransi Pensiunan untuk penyakit paru-paru, kematian, pensiun, ④Asuransi Tenaga Kerja untuk saat kehilangan kerja yang secara garis besar terbagi empat jenis, yang biasa disebut “Empat Asuransi Sosial Besar”.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과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Dari keempat asuransi tersebut, untuk asuransi pekerjaan dan asuransi kecelakaan industri diperuntukkan khusus para pekerja sebagai obyek asuransinya. Sedangkan untuk asuransi dana pensiun dan asuransi kesehatan diperuntukkan bagi warga negara Korea itu sendiri dan juga warga negara asing yang memenuhi persyaratan tertentu.

▶ 국민연금

Dana Pensiun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시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은퇴·사망·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특수직 종사자(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사업장, ②근로자, ③개인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국인 포함)는 사업장을 통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나 개인은 지역단위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Pensiun Nasional adalah sistem pesiun yang preminya disetor selama masih aktif bekerja dan mendapatkan penghasilan, dan kemudian dibayarkan saat pembayar berhenti bekerja, meninggal atau menjadi cacat sehingga tidak dapat bekerja untuk mendapatkan penghasilan di mana pembayaran diberikan kepada yang bersangkutan atau keluarga yang ditinggalkan agar dapat melanjutkan kehidupan mereka.

Target dari peserta asuransi dana pensiun adalah semua warga negara Korea, kecuali yang memiliki pekerjaan khusus(tentara/pegawai negeri/karyawan sekolah swasta) yang berusia lebih dari 18 tahun dan kurang dari 60 tahun yang dikategorikan dalam 3 kategori ①Pemilik usaha, ②Buruh, ③Perorangan pribadi.

Bagi para pekerja yang memiliki kewajiban dana pensiun, harus mendaftarkan dirinya melalui perusahaannya masing-masing. Sedangkan untuk pekerja atau perorangan pribadi lainnya, dapat mendaftarkan dirinya ke pusat dana pensiun di daerahnya masing-masing.

▶ 건강보험

Asuransi Kesehatan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국내 거주 국민, ②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③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

용을 신청한 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stem Asuransi Kesehatan Nasional adalah sistem yang dirancang untuk mencegah beban berlebihan pada rumah tangga karena jumlah biaya pengobatan yang terlalu besar karena sakit atau cedera dalam kehidupan sehari-hari merek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adan Asuransi Kesehatan Nasional Republik Korea) mengelola uang asuransi yang dibayar oleh masyarakat dan akan mengembalikannya ketika ada yang memerlukan biaya untuk pengobatan.

Sebagai asuransi masyarakat, asuransi kesehatan ini berdasarkan pada solidaritas bersama untuk menyelesaikan permasalahan berkaitan dengan biaya pengobatan. Biaya yang dibayarkan untuk asuransi kesehatan berbeda-beda sesuai dengan besarnya penghasilan seseorang. Akan tetapi, terlepas dari jumlah yang dibayarkan, asuransi ini memberikan tingkat kontribusi yang sama.

Apabila ada seseorang yang masuk ke dalam salah satu kategori berikut mendaftarkan diri ke Badan Asuransi Korea untuk mendapatkan fasilitas yang tersedia oleh sistem asuransi kesehatan tersebut. Kategorinya antara lain : ①Warga Korea yang tinggal di Korea, ②Warga asing yang memenuhi persyaratan tertentu, ③Warga Korea di luar negeri yang memiliki alamat di dalam negeri.

[참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관련 문의 사항

국민연금공단 : 콜센터(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콜센터(1577-1000) 홈페이지 nhis.or.kr

[Referensi] Informasi Lanjut tentang Pendaftaran Dana Pensiun dan Asuransi Kesehatan Untuk pertanyaan lebih lanjut, dapat menghubungi Call Center (Hari kerja, jam 8 pagi sampai jam 7 malam) atau website dari Korea National Pension Center d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ational Pension Center : Call Center (1355 tanpa kode negara) atau homepage www.nps.or.k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Call Center (1577-1000) atau homepage nhis.or.kr

▶ 산업재해보험

Asuransi Kecelakaan Kerja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훼손 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데, ①장해급여, ②유족급여, ③휴업급여, ④상병보상연금, ⑤간병급여, ⑥요양급여로 나뉩니다.

Yang dimaksud dengan kecelakaan kerja adalah cedera, penyakit, gangguan, atau kematian yang diakibatkan oleh kecelakaan saat bekerja. Asuransi Kecelakaan Kerja memberikan santunan pada kerugian yang demikian kepada pekerja. Bantuan utama yang diberikan adalah ①dana atas gangguan yang diderita, ②dana untuk keluarga duka, ③dana istirahat kerja, ④dana perawatan, ⑤dana perawat dan ⑥dana pemulihan.



[참고] Referensi

"여름철 집중호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파주시, 태풍피해 등 농촌 지역 관리 당부

파주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간 강우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포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집중호우·태풍피해 사전대책으로 과수원의 경우 배수로를 정비해 습해를 예방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하거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해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

고추 등 노지채소의 경우 지주대를 보강해 태풍으로 인한 쓰러짐을 방지하고 피복한 비닐류가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에 대비해 하우스를 밀폐시키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시켜야 한다. 비닐류를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사전에 비닐을 미리 제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과수원의 경우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잘라낸 후 약제를 발라주고 흙이 유실돼 뿌리가 밖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빨리 흙을 덮어 정비해야 한다. 침수된 과수원은 휴양금을 씻어주고, 낙과된 열매와 유입된 흙을 제거해 과수원 내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농작물이 약해진 틈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하며 과수의 경우 겹무늬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과 고추, 수박 등 노지채소에서는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제에 힘써야한다.

농경지 주변 농수로를 보수하거나 시설하우스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 작업을 실시 할 경우 고압전선 접근 금지, 산사태 위험 대비, 낙뢰 위험시 신속한 대피, 홍수 발생 시 다리 및 하천도로 안전하지 여부 등을 철저히 인지한 후 작업해야한다. 문의 ☎ 031-940-4912

이지은 기자

비대면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법원도서관, 다문화가족도 도서관에서 다시!

파주시 법원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독서활동을 통해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여름독서교실과 여름방학 독서체험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저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독서체험활동 '도서관으로 간 마리모 친구들'은 참여자에게 체험키트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도서 읽기 ▲독후감상문 쓰기 ▲마리모 여행 만들기 ▲독후감상문과 체험키트 완성작 법원도서관 네이버 밴드에 올리기로 구성되었다. 초등 고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4일~8월 12일까지 여름독서교실 '내방 1열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을 진행한다. 장기간 집안에서 생활하며 지

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과 접목한 독서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견학 ▲정보활용교육 ▲책읽기 ▲아쿠아액자 만들기 ▲피포페인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자에게 독서활동지와 체험키트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한 것이 인증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참여자 1명을 선정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상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명희 파주시 중앙도서관장은 "코로나19 확산여부와 관계없이 독서활동이 지속되도록 비대면 독서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문화적으로 고립된 시민들이 독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열악한 가정, 주거환경 개선 앞장

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택 주변 청소도 실시했다.

한편 고양지사에서는 지난 5~6월에도 코로나19로 농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1000여평의 밭에 고구마 심기, 3만평에 이양할 모판나르기 등의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문세동)는 지난 17일 파주시 조리읍 취약계층 농가에서 농촌 집 고쳐주기와 전기안전점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지사 직원 10여명은 해당 농가의 주방 싱크대와 외벽 보수, 누전차단기와 낡은 가전제품 누전여부를 점검하고 주

문세동 지사장은 "오늘 우리 직원들의 농촌 집 고쳐주기와 전기안전점검으로 조금이나마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기를 바라며, 고양지사는 앞으로도 농어촌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가족상담 지원사업

- ▶ 진행기간 : 2020년 1월 ~ 12월
- ▶ 상담대상 : 상담이 필요한 파주시민
- ▶ 상담내용 : 개인, 부부 및 부모-자녀, 가족상담
- ▶ 상담장소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파주시 평화로 129)
-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야간상담 수 3:00~21:00
- ▶ 상담비용 : 무료(신청·진행 시 및 031-949-9162)

상담 신청방법

- ▶ 상담명의로 전화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 ▶ 상담시간과 상담주기에 따라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 상담은 개인 신청과 부부 및 가족 10명까지 진행
 - 상담 신청 2회까지 자동종료
 - 상담종료 후 6개월 뒤 재신청 가능합니다.

☎ 031-949-9162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다문화가족도 저렴한 가격으로 장보기에 나서보자.

파주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 '파주시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형 소비자 확보를 통한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 제공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일 토요일에 처음 열렸다.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파주지역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오이, 토마토, 옥수수, 감자 등의 농산물을 시중보다 10~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신항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농업이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포도뉴스



군포에서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족 없도록!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020년 3차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자조모임’을 레인보우카페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활동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관련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센터 측은 7월 가족사랑의날 활동으로 천연제품(모기퇴치제 및 버물리)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사랑의날은 코로나19로 인해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각 가정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여 다문화가족 7가정, 맞벌이 12가정 등 총 30가족이 참여했다.

이지은 기자

문화예술공연으로 활력 높여요 다문화가족 등 시민 대상 공연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문화예술 공연들이 8월, 군포시민들을 찾아온다. 군포문화재단은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8월 기획공연 및 전시를 공개했다. 관람료를 내야 하지만 수준 높은 작품들을 부담 없이 즐길 기회다.

8월 준비된 작품은 ▲뮤지컬 <빨래>가 8월 7일과 8일 이틀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서 공연된다. 공연시간은 8월 7일 오후 8시, 8월 8일 오후 2시와 6시30분이다. 입장료 2만원. ▲브런치클래식 <베토벤의 보석상자> III. ‘베토벤과 함께 춤을’은 8월 20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공연된다. 입장료는 1만5,000원.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Cool Summer Classic은 8월 22일 오후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장료 2만원)에서 ▲Rock & 樂 Concert Vol.33 에피톤 프로젝트는 8월 22일 오후 7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입장료 5만원)에서 각각 공연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공연기획팀(031-390-350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되는 군포 지역사회 다양한 소식 3가지'

동화구연 자조모임 모집,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내체육시설 재개방 등 기억해요

동화구연 자조모임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다가온 동화구연 자조모임’을 참여자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우리 자녀를 위한 엄마표 동화구연 전문교육과 지역 주민 학부모 자조모임 참여자 대상이며, 군포시 거주 학부모 10명 이하 소규모그룹(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운영한다.

동화구연 교육과 자조모임 활동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뤄진다. 활동 장소는 다가온 2층 프로그램실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정 후 시작된다. 신청은 전화(다가온 070-4279-4079/센터 031-392-1811)로 받는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8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안의 계도기간이 8월 2일로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초등학교 정문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며, 신고자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을 경과한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통과(031-390-05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3일부터 재개방

군포시는 코로나19로 휴관중인 관내 실내 공공체육시설들을 8월 3일부터 다시 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된 시설은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제1,2,3 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

턴장, 그리고 송죽다목적체육관이다. 이번 개방은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이다. 단, 군포시민과 군포시 체육단체, 산하단체에게만 개방되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된다.

군포시는 “이들 체육시설 이용객들은 입구에서 전자출입명부나 시 자체 출입명부시스템을 거쳐야 한다”며, “타인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체육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개방된 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등 고위험시설은 계속 휴관한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관내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7월 27일부터 재개방했으며, 휴관중인 체육시설들은 코로나 19 상황 추이에 따라 단계적 재개방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문화체육과(031-390-07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군포시청 031-392-3000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95-1811 아시아의창 031-443-287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군포택틴내일(아동 청소년 관련 상담) 031-393-4141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군포 관할) 031-463-07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심심한 여름방학?" 다문화가족도 도서관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해요

군포시 도서관, 방학 맞은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여름방학이 됐어도 무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자.

#청소년 북큐레이터가 선정, 유튜브 통해 시청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된 청소년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운영한다.

온라인 북큐레이션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 청소년 북큐레이터가 선정한 책을 사서 및 강사가 직접 녹음해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런 방식은, 전시를 통해 도서를 만나는 기존의 북큐레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되었다.

현재 군포시도서관 유튜브에 게시 중인 온라인 북큐레이션은 올 연말까지 매달 다른 도서의 소개 동영상을 제공하며,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쉽게 이동한 후 시청이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은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9월에는 특별강사의 동영상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구 중앙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코

로나19로 중단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독서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중앙도서관 (031-390-88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서관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 유튜브 홈페이지로

군포시 산본도서관은 청소년이 가정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비대면 강좌인 '도서관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을 운영한다.

이 강좌는 특수분장사, 북 디자이너, 화학공학연구원, 건축가, 로봇, 패션디자이너 등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직업군을 선정해, 직종 소개에서 직업체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

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도서관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은 운영기간 동안 군포시도서관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산본도서관은 또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7월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강좌의 실습교재를 담은 재료 꾸러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본도서관 최명수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잃지 않고 진로체험 강좌를 통해 자신들이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unpolib.go.kr)나 산본도서관(031-390-88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Vấn đáp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xin và thay đổi visa của người di trú kết hôn

Đạo gần đây có nhiều câu hỏi của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đặt ra liên quan đến việc xin hoặc là thay đổi visa. Chúng tôi đã lắng nghe những tâm sự của những người đang sống ở hàn quốc và họ đang gặp phải những khó khăn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tại đây. Sau đây là ông Song In Seon đại diện trung tâm Global Gyeonggi sẽ trả lời những câu hỏi này

Câu hỏi 1: Tôi là người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hiện có visa F5 (cư trú vĩnh viễn) tôi theo học tại hàn quốc, đi làm, kết hôn, sinh con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tôi ở đây đã được 10 năm. Hiện tôi đang có em bé 10 tháng tuổi, tôi đã bảo lãnh bố mẹ tôi sang đây và hiện tại bố mẹ đang phụ giúp tôi công việc chăm sóc em bé.

Tuy nhiên visa của bố mẹ tôi là loại visa du lịch có thời hạn chỉ 3 tháng. Bố tôi sang đây 3 tháng xong quay trở lại thì lúc đó mẹ tôi sang. Cứ theo chu trình như thế này bố mẹ tôi thay phiên nhau sang phụ giúp tôi. Với tư cách là người mang visa F5 cũng giống như người Hàn, tôi hi vọng có thể bảo lãnh bố mẹ tôi sang theo visa dài hạn. Liệu có phương pháp nào không?

Trả lời 1: Vâng đây là hiện thực đáng tiếc. Những vấn đề như vậy, thậm chí là đối với người kết hôn di trú đã có quốc tịch, đã có chứng minh thư tên hàn rồi nhưng lúc bảo lãnh bố mẹ thì cũng gặp vấn đề tương tự. Gần đây có một người thuộc dạng cô dâu kết hôn di trú , cô này có sức khỏe không tốt nên muốn bảo lãnh mẹ ruột sang theo visa dài hạn những không được cấp visa nên đang khởi kiện lên tòa án tối cao địa phương. Nhưng thật đáng tiếc lần 1 bị thua kiện nên cô này đã kháng cáo và hiện đang chờ phán quyết lần 2 tại tòa án cấp cao hơn. Đây là vụ khởi kiện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đoàn tụ gia đình nên chúng tôi đang mong chờ phán quyết

từ phía tòa án, tùy theo phán quyết của tòa án mà lúc bảo lãnh bố mẹ thì thời gian được cấp visa dài hay ngắn được quyết định. Mong các bạn hãy kiên nhẫn đợi và dõi theo sự việc này. Xin cảm ơn.

Câu hỏi 2: Mẹ tôi hiện sống tại Hàn quốc đến nay đã được 7 năm, năm nay bà 60 tuổi, bà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và hiện đang có visa F6, từ visa F6 mẹ tôi đang có nguyện vọng xin visa cư trú vĩnh viễn. Tuy nhiên do tuổi cao nên cho dù học tiếng Hàn đã được 7 năm những mẹ t ôi vẫn chưa thể đỗ. Người kết hôn với mẹ tôi – chồng mẹ tôi năm nay 70 tuổi, nếu mẹ tôi không có visa cư trú vĩnh viễn thì sau này khi chồng bà mất, mẹ tôi sẽ phải trở về Trung quốc. Tôi hiện có quốc tịch Hàn nên không thể ở lại Trung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để chăm sóc mẹ tôi. Nên tôi muốn hỏi về phương pháp có thể xin visa F5 trong những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Câu trả lời 2: Tại Hàn quốc, điều kiện cơ bản để có thể xin visa cư trú vĩnh viễn là ngôn ngữ và khả năng tài chính. Từ ngày 18/12/2018 thì chế độ thực thi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được thi hành và để có thể được cấp visa cư trú vĩnh viễn thì bạn phải đỗ kì thi đánh giá tổng hợp để cấp bằng cư trú vĩnh viễn củ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Cũng có những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được miễn thi tuy nhiê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uổi cao thì đây không phải là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uy nhiê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ủa mẹ bạn là người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và hiện đang sinh hoạt hôn nhân nên sau này nếu chồng có mất thì mẹ bạn vẫn được duy trì tư cách cư trú của người kết hôn di trú nên bạn không cần phải lo lắng nhiều.

Câu hỏi 3: Tôi hiện có visa cư trú vĩnh viễn và sống tại Hàn đã được 10 năm. Tôi hiện đang kinh doanh cửa

hàng karaoke tại Hàn quốc. Hiện tôi đang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về kinh tế do ảnh hưởng của đại dịch Corona. Chính phủ Hàn quốc hiện đang đưa ra rất nhiều gói hỗ trợ đa dạng cho các chủ hộ kinh doanh vừa và nhỏ, tuy nhiên do tôi là người ngoại quốc nên tôi đã không hưởng được chính sách này. Đặc biệt, trung quốc là nước không cho phép sử dụng đa quốc tịch nên tôi chỉ có thể sống tại Hàn quốc với visa cư trú vĩnh viễn. Tôi mong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như tôi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những sự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như là những người gốc Hàn.

Câu trả lời 3: Hiện thì tất cả mọi người bao gồm cả người Hàn và người ngoại quốc đang gặp rất nhiều những khó khăn mà đại dịch Corona mang lại. Nhưng đáng tiếc là hiện nay sự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đến những hộ kinh doanh thì không dành cho người ngoại quốc. Đây cũng là lần đầu chính phủ hàn quốc phải đối mặt với đại nạn này nên hiện việc hỗ trợ cho những chủ hộ kinh doanh là người ngoại quốc vẫn chưa được chính phủ tính đến. Cho dù là người Hàn quốc , tổ chức phi lợi nhuận thì 1 phần những người buôn bán sỉ lẻ ở 1 vài ngành nghề vẫn không nhận được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Vì vấn đề này nên các hộ dân đã đứng ra và yêu cầu thay đổi cải tiến từ chính phủ. Không chỉ vấn đề này mà hiện tại cũng đang có những yêu cầu lên chính phủ việc mở rộng chi cấp tiền hỗ trợ cho cả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Dù sao đi nữa thì trong thời kì khó khăn này, chỉ vì là người ngoại quốc mà chưa được nhận trợ cấp hỗ trợ từ chính phủ thì đây cũng là điều đáng tiếc. Chính phủ đang cần thêm thời gian để giải quyết. Mọi người hãy cùng cố lên

〈한글 기사 16면〉

강혜나 기자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관련 회의 진행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 및 생활형SOC(사회간접자본) 공급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제안형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날 회의는 광명 너부대 인근의 도유지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을 때 경기도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정대운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사업의 진행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한전 지중송전선로 이설공사 문제로 공사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주차장 재설계·지중선로 이설과 토목공사등의 공정을 병행시공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정윤경 의원,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유아교육 급식 관련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온석대학원대학교 박현화 교육학과 외래교수 및 관계자들과 유아교육 및 급식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송기문 경유연 이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도 함께 제도 보완 및 미비한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유치원 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유아교육 및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같이 의논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생활속 거리두기 각종 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 실내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체,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학원·독서실

- 실내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체,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음식점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앉기
- 식사 전, 흐르는 물에 비누를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소독하기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식사 후 - 휴대전화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하지 않기
- 식사 중이라도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의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종교시설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접촉·대면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여름캠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 좌석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입과 코를 가리도록 적절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칸막이 띄워 사용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욕 의자(선베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해수욕장

-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개인 차량 시설은 차량 끝을 기준으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벨기, 코 풀기 등 체액 배출을 자제하기
-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은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을 이용하기
- 불가피하게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칸막이 설치 사용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숨대롱) 등)는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공연장

-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20.07.18

9/9



광명시에서 자녀 육아 및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지난 7월 20일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아파트 어린이도서관에서 ‘광명시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와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락방’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정대운 유근식 오광덕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사)좋은친구들 법인 관계자, 이승택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등 내외빈과 입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명시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와 ‘경기육아나눔터 써밋다락방’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와 아파트 측이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와 시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다.

광명시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시간동안 돌봄교사가 상시 근무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육아 돌봄 광명서 더 쉬워졌다 다함께돌봄센터, 경기육아나눔터 개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한, 경기육아나눔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적 육아 돌봄 공간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간제 활동가와 관리원을 지원하고 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품앗이 활동비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소한 광명시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와 경기육아나눔터는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돌봄 가능한 돌봄 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며 “더 많은 권역별 돌봄시설 개소를 통해 광명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광명시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가족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상황이 된지 오래”라며 “양육과 돌봄 관련 시설은 공공이 나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센터를 설치했으나 코로나19로 개소식을 연기해 이날 개최하게 됐으며, 6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을 실시해 오고 있다.

광명시는 ‘돌봄터 확충’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돌봄 수요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매년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초등돌봄센터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온라인 한국어 수업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광명건가다가, 상반기 한국어교육 종업식 개최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7월 16일과 22일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종업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수준별 4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종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운영재개 방침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로 분반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어 교육생 50여명과 한국어 강사 및 센터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성취도평가 실시 및 출석, 수업태도 우수자 시상과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육생들과 강사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종업식이였다.

교육생은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실제로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니 반갑고 너무 좋아요”, “친구들 만나니 빨리 다시 센터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등 소감을 밝혔다.

한국어 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생 한명 한명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매번 교육생 80%이상이 출석했다. 이지는 기자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천명 선발, 다문화가족도 도전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생활방역지원,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복지·건강증진, 행정업무보조, 농가일손돕기, 경로식당 및 독서활동 업무보조 등 7개 분야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명 시민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업자, 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공무원 가족,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기간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나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일 3~8시간, 주5일 근무한다. 임금은 시간당 8590원 외에 교통·간식비(실내 근무자 5000원/실외 근무자 8000원)와 주·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8월 12일 선발자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로 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광명동굴 7월 22일 재개장! 광명동굴 즐기는 5가지 방법!

야간개장 시행 및 미개방 구간 공개! ... 동굴카페 입장권 없이 이용 가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야외 개장중인 광명동굴을 7월 22일부터 전체 개장했다. 공사는 임시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변신을 완료했으며, 「2020 광명동굴 제

로 즐기기」라는 주제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재미있게 즐기기’일환으로 미개방 3개 구간인 ▲광부이길 ▲황금광차길 ▲말발굽길을 새롭게 공개한다. 공개되는 구간에는 광차레일, 다이너마이트 발파구멍, 선녀탕, 실제 광부의 낙서 등 그 시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하다. 또한, 광명동굴 구석구석에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인생샷을 마음껏 찍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어 ‘시원하게 즐기기’일환으로 당초 예정된 야간개장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동굴 내부에 자리한 ‘동굴카페’는 11월까지 휴장일 없이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동굴카페는 광명동굴 동측 입구(소하동 방향)를 이용하면 편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코끼리차 이용 시 동굴카페 2,000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저렴하게 즐기기’행사도 마련했다. 성수기 기간 동안 3인 이상 가족 방문객에게는 입장권 20% 할인, 6시 이후 입장 고객에게는 최대 50% 입장권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성수기 고객 편의를 위한

광명동굴‘편하게 즐기기’도 준비했다. 광명시에서 8월까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아래에서 광명동굴 입구에 이르는 무장애 길을 조성해, 노약자, 장애인의 동굴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관광지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또한, 인공폭포 휴식시설 설치, 동굴입구 실개천 정비 및 광명동굴 주변 곳곳에 파라솔 119개, 그늘막 21개, 의자 320개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을 대폭 늘렸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즐기기’를 통해 고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객 안전을 위해 고객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간당 입장객 1,500명 제한, ▲고객 간 2m 거리두기, ▲동굴내부 중앙 분리대 설치 등을 시행하며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밖에, 동굴 내부소독 및 환기를 위해 시설물은 주 3회, 공용 사용 물건은 시간당 1회 상시 소독한다.

성수기 방문 예정인 고객들은 광명동굴 이용 5대 이용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체크하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2m 거리두기, ▲출입카드 작성하기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관람 할 수 있다.

이지는 기자



“뮤지컬로 김포 가족사랑 크게 키워요”
김포건가다가, “온라인 가족뮤지컬-안데르센이야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8월 가족사랑의 날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족애(愛)와 심리 정서적 안정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뮤지컬을 마련했다.

센터는 극단 자유마당과 김포문화재단의 협업을 최

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 홀에서 온라인 가족뮤지컬 안데르센이야기 ‘미운아기오리’ 공연을 녹화 촬영했다.

이번에 촬영한 뮤지컬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에드워드(edwith)를 통해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8월 가족사랑의 날 온라인 가족뮤지컬 신청은 센터홈페이지 (gimpo.familynet.or.kr) 및 전화접수(031-996-5923 가족사업2팀)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사랑을 키우고 이웃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족사랑 실천 및 가족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고촌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온라인 '청소년 직업멘토링'

고촌도서관 온라인 페이스북 강좌
새로운 사회, 청소년을 위한 직업멘토링

f 8.19.~9.9. 매주 수요일 오후 4~6시
 김포시립도서관 페이스북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gimpolib>

김포시 고촌도서관(관장 소영만)은 오는 8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회, 청소년을 위한 직업멘토링’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로운 사회, 청소년을 위한 직업멘토링’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을 위한 직업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직업 발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직업 세계와 변화하는 직업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현대에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리더십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 강의식 대면 강좌와 다르게 참여자들은 어디서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6시에 진행되며 총 4회 차로 운영된다. 문의 ☎031-5186-4843 이지은 기자

Thực hiện chế độ bảo hiểm lao động cho toàn công dân lợi ích lớn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kinh doanh ở một vài lĩnh vực đặc biệt.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많은 다문화가족에 도움 될 듯

Chính phủ quy định đến năm 2025 mọi người lao động tất cả đều phải đóng “ bảo hiểm lao động toàn công dân “ để có thể hưởng được chính sách lương thất nghiệp

Việc đưa vào thi hành chế độ này trong bối cảnh đại dịch corona đang gây ra nhiều ảnh hưởng lớn đến xã hội của chúng ta và số lượng lớn người bị mất việc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ày thì qua kiểm tra thấy được rằng đa số là không tham gia bảo hiểm lao động nên nhiều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nhận trợ cấp thất nghiệp.

Chế độ này được đưa vào thì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làm việc mà vẫn chưa tham gia bảo hiểm thì tương lai sẽ có những ích lợi lớn

Bộ lao động gần đây với sự hợp tác của các phòng ban liên quan đã phát biểu về “kế hoạch tăng cường hóa sự an toàn “ .

Ngày 14/7 vừa qua tổng thống Moon je in đã đưa ra đối sách tiếp nối chính sách “ 한국판 뉴딜”.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Lee Che Kap đã phát biểu rằng “ Vào năm 2025 thì tất cả mọi công dân đều sẽ nhận được bảo hộ từ bảo hiểm lao động ” và “ thông qua việc xây dựng thể chế nắm bắt mức thu nhập thì đến cuối năm

sẽ giảm bớt những vấn đề tồn đọng của bảo hiểm lao động và tiến hành chuẩn bị roadmap.

Hiện tại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lao động là chưa đến 14 triệu người. Hiện tại chính phủ đang có kế hoạch nâng tổng số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lao động lên 17 triệu vào năm 2022 bằng cách mở rộng đối tượng áp dụng bảo hiểm lao động như giáo viên dạy học ở nhà và các đối tượng thuộc ngành lao động đặc biệt khác.

Chính phủ cũng đang xem xét chế độ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người làm nghề tự do freelancer hay những người kinh doanh tự do tham gia bảo hiểm xã hội để tất cả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mất việc đều có thể nhận trợ cấp thất nghiệp.

Đây là hình thức bồi thường tối đa là 9 tháng và mức nhận hỗ trợ là 60% so với mức lương hiện tại.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làm trong các ngành đặc biệt. người làm nghệ thuật thì sẽ nhận được hỗ trợ bảo hiểm lao động 80% theo dự án durinuri. Theo đó 5 năm sau dự kiến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sẽ tăng hơn 53.6% tăng 2100 triệu người so với năm ngoái (1367 triệu người). Tuy nhiên

do đại dịch Corona nên vấn đề ở đây là làm sao để có thể lấp đầy khoảng bảo hiểm lao động đã ở mức cạn kiệt thế này.

Tin tức lần này không thể là tin tức không vui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àm freelancer,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 những người làm trong các ngành đặc biệt hoặc những người làm các ngành kinh doanh tự do.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đã có quốc tịch thì đương nhiên là sẽ thuộc nhóm đối tượng áp dụng chế độ “ Bảo hiểm lao động toàn quốc dân ” tuy nhiên những người chưa có quốc tịch thì hiện tại chưa nằm trong danh sách áp dụng này.

Mặc khác chính phủ cũng đang mở rộng đối tượng áp dụng bảo hiểm tai nạn cho những người gặp tai nạn trong khi đang làm việc để họ có thể nhận được tiền bồi thường. Từ tháng 7 thì nhóm đối tượng được áp dụng bảo hiểm tai nạn được nâng lên từ 9 ngành lên 14 ngành nghề. Theo kết quả nghiên cứu Chính phủ cũng đang có kế hoạch cho thêm các nhóm ngành áp dụng vào chính sách này như là các nhóm ngành làm việc freelancer thuộc lĩnh vực IT (kỹ thuật thông tin), người làm ngành nuôi trẻ ..vv.. <한글 기사 44면>

趣味新词汇你知道吗?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신조어 알고 있나요?

다문화가족에게 흥미로운 한국의 언어문화 들여다보기...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코로나블루:



韩式英语, “COVID-19”和“blue”的合成词。“blue”在英语中有“忧郁”的含义, 该新造词是指“由于新冠肺炎疫情, 大量人被确诊甚至死亡, 停课、失业、经济危机接连不断, 一部分人在这种大背景下外出活动减少, 社交范围急剧缩小而导致的抑郁状态”。这种心理症状虽然还未定义为医学领域疾病, 但有时会产生焦虑、头晕、消化不良、胸闷等不良反应。

韩国中央应急处置本部17日表示, 虽然近日境内新冠病毒疫情社区感染逐渐趋稳, 防疫网的控制能力逐步恢复, 但由于感染途径不明的病例仍不少, 防疫部门对疫情形势仍保持谨慎乐观态度。

这次疫情从年初开始持续到现在半年有余, 切实的影响了改变了人们的生活。人们从最初的对未知突如其来的病毒的恐慌, 到如今努力的对抗并渐渐适应, 这是一个说起来容易但其中却很艰辛的过程, 人们也在这中间自我娱乐 衍生了很多新词汇! 这些词汇大家知道吗

*확진자: 不单单是指确诊者, 也形容由于担心感染科罗纳肺炎, 严格控制外出, 运动量巨减, 体重“唰一下”上升的人! 확(唰) 짜다 (上升자 (的人))

*작아거리: 不单单是居家隔离的意思哦! 也形容疫情期间体重增加 衣服变小 穿不进衣服的情况! (웃이작아지다)

*집콕족: 집에 +콕 .形容使用尖硬工具准确钉住 嵌入的动作状态+박혀 있는 (钉住, 嵌入, 引申为一直呆在(某处)+족(族), 指通过居家办公、减少出行、居家隔离等途径保持社交距离, 大部分时间宅在家的一族。

*돌밥돌밥: 돌아서면(转身밥), 돌아서면밥 是指疫情期间, 人们外出就餐次数大幅减少, 在家吃完饭转身就要准备下一顿饭”的情况

*코로나블루: COVID-19+ blue.blue 英文中有忧郁的含义, 该新造词是指“由于科罗纳疫情, 大量人被确诊甚至死亡, 停课, 失业, 经济危机接连不断, 一部分人在这种大背景下外出活动减少, 社交范围极具缩小而导致的抑郁状态”这种心理症状虽然还未定义为医学领域疾病, 但有时会产生焦虑, 头晕, 消化不良, 胸闷等不良反应。

这些新词汇, 对于我们外国人来说很新奇, 很趣味. 虽然我们度过了最艰难的初期, 当时小编基本上面的词语全能对号入座, 如今我们可以把它当成笑谈, 但是一直以来的疫情的防护我们不可以掉以轻心.

中央应急处置本部防疫总括组长尹泰皓17日在记者会上表示, 尽管近日社区感染形势向好, 但零星的集体感染是新冠病毒的传播特性, 防疫部门仍要保持高度警惕. 不过虽然近期在从伊拉克回国的韩国员工及停靠釜山港的俄籍船舶船员中不断出现确诊病例, 但境外输入性病例向社区感染的可能性较低。

总之, 大家要遵守防疫部门提出的相关规定制度! 以一个积极的态度面对目前的形式 无论是疫情还是大环境! 相信我

们终会恢复到曾经无距离的社交, 亲朋好友相聚开怀, 彼此不用担心的相互拥抱!

한국의 중앙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안정세를 보이고 방역망 통제능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에 방역부문의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반년 남짓 지속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확실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고 지금은 서서히 적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힘든 과정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와중에 재미삼아 많은 신조어들을 파생시켰다. 다문화가족은 이러한 신조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확진자 :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될까봐 외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운동량이 급감해 몸무게가 확 올라간 사람!

*작아거리 : 단지 집에서 격리되어 있다는 뜻은 아님!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체중이 증가하고 웃이 작아져서 안 맞는 경우를 말함.(웃이 작아지다)

*집콕족 : 집+콕+족, 집에 콕 박혀 있는 사람을 뜻함.(재택근무, 여행 감소, 격리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

*돌밥돌밥 : 돌아서면 밥. ‘코로나 발생 기간 중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먹다보니 돌아서면 다음 식사를 준비한다’는 뜻이다.

*코로나블루 : COVID-19+blue. ‘코로나로 인해’라는 뜻과 영어로 우울하다는 ‘블루’가 합쳐진 것이다. 사람들이 확진 또는 사망, 휴교, 실업 등으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범위 축소 등의 원인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심리적 증상은 의학적 질환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초조함과 어지럼증, 소화불량, 흉부 통증 등의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신조어가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고 흥미롭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신조어를 농담 삼아 쓰기도 하면서 웃어넘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앙질병관리본부 윤태호 방역총괄 팀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지역사회 감염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이므로, 방역 당국은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한국인 직원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선박 승무원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역외수입성 질환이 지역사회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 적극적인 태도로 전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걱정 없이 포옹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조양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교육청, 23개 국가와 글로벌 교류 활동 온라인 워크숍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21일 줌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2020 글로벌

외국어 교육 공감과 나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별 글로벌 교류 운영사례 공유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는 글로벌 교류 활동 참여 교사와 장학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초등학교 글로벌 교류 운영 현황, ▲중학교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성과 진행, ▲고등학교 글로벌 교류 교육 활동 등에 관한 사례 나눔

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 온라인 교류 확대, ▲교육과정 내 글로벌 교류 운영 방안, ▲담당 교사 간 정보 공유 장 마련 등 글로벌 교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글로벌 교류 활동은 학생들에게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상호 문화 가치 이해, ▲세계시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

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워크숍은 비대면 시대에 글로벌 교류 활동이 지속되도록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교류 활동 참여 국가 수는 대만,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총 23개국이며 보내 참여 학교 수는 79교다. ☎031-820-0662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독서프로그램”

김포통진도서관과 김포건가다가,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포통진도서관(관장 이승주)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온라인독서프로그램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12회기 과정으로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12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0년 경기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의 부모(결혼이민자 포함)들에게 독서활동을 동

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인 다가온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센터 측은 2019년 김포통진도서관과 협약을 통해 다 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을 도서관 1층 다문화자료실에 설 치해 운영 중이다.

(사)더불어함께사는세상 김은희 강사의 지도로 진행 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을 위해 엄마가 들려주는 행 복한 늬대, 데지책 등을 통해 ▲자기탐색 ▲자기이해 ▲우리가족을 배우는 과정이 마련된다.

센터 관계자는 “비대면의 단점인 소통부재와 관련, 교 육기간에 SNS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질의응답 등을 진 행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교육 과정 중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는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은 현재 7월 29일 1회기가 진행된 상태로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인원 제한 없이 수업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문의는 031-996-5920으로 하면 되며 참여방법은 전 화신청 후 카카오톡 어플 설치 후 센터에서 제공한 패 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 김포시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 사업팀은 가정의 양육돌봄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 비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센터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 원함으로써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시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 프 로그램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 하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 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등하원,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로 최소 2 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양육을 위한 1:1 개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김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031-996-5922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 화 1577-2514 이지은 기자

ดำเนินการ“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วประเทศ”...ดูเหมือน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รัฐบาล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แนะนำ "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ห่งชาติทั้งหมด" ภายในปี 2568 ซึ่งจะช่วยให้คนงานทุกคนได้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การว่างงาน < 한글 기사 44면 > การแนะนำของระบบนี้เกิดขึ้นเนื่องจากผลประโยชน์การว่างงานจำนวนมาก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ผู้ว่างงานพบว่าเพิ่มขึ้นแม้ว่าจำนวนผู้ว่างงานเพิ่มขึ้นเนื่องจากวิกฤตการณ์โคโรนาส่งผลกระทบต่อ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หากมีการนำระบบนี้มาใช้คาดว่าจะ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อย่างยิ่ง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ที่ทำงานโดยไม่ต้องเข้าร่วม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เพิ่งประกาศแผ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เครือข่าย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โดยรวมมือกับกระทรวงที่เกี่ยวข้อง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ติดตามเพื่อสนับสนุนข้อตกลงใหม่ของเวอร์ชันเกาหลีที่ออกโดย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Moon Jae-in ในวันที่ 14 กรกฎาคม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 Lee Jae-gap กล่าวว่า "ในปี

2568 พลเมืองทุกคนที่ทำงาน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จาก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ปัจจุบันจำนวนสมาชิกที่จะ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น้อยกว่า 14 ล้าน รัฐบาลกำ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ขยายความครอบคลุมของ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ไปยังผู้จ้างงานพิเศษ (คนงานโรงเรียนมัธยมพิเศษ) เช่นครูของนิตยสารการเรียนรู้ เพื่อเพิ่มจำนวนสมาชิก 17 ล้านคนในปี 2565

รัฐบาลตัดสินใจที่จะสร้างระบบเพื่ออนุญาตให้คนงานทุกคนที่ตักงาน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การว่างงานโดยอนุญาตให้คนทำงานอิสระและผู้ทำงานอิสระทำ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นี่คือ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ประมาณ 60% ของเงินเดือนที่มีอยู่ได้นานถึง 9 เดือนคนงานและศิลปินที่มีเทคโนโลยีขั้นสูงมีรายได้น้อยตัดสินใจที่จะให้เบี่ย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 80%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ดำเนินการทั้งหมดตั้งนั้นห้าปีต่อ มาสมาชิก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คาดว่าจะเพิ่มขึ้น 53.6% จากปีที่แล้ว (13.67 ล้าน) เป็นประมาณ 21 ล้านอย่างไร

ก็ตามกฎหมายสำคัญคือวิธีการเติมกองทุนประกันงานทั้งหมดในโคโรนา 19

ชาวดีนี้เป็นชาวดีเนื่อง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มักจะทำงานเป็นอาชีพพิเศษคนทำงานอิสระหรือคนทำธุรกิจส่วนตัว

โดยธรรมชาติแล้วครอบครัววัฒนธรรมนานาชาติ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จะใช้กับระบบ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งหมด แต่สถานะ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ที่ไม่มีสัญชาติก็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รัฐบาลกำลัง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ของการประกัน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ซึ่งสามารถให้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พยาบาลหากคุณ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ขณะทำงา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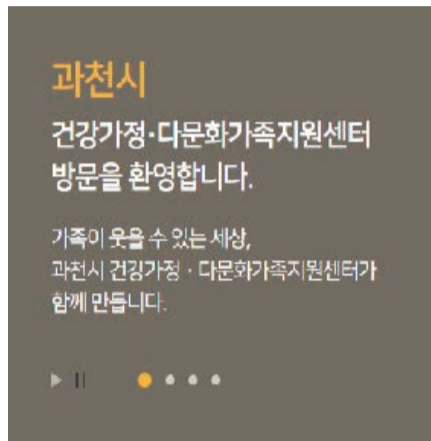
ตั้งแต่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จำนวนงานสำหรับพนักงานระดับสูง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จากประกัน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พิ่มขึ้นจาก 9 เป็น 14 รัฐบาลมีแผนที่จะเพิ่มงานที่สมัครงานเป็นอิสระและผู้ดูแล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อที (เทคโนโลยีสารสนเทศ) จากผล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วิจัย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아웃사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통번역사로 한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의 꿈 펼쳐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구사자 위한 통번역 특강 진행



“커뮤니티 통역 고객의 특성을 보면 국제회의의 경우 통역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경제, 정치, 사회, 외교, 학계 등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인사지만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범죄 혐의자 등은 직간접적으로 범죄나 소송에 연루되어 사법기관을 찾으면 심리적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적, 심리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3일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위한 통번역 특강>에서 ‘법원 통역과정’ 강의를 맡은 유혜선 강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상

을 통해 사법통역에 대한 이해, 사법통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수사기관 통역, 변호사 접견, 법원 통역, 난민 통역 언어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유 강사는 “불법체류, 무면허 운전, 사기, 방화, 강도, 불법 취업, 위장 결혼, 폭력사태 등이 증가하고 있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 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다”라며 “민사, 형사사건을 포함하는 모든 사법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통역을 사법통역이라고 한다”고 했다.

사법절차에서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 구사 가능한 언어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사소통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 수사기관, 유치장,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사법 기능이 실행되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 제공되는 통역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와 절차, 형사 법정의 모습,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며 사례를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 강사는 “한국의 사법통역은 지방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은 통역인 명부를 작성해 수요 발생 시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라며 사법통역의 적용 범

위와 장소,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관광. 의료. 사법통역사 양성 위한 교육 실시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위한 통번역 특강>을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 2회 화, 목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총 30회기 60시간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초입 2주간 통번역이 기본기를 익힌 후 분야별 집중 트레이닝 실시 및 통번역 기법 학습, 통번역사의 자세와 매너 학습을 통해 실전 연습, 통번역의 기초와 기초 학습을 통한 실무 적용 등이 교육과정으로 마련되며 최진희, 유혜선 등 7명의 강사가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6월 18일 오리엔티이션과 통역 소개 및 수강생 부분 진단을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다양한 통역의 종류 알아보기, 통역가의 기본자세, 쉬운 기사문으로 노트테이킹 연습하고 기호 표기법 학습, 뉴스 등 연상물로 메모리 연습하고 교정하기 등이 진행됐다.

7월에는 관광통역사 직업의 이해, 지도와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 역사 전통관광, 숙소 안내법, 조선시대를 통해 본 서울여행, 광명 관광지의 역사 찾아보기,

신라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여행,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여행 등 관광 통역과정이 1~3까지 진행됐다. 또한, 사법통역에 대한 이해 및 사법통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난민 통역언어, 수사기관 통역, 변호사 접견 등 법원 통역과정과 건강검진 예약, 건강검진 검사 등의료 통역과정이 진행됐다.

8월에는 의료통역과정으로 피부과 시술 과정 통역 및 피부와 화장품 또는 사용법과 한국어 기초 발음 연습, 통역원고 중심의 한국어 리딩법 등 스피치과정의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스피치과정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법 통역 원고 중심 한국어 리딩법 등이 진행됐으며 의료통역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 통역 사례 정리 및 웨도잉 테스트 등 의료 통역과정과 사례 중심 텍스트로 메모리 연습 등 경찰서 통역과정이 진행된다.

9월에는 통역 현장실습과 일반 번역과정, 기본 서류번역, 통역점검, 선배 통역사와의 Q&A 등이 진행된다. 9월 29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참가자 모두가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영상으로 진행되는 강좌지만 수강생도 강사분도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政府宣布加强当地社区就业福利,这有助于多元文化家庭

不久前,政府召开了文在寅总统发表的“韩国版新政综合计划”中关于“加强安全网”领域的新闻发布会,公布了对多元文化家庭也有帮助的制度。

韩国型伤残及病假津贴

政府还计划引入“韩国型伤残及病假津贴”,即使工人生病,也可以享受一定的津贴。到2022年为止,将以低收入阶层为对象进行示范后,制定引进方案。将废除基础生活保障制度中的生活、工资、抚养义务人等标准,改为计算标准中位收入的方式。工伤保险对象中还包括IT自由工作者及照顾护理人员。明年1月将实行国民就业支援制

度。其内容是,每月支付50万韩元,最多6个月。用于低收入阶层生活支援的“求职促进津贴”,并引入“就业支援计划”。

育儿假制度的改善

育儿休假制度也将大幅改革。为了防止怀孕工人的流产和死产,政府计划修订《男女雇用平等法》,以便在怀孕期间也可以休育儿假。为了让在需要的时候可以享受育儿休假,还会增加“分期使用育儿假”的次数。对于只能有限制地领取产前和产后工资的特殊工种从业者,也将支付育儿休假工资。

青年数字化就业岗位

政府决定,继今年实施“青年数字化就业岗位”项目在明年也继续实行。若中小及中坚企业聘用青年从事IT相关工作时,6个月内给每人提供最多180万韩元的人工费。

为了应对数字革命,职业培训也将转向以数字化为中心。计划为所有参与职业培训的求职者 and 在职者提供“数码融合培训”,若求职者参与该培训,将获取价值50万元的“K数码信贷”津贴。

国民就业援助制度

另外,还将加强填补雇用保险死角的第二个雇用安全网—国民就业支援制

度的服务。

国民就业支援制度与以保险费为基础的雇用保险不同,是用政府预算支付津贴的失业补助制度,将从明年1月开始实施。以低收入阶层求职者为对象,每月支付50万韩元,最长6个月的求职促进津贴,并提供针对性的就业支援服务。

政府计划对国民就业支持制度参与者提供在求职领域民间企业参加3个月左右实习项目的机会。对于缺乏工作欲望的人,可以在非政府机构(NGO)和公共机关等地进行30天左右的短期职务体验。<한글 기사 1면> 김희선 기자



여권발급 무작정 줄서기 '그만' 여권 민원 현황 홈페이지 공개



안양시의 여권발급민원 서비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하게 진화한다.

안양시는 여권 민원 대기 현황을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민원 대기 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청 여권창구에서 종이 번호표를 발급받아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을 없애고, 포스트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언택트 문화 확산에도 부응하기 위함이다. QR코드를 활용한 서비스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8월부터 시행하는 대기 현황 실시간 제공은 여권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줄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권 민원이 대폭 줄었지만, 다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의 여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섰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22일 센터 인근에서 '의료진과 국민 덕분에 감사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 심각단계 이후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맞벌이가족지원교육, 한부모가족지원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유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덕분에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를 지목했다.

이지은 기자

비자取得と變更に関連する結婚移民者の質問と答え

비자取得あるいは變更と関連して多くの外国人住民が質問を寄せた。韓国生活で様々な問題を抱えている人たちの声に耳を傾けてみる。質問への答えはソン・인순京畿グローバル센터代表が担当した。

質問1 : 私は永住権(F5)を持つ多文化家族です。韓国で學校にも通い、働き、結婚、出産を経て韓国在住10年になります。10ヶ月になる子どももいて、故国の両親を韓国に招待して子育てを手伝ってもらっています。

ところが両親のビザは3ヶ月の観光ビザです。父が3ヶ月滞在して帰国すると、母がやって来るという方法で子どもを育ててもらっています。韓国人のように両親を招いて長期的に子育てを手伝ってもらう方法はないのでしょうか?

答え1 : 残念な現実です。このよな問題は結婚移民者が韓国籍を取得後、韓国人の身分で両親を招いても同様です。最近ある結婚移民者が健康が優れない故国のお母さんを招いたのに、長期滞留資格が与えられないため、地方裁判所にて訴訟中です。残念ながら1次は敗訴し、抗訴して高等裁判所にて2次判決を待っているところです。家族結合という観点からアプローチしているので、訴訟判決によってご兩

親の長期滞留ビザが決定されると思います。もう少し見守ってみましょう。

質問2 : 母が韓国に住んで7年になり、今年で60歳です。韓国人と結婚し現在F6ビザですが、永住権取得を望んでいます。ところが歳をとって韓国語を7年間頑張っても合格できませんでした。母と結婚した韓国の男性も70代なので、母に永住権がなければ後日韓国人男性が亡くなってしまうと、母は中国に帰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韓国国籍者なので、中国にて母の面倒をみるのができません。このような特別な状況の場合、どうやってF5ビザを取得すればいいのかわ教えてください。

答え2 : 韓国政府の永住権取得の基本条件は言語と所得証明です。2018年12月18日から永住権前置制度が施行され、永住権を取得するためには、社会統合プログラム永住用総合評価試験を通過せねばなりません。一部試験免除特別配慮対象者もいますが、ただ年齢が高いからという特別配慮はありません。ただし質問者のお母さんの場合、婚姻生活中に韓国人配偶者が死亡しても、結婚移民者の滞留資格が維持されるので心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質問3 : 私は韓国に住んで10年目になる永住権者です。現在韓国でカラオケを運営しています。しか

し今回のコロナ事態の影響で経済的にたいへん苦しい状態です。韓国政府は中小企業と自営業者に多様な支援を行っていますが、私は外国人なので何も支援を受けられないでいます。特に中国は複数国籍を許容していない国なので、韓国では永住権で生活するしかありません。永住権を持つ外国人にも、韓国籍者と同等の待遇がなされる日が来ることを期待します。

答え3 : コロナ時代を迎え、全韓国民と移民者は苦痛のトンネルの中にいます。残念ながら政府は自営業者を支援する部分においては移民者を排除しました。これは韓国政府もこのような災難を初めて経験したため、移民者が運営する中小企業や自営業者部分までは考えが及ばなかったようです。韓国人でも非営利団体だとか一部の卸しや小売業種に従事する人たちには、支援がありません。そのため市民団体が改善を政府に要請しています。それだけではなく、登録外国人すべてに災難支援金を拡大支給するよう要求しています。たいへんな時期に、移民者だということによって支援から排除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残念なことです。もう少し時間が必要でしょう。頑張りましょう。

<한글 기사 16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다문화가족 취업교육으로 한국에서 희망찬 내일 준비해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2020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한다.(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요리자격증 과정)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해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과 ▲컴퓨터 ITQ 자격증 준비과정(아래한글, 한글엑셀)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은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취업기초소양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은 8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69시간 진행된다.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취업소양교육 1회기, 취업교육 23회기 등 총 24회기 72시간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이뤄진다. 출석률 70% 이상 수료 후 시험, 심사 후 자격증이 발급된다.

수료 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 다문화강사로 연계,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취업처 연계 등이 이뤄진다. 수료기관은 아시아 허브(교육, 시험)다.

다문화강사양성 자격증과정은 ▲한국사회, 다문화사회 ▲유아-초등의 이해 ▲문화이해, 강사로서의 태도, 실습 등 ▲교구 만들기, 국가별 동화 소개, 여러 가지 활동지도 등 ▲음식체험, 놀이체험 등이 진행된다.

컴퓨터 ITQ 자격증 준비과정은 8월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다. 출석률 70% 이상 수료 후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이 발급되며 수료기관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교육기관),

KPC 한국생산성본부(시험접수 기관)다.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취업처를 연계해 준다.

센터 관계자는 "2020년 2월 일자리센터와의 간담회에

의하면, 다문화사회 진입 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 인식개선 및 글로벌 문화체험 강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강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최근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기술이 부족하여 취업 지원에 두려움이 있으며, 결혼이민자 맞춤형 컴퓨터교육을 희망한다는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전문성을 갖춘 강의를 진행할 강사로 양성하고, 컴퓨터 교육(자격증 준비)과정을 개설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교육은 안양시 거주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인 취업희망 결혼이민자 대상이다.

센터는 이번 취업지원교육과 관련 "이력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하고 경제적 자립능력 증진 및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한국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의 기자

ประกาศของรัฐบาล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สวัส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ชุมชนท้องถิ่นที่จะช่วย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

รัฐบาลเพิ่งประกาศโดย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มุนแจอิน "การสร้างเครือข่าย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 แผนความตกลงใหม่

ที่ครอบคลุมเกาหลี"เขาจัดการบรรยายสรุปในสนามและประกาศระบบ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กา

ค่าใช้จ่ายเพิ่มของเกาหลี

รัฐบาลยังส่งเสริมการแนะนำ"ค่าเบี่ยงเบนเกาหลี"ภายในปี2565 จะมีการเปิดตัวแผนสำรอง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ซึ่งคนงานจะได้รับการประกัน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ป่วยและแนะนำแผนการมาตรฐานค่าครองชีพเพื่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นพื้นฐานของชีวิตถูกยกเลิกภายใต้มาตรฐานจะถูกคำนวณ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รวมถึงนักพัฒนาอิสระด้านไอทีและพนักงานที่หวังใน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แห่งชาติ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ปีหน้าคือการแนะนำ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สนับสนุนงานหลังจากจ่ายเงิน 500,000 วอนต่อเดือนสำหรับค่าเผื่อการ

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ำงา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ต่ำเป็นเวลา 6 เดือน

การปฏิรูปเพื่อเลี้ยงดูบุตร

การเล้าเลี้ยงดูบุตรนอกจากนี้ยังได้รับความอยากลำบาก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กันข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จะได้รับ

การแก้ไขเพื่อให้คนงานที่ตั้งครรภ์สามารถลาเพื่อเลี้ยงดูบุตรในระหว่างตั้งครรภ์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ท้งบุตรและคลอดบุตรจำนวนแผนกที่สามารถใช้เพื่อเพิ่มการลาเพื่อเลี้ยงดูบุตรเมื่อคนงานต้องการก็เพิ่มขึ้นเช่นกั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การ

ลาเพื่อเลี้ยงดูบุตรจะจ่ายให้กับพนักงานระดับสูงที่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ก่อนและหลังคลอดบุตรเท่านั้น

งานดิจิทัลเยาวชน

รัฐบาลอุดหนุนเงินค่าแรงได้มากถึง 1.8ล้านวอนต่อคนเป็นเวลาหกเดือนเมื่อองค์กร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ขนาดกลางจ้าง

คนหนุ่มสาวเพื่อทำงานด้านไอทีโครงการ 'Young Digital Jobs' มีกำหนดจะเปิดตัวในปีหน้า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การ

ปฏิวัติทางดิจิทัลการฝึกอบรมสายอาชีพได้เปลี่ยนไปสู่การฝึกแบบดิจิทัลเราจะให้การฝึกอบรมคอนเวอร์

เจนซ์แบบดิจิทัลแก่ผู้หางานและผู้ที่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ฝึกอบรมสายอาชีพและค่าใช้จ่ายเครดิตดิจิทัลเครดิตพิเศษ '500,000 วอนเมื่อผู้หางาน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ฝึกอบรมนี้

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จะเพิ่มความแข็งแกร่งใ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ของ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แห่งชาติเครือข่าย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ารทำงานที่สองที่เต็มจุดบอดประกันการทำงาน

แตกต่าง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นการทำงานตามเบี่ยงเบนแห่งชาติ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ป็นระบบช่วยเหลือการว่างงานที่จ่ายเบี่ยงเบนในงบประมาณของรัฐบาลและ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งแต่วันที่ 1 มกราคมปีหน้า 500,000 วอนต่อเดือนสำหรับผู้หางานที่มีรายได้ต่ำจะได้รับค่าตอบแทนสูงสุดหกเดือนและให้บริ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ที่กำหนดเอง

รัฐบาล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ผู้เข้าร่วมใน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ำงานแห่งชาติมีโอกาส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ฝึกงานภายในสามเดือนของ บริษัทเอกชนในสาขาการหางาน ผู้ที่ไม่มี ความตั้งใจ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สามารถมอบ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ระยะสั้นได้ประมาณ 30 วันในองค์กรพัฒนาเอกชนและสถาบันสาธารณะ < 한글 기사 1면 >



안양시청 031-8045-7000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안양여성의전화 031-468-1366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의사소통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즐거운 소통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맺고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0 너의 마음을 보여줘, 자기표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미술, 동작, 음악 등 통합적인 매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표현, 적응 유연성을 기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센터가 지정한 봉담 동화지역아동센터(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와 우정 밀알지역아동센터(사진 세번째)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양한 감정과 정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를 때와 장소에 맞추어 표현하고 조절하기,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를 읽고 공감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저학년반과 비다문화가정 자녀 통합반은 주 1회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밀알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며 고학년반 주 1회 14시부터 16시에 동화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10일 두 곳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고, 그 정서를 올바르게 나타내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며 "이를 통해 때와 장소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정서인식과 표현, 나아가 정서 조절 능력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 특수고용직 많이 종사하는 다문화가족에 도움 될 듯

코로나 사태에서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 없도록,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직자가 대거 늘어났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 하는 다문화가족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25년에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천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에 순차 가입하도록 해 직장을 잃은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 월급의 60% 정도를 최대 9개월간 보장하는 식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1367만명)보다 53.6% 늘어난 210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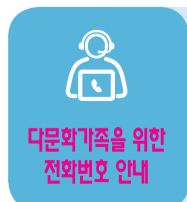
이번 소식은 다문화가족 등이 특수

고용직 혹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은 당연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적용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국어 2면, 베트남어 38면, 태국어 40면> 이지은 기자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Адаптированный вариант hikorea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러시아어권 이주민 대상 hikorea 편리한 이용방법과 재입국허가 온라인신청 안내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 е, наверняка не раз слышали про сайт hikorea.go.kr - официальны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айт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вопросам проживани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и другим услугам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ю.

Помим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азы осно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а, продления, смены виз,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и гражданства, многие процедуры, такие ка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бронирование посещения в 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прод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смена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и др., - возможны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на сайте hikorea без пос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Для удобств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а также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писок процедур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постепенно расширяется. Так, 19 июня на сайт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возможности онлайн регистрации и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10 июля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справки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правки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ыезжающих в командировку в целях рабо

ты, сбора материалов,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онлайн через сайт hikorea без пос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Обновленная версия сайта также содержит отд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лощадку(정보광장) о жизни в Корею, порядке въезда,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 прямыми ссылками на основные сайты.

Кроме того, также есть версия сайта hikorea для смартфонов.

Но есть одно "но". Сайт действует на 3х языках: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Многи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е владеющие в достаточной степени ни одним из этих языков, не могут оценить удобство пользования сайтом hikorea. На своем опыт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браузер Хром и Гуглпереводчик. Конечно, перевод частично неточен, но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с основными категория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онлайн процедур(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бронирование, продление айдикады, смена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 и прочее) вполне

е пригоден.

8 июля на сайте hikorea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орядок онлайн регистрации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вторный въезд(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иже на фото приведен русифицированный вариант; надеюсь, многим поможет.

Можно также посмотреть видео с подробным объяснением, как использовать Гуглпереводчик.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마도 이민 정책, 거주자격 및 기타 외국인 서비스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 사이트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 대해 한 번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 및 연장, 비자 변경, 난민 지위 및 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본 문서의 정보 외에도 출입국관리소 방문 사전 예약, 체류 상태 연장, 거주지 변경 등의 많은 절차가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 웹 사이트의 온라인 모드로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모드의 민원 신청 목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9일에 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과 재입국 허가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 10일에는 외국인의 외국 출장(기업, 취재, 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 면

제서 발급)을 위해 방문 없이 한국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과 관련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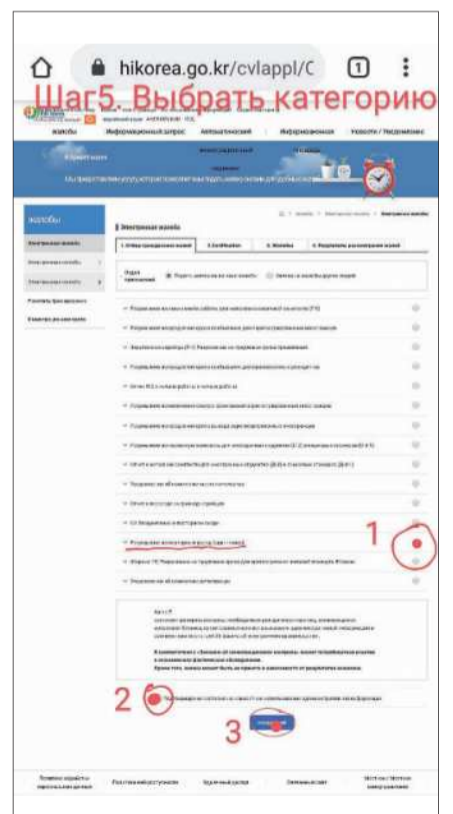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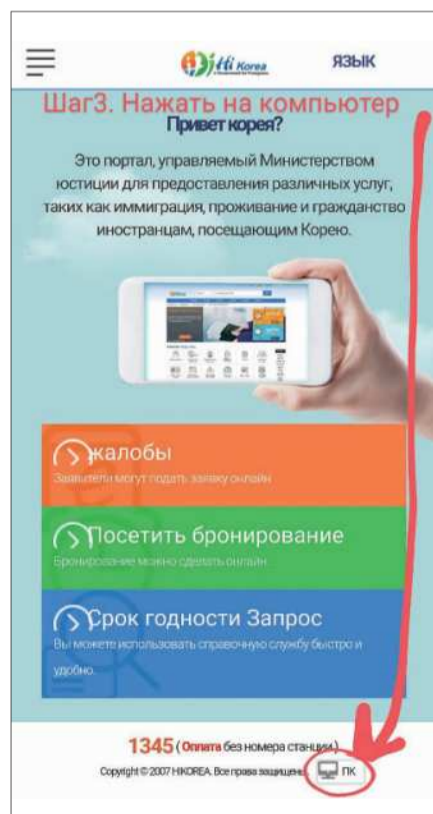
이 사이트의 업데이트된 버전에는 추가로 한국 생활, 입국 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의 정보 플랫폼(정보 광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폰 하이코리아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많은 러시아어권 동포들은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자의 경험으로는 크롬Chrome 브라우저와 구글Google 번역기를 사용하면 일정부분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번역은 부분적으로 부정확하지만 온라인 절차 자체 예약(사전 예약, 신분증 갱신, 거주지 변경, 재입국 허가 등)을 위해 주요 범주에 익숙해지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에 재입국 허가를 얻기 위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절차가 추가 되었습니다.(한국어) 아래 사진은 Russified 버전을 보여줍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Từ trước đến nay, nạn nhân là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không dám khai báo với cảnh sát vì **sợ bị tố cáo lê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bị cưỡng chế trục xuất về nước.**

Thế nhưng, giờ đây Cảnh sát sẽ bảo hộ nhân quyền cho mọi người, đảm bảo sự bình đẳng trước pháp luật, xóa bỏ rào cản trong bảo hộ nhân quyền,

Với những lý do trình bày trên đây, kể từ ngày 1.3.2013 trở đi, cảnh sát sẽ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của người bị hại là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được xác minh trong quá trình giải cứu họ lê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ăn cứ pháp luật

- Điều 84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ghĩa vụ thông báo)
- Điều 92-2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Miễn nghĩa vụ thông báo)



Do cảnh sát không gửi thông báo về thông tin cá nhân của người khai báo lê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ên khi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bị xâm phạm bởi tội phạm đến khai báo với cảnh sát thì **nạn nhân có thể có đủ thời gian cần thiết để phục hồi thiệt hại.**

*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khai báo sai sự thực** hoặc thuộc 'trường hợp được công nhận là cảnh sát không thể hoàn thành công vụ qua báo cáo', thì cảnh sát có thể thông báo thông tin cá nhân của người khai báo lên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ác nhóm tội phạm nguy hiểm

- Giết người, gây thương tích·hành hung, vô ý gây chết người, hắt hủi·ngược đãi, đe dọa, bắt giữ· giam cầm, bắt cóc· dụ dỗ, cưỡng hiếp· quấy rối tình dục, cố tình cản trở thực thi quyền hạn, trộm cắp, cướp, lừa đảo, hãm dọa
- Pháp lệnh quy định trừng phạt hành vi bạo lực, Luật đặc lệ quy định xử phạt tội phạm hiếp dâm, Luật đặc lệ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Thí dụ khai báo điển hình

Phụ nữ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ân phận là người cư trú bất hợp pháp bị hiếp dâm bởi một người đàn ông đồng hương vào tháng 9 năm 2012 bản thân không dám khai báo lên cảnh sát do sợ sẽ bị trục xuất về nước. Sau khi biết được rằng sẽ không bị thông báo cho Văn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dù có khai báo với cảnh sát, nạn nhân đã khai báo với Cảnh sát và kẻ tình nghi phạm tội đã bị bắt giữ vào tháng 4 năm 2013.



Khai báo bằng cách nào?

Bấm số 112 để khai báo hoặc đến thẳng Đồn cảnh sát (phòng tiếp dân vv) rồi để khai báo hoặc điền vào đơn tường trình bị thiệt hại

- Có thể đi cùng với bạn thân hoặc có thể khai báo qua người thứ 3.
- Có thể khai báo bằng cách ghé vào **trang chủ internet của Đồn cảnh sát**
- Trung tâm hỗ trợ an toàn Dream cho Phụ nữ· Người tàn tật· Trẻ em của đồn cảnh sát
Trang chủ www.safe182.go.kr
- Trang chủ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http://cafe.naver.com/facenter>

Cảnh sát tiếp nhận khai báo các vụ việc về 4 loại tội phạm xã hội liên quan đến vấn đề bạo lực tình dục, bạo lực học đường, bạo lực gia đình. **Nhất là mọi người có thể tin tưởng vào cảnh sát.**



以前非法停留外国人在遭到犯罪案件受害后，**因为担心警察向出入境管理事务所通知非法停留事实，被强制遣送回国**，所以没能报警。

警察从法律面前人人平等的原则出发，使人权保护普遍化，全面根除人权保护死角

从2013, 3, 1起，即便在救助重要犯罪案件受害者过程中获知受害者是非法停留外国人，也不向出入境管理事务所告知受害者信息。

法律依据

- 出入境管理法第84条(通知义务)
- 出入境管理法施行令第92条2(免除通知义务)



因为重要犯罪案件受害者即便是非法停留外国人，也无需担心报警后警察向出入境管理事务所通知自己非法停留的事实，所以警察救助**受害者所需的时间得到了足够保障。**

* 但非法停留外国人谎报案情或警察认为非法停留外国人的报警不符合警察执行公务目的时，可以向出入境管理事务所通知非法停留事实。

重要犯罪种类

- 杀人、伤害·暴行、过失致死伤、尸体遗弃·虐待、胁迫、逮捕·监禁、控制引诱、强奸·猥亵、权利行使妨碍、盗窃、强盗、诈骗、恐吓
- 暴力行为相关处罚法律、性暴力犯罪相关处罚特例法、交通事故处理特例法

报警案例

约在2012年9月，有一名女性非法停留外国人遭到其本国同胞男性强奸后，怕被强制遣送回国，一直没能报警，但得知警察不会向出入境管理事务所告知受害者个人信息后，于2013年4月左右，向警察报警揭发了犯罪嫌疑人。



报警有何种方法?

拨打112报警，或亲自前往警察署(信访办等)报警，并填写受害经过书。

- 可以与关系好的熟人同行前来报警，也可以第三者代受害者报警。

可以进行网上报警

- 安全Dream儿童·女性·残疾人 警察支援中心网站 www.safe182.go.kr
- 外国人救助中心网站 <http://cafe.naver.com/facenter>

警察随时受理社会“四大恶根除”相关报警，包括性暴力、校园暴力、家庭暴力，所以有困难时敬请向警察报警求助。



화성시, 외국인주민 많은 향남에 2022년까지 '가족통합센터' 건립한다

병점에 위치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분원으로 계속 운영, 기대 커져



화성시는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향남읍에 2022년까지 '화성시가족통합센터'를 건립한다.

화성 서부권인 향남읍 평리 86-6번지에 지상 5층, 4천855㎡ 규모로 건립되는 가족통합센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약 184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2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화성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동부권인 병점에만 1곳씩 있어서 향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병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화성시는 향후 가족통합센터가 건립되면 이곳에 입주하는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분원으로, 기존 병점에 있는 센터는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교육, 위기가정 상담 등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통합센터는 초기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인테리어를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의 모델로 만들어진다.

화성시는 지난 22일 향남생활문화센터 교육실에서 정승호 복지국장을 비롯해 김인순 경기도의원, 송선영·김경희 화성시의원, 김재정 (주)주건축사사무소 다보 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가족통합센터 통합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기존의 건축물들이 준공 후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요되는 중복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축·인테리어 통합 방식을 적용한

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립률 확보를 통한 제로에너지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 ▲공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멀티공간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건축 등 4가지 키워드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가족통합센터에는 건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발안만세시장과 상생이 가능한 휴게음식점, 작은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이번 가족통합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들어감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건축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새 단장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30일 재개관, 다문화가족도 이용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가 지난 30일 새로운 전신으로 재개관했다.

28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관을 하고 개관 1주년 기념 '반짝반짝 새 단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코리아캐라톱스와 떠나는 백악기 여행'상설전시와 공동체험관에 설치됐으며 벽화 속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듯한 공통AR 트리아트전도 마련됐다.

또한 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한 김계현 작가의 '블록 바닷속으로'전시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컬러풀 댄스', '두드리는 숲'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 등도 준비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볼거리들로 풍성하다.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1일 입장객은 총 76명으로 한정되며 체험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100% 사전예매로만 가능하다.

각 체험은 3~4명으로 감축 운영되며 센터 입장 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신순정 화성시 아동보육과장은 "1m 이상 거리두기와 수업 종료 후 모든 교구를 소독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에서 온 생활 안내서' 발간 다문화가족에게도 유용한 안내서



화성시는 전입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화성에서 온 생활안내서'를 발간해 보급한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발간된 책자에는 민원안내, 행정, 교육, 도시안전,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경제, 농어촌, 맞춤형 발전 등 10개 분야에 대한 3대 시정방침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책자는 화성시 전입 시민을 위해 약 2000부가 제작됐으며, 시청·동부출장소·동탄출장소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시 홈페이지 전자책 라이브러리(<http://ebook.hscity.go.kr>) 및QR코드를 통해 E-Book으로 제작한 책자도 존재한다.

또한 화성시는 향후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번역책자 제작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립도서관, 24일 운영 재개 대출과 반납, 열람실 등 단계 운영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됐던 관내 시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입장 정원 제한, 이용객간 거리두기 및 방역안전관리를 강화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시립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반납, 열람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개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대비 30%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각 한 시간씩 내부 환기와 방역활동으로 도서관 내 체류가 불가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도서관 내부 전체 방역을 진행한다.

특히 도서관 별 방역관리책임자 지정과 손소독제 비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방문대장 작성 병행,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 프로그램 등은 국가위기관계가 하향될 경우 일부 좌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저는 프로그래밍 엔지니어가 꿈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만 할 줄 알았지 기계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융합해서 움직이는지 잘 몰랐거든요. 오늘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요. 제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박성준 군. 중1)

화성시의 다문화가족들이 3D프린팅,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지난 7월 25일과 26일 용산전자랜드 내 숙명캠퍼스타운 교육센터와 X SPACE에서 ‘2020 마음E편한세상 과학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회장 이은령)가 IT체험 및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투트랙(Two-Track) 리더십&ICT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12명과 어머니 8명, 아버지 2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다양한 첨단기술 교육 및 체험활동과 리더십 워크숍, 로봇코딩교육 및 피지컬 코딩교육 등

을 제공했다. 특히 3D프린팅,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체험과 같은 활동은 국내 최초 4차산업 종합 체험관인 용산 X SPACE에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됐다.

3D프린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물건으로 구현했으며 VR케이블에서는 좀비떼가 공격해 오는 가상의 공간을 창출했다. VR플라잉은 마치 자신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동작과 시각을 그대로 구현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주지가 농촌 지역에 가까워 IT체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선별해 당일 아침 일찍 용산으로 데려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박성환 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재미있을지 몰랐다”며 “단순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케일이 무척 커서 상상 이상으로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은령 회장은 “경험해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할 때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첨단 기술과 기기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확장하고 펼쳐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세계의 기술은 4차산업 즉, IT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다른 교육도 많지만 IT교육을 하는 것은 소질을 개발해 인재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금을 더욱 키워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는 ICT를 전공한 30여명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 혜택을 못 받는 저개발국가 및 저소득층 여성, 저소득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 참여를 통한 능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HP재단이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자원봉사자를 동원했다. 온라인자원봉사자는 참여자들과 5팀으로 나뉘어 꿈을 품은 비행기(꿈뽕기)를 온라인상에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사진설명 ① 다문화가족 참가자 단체사진 ② X SPACE VR플라잉 체험 ③ 주요 관계자 왼쪽부터 이현주 센터장, 이은령 글로벌여성ICT네트워크 대표, HP관계자 ④ X SPACE 드론 체험하는 참가자들 ⑤ X SPACE VR레이싱 체험 ⑥ 용산전자랜드 내 숙명캠퍼스타운 교육센터 코딩교육